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 ▶ 책임연구원 : 김태준(한국교육개발원 · 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이영민(숙명여자대학교 · 교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 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0-33-01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연구 I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10-33-02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연구 I : 2011 민주시민역량실태 조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10-33-03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연구 I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한국교육개발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장근영 연구위원	박수익 부연구위원 박선영 교수(동서대학교)
협력연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준 연구위원	이영민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대한민국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50년 만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지금도 느려 지지 않아서 이제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국제화와 세계화를 이루 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동시에 도전이기도 합니다. 내적으로는 다문화된 국가로서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하고, 정치적 이견과 갈등을 생산적으로 해결하고, 정보시대에 강화된 개개인의 권한을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들과, 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들에 직면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인 민주시민역량은 위에 언급한 도전들에 미래세대가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로 하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은 OECD에서 제안한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연구를 통해서 미래세대에게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인 역량을 정의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회(IEA)에서 실시한 국제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 조사(ICCS)의 결과분석 작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들의 민주시민역량의 국제비교를 수행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에서 우리 미래 세대가 민주사회의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의 현황과 변화 양상 그리고 이를 보다 바람직하게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작업 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교육 및 청소년활동 분야에서 민주시민역량의 중요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 합니다.

2011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 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국내외 시민 교육 연구 및 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수준을 비롯하여, 이들을 둘러싼 교육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횡단자료로는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의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를, 국외 횡단자료로는 2009년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자료를 활용하였고 종단적 인식의 변화를 살피기 위하여 1980년대부터 2008년까지 진행되어온 “세계시민의식조사(WVS)”의 3차년도와 5차년도 자료 중 청소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에 활용했다.

청소년의 핵심역량, 민주시민역량, 비판적사고 역량 분석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인식은 초·중학생에 비하여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소속감 및 삶에 대한 만족도는 현저하게 낮았다.

ICCS(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조사 분석 결과, 시민의식 지식에 있어서는 모든 항목에서 국내학생의 지식의 평균이 높은 반면, 실제 향후 성인이 되어서의 선거에 참여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국제학생들의 평균이 높았다. 따라서 대한민국 학생들이 민주 시민의식의 지식만큼이나 행동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WVS(World Values Survey) 분석결과 OECD 국가 학생들의 경우, 전반적인 행복감, 삶의 만족도, 어떠한 일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자유로움에 있어서 Non_OECD 국가 학생들에 비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충성도에 있어서는 Non_OECD 국가 학생들의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또한 OECD 국가 학생들의 경우,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에서 Non_OECD 국가에 비하여 높은 참여를 보인 반면, 나머지 모든 사회정치적 활동에 있어서는 오히려 Non_OECD국가 학생들의 참여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의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민주시민 의식교육, 학교 자체적으로 자율성, 공공성, 민주성, 책임성 등과 관련된 민주시민 문화적 풍토 및 분위기의 확장, 가정과 지역사회 시민교육의 ‘체제’ 구축, 세계화와 지역 통합 맥락에서 시민교육 추진 등을 제안했다.

핵심어: 민주시민역량, ICCS, WVS, 핵심역량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향후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수준을 비롯하여, 이들을 둘러싼 교육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하여 미래 세대의 민주시민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도출하고 그 효과를 예측하기 위함.

2. 연구내용

-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과 이들을 둘러싼 한국의 교육환경을 해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에 있어서 활용 가능한 국내외 자료를 정리함. 국내외 각종 선행연구 및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민주시민 역량의 정의와 개념 및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이들 중 본 연구에 적합한 조사내용을 제시함.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횡단자료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를, 국외 횡단자료로는 “ICCS” 2009년 자료를 사용하였고, 종단적 인식의 변화를 살피기 위하여 1980년대부터 2008년까지 진행되어온 “세계시민의식 조사(WVS)”의 3차년도와 5차년도 자료 중 청소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에 활용함.
-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를 통해서는 대한민국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의 핵심역량과 민주시민의식 역량 및 비판적 사고역량의 현주소를 파악함. 또한 ISSC(2009년)를 바탕으로 국내외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및 미래투표의지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세계시민의식 조사(WVS)를 통해서는 전세계 청소년(17-18세)들의 신뢰와 정치참여, 삶의 만족과 행복감 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비교분석 하였음.

3. 연구결과

1) 청소년의 핵심역량, 민주시민역량, 비판적사고 역량 분석

-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인식은 고등학생이 초·중학생에 비하여 학교생활 소속감 및 삶에 대한 만족도는 현저하게 낮았음. 또한 이들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접촉의 양과 질,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역시 다른 집단에 비하여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입시부담이 증가하여 삶의 질 저하가 나타나는 것을 반영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음.
- 가족관계 변수는 삶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가족관계 변수로 설정한 부모학력과 가구경제수준 등 모든 영역에서 각각의 변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삶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음. 특히 가구 경제력의 경우, 자기 집의 경제적 수준이 “하” 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에 비하여 “상” 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점수가 월등히 높았는데, 이를 통해 경제적 수준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음.
-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높은 편이나 기본적인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지식수준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정치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청소년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으며 국민은 정부를 비판할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92.0%로 나타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나 민주적 의사결정보다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청소년이 19.5%, 민주주의가 아니더라도 모두 잘 살 수 있으면 된다는 응답이 18.5%,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0.8%에 달해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다는 점이 발견됨.
- 가족관계 변수는 일반 핵심역량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음. 특히,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은 정치에 관심이 높았으며, 민주시민 역량 역시 높았음. 또한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아동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는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역량 차이분석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는 비율이 낮아, 민주시민 의식을 올바르게 가질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수준과 학교수준 등 2개 수준의 변수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결과에서 개인수준의 변수에 의한 영향이 학교수준의 변수에 의한 영향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대부분의 하위변수에서 학교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5% 미만으로 매우 미약하게 나타났음.

2) ICCS 조사 분석결과

-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반장/학생회 임원투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 내 활동에 소극적이었음. 즉 우리나라 학생들은 특정 영역의 활동참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비율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예측되었음.
- 한국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 개발과 관련된 학교교육 및 교육환경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학교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학급 토론에 있어서도 더 개방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여학생들은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도 남학생에 비하여 공정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학생의 참여가 학교를 더욱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 이러한 여학생들의 특성은 민주시민 역량에도 영향을 주어 시민의식에 관한 지식에서도 남학생 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미래 투표의지 역시 높았음.
- 시민의식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는 모든 항목에서 우리나라 학생의 지식의 평균이 높은 반면, 실제 향후 성인이 되어서의 선거에 참여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국제평균에 미치지 못함. 따라서 대한민국 학생들의 민주 시민의식의 지식만큼이나 행동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시민역량 지식에 영향을 준 요인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기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민역량 지식이 높았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시민역량 지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또한 학교에서의 활동에 대한 참여가 많을수록, 학생참여의 가치를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미래 투표의지에 영향을 준 요인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기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래에 투표에 참여할 의지가 높았으며, 부모의 정치사회에 대한 기대는 자녀가 미래에 민주시민 역량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이에 학교생활 변수를 추가한 결과, 학교 활동의 참여, 교사 및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역시 미래 투표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3) WVS 조사 분석결과

- WVS자료를 활용하여 세계 청소년의 시민의식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먼저 성별에 따라 여학생은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남학생보다 적극적으로 차별을 반대하고 있었으나, 국가에 대한 충성도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다소 높았음.
- OECD 가입여부에 따른 세계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OECD국가 학생들의 경우, 전반적인 행복감, 삶의 만족도, 어떠한 일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자유로움에 있어서 Non_OECD 국가 학생들에 비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그러나 국가에 대한 충성도에 있어서는 Non_OECD 국가 학생들의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음. 또한 OECD 국가 학생들의 경우,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에서 Non_OECD 나라에 비하여 높은 참여를 보인 반면, 나머지 모든 사회·정치적 활동에 있어서는 오히려 Non_OECD국가 학생들의 참여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 조사년도에 따라 청소년의 민주의식에 변화가 존재하는지 분석한 결과, 조사년도에 따라 행복감, “건강상태”,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어떠한 일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의 자유” 등 모든 항목에서 최근 조사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평등한 시민사회 인식이 보편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음.
-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울 의향이 있다”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하여 “아니오”라는 응답이, 높아져 이전에 비해 국가에 대한 애착은 낮아지고, 개인주의의 의식은 향상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음.

4. 정책제언

- 연구 결과, 민주시민과 관련한 지식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민주시민 의식교육이 필요함. 우리나라 청소년의 민주시민과 관련한 활동은 임원 선거 등 소수의 활동에 국한되어 있고,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토론 활동은 거의 없었음. 즉 한국의 교육은 시민의식과 관련하여 지식적인 교육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천적이고 행동하는 분야에서는 미흡함. 그 결과 이들의 민주시민 관련 지식은 높으나, 미래 투표의지나 사회 참여 등 실천적 행동은 낮아, 지식이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 학교 자체적으로 자율성, 공공성, 민주성, 책임성 등과 관련된 민주시민 문화적 풍토 및 분위기를 확장해야 함. 학생들은 삶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고 있었으나, 이들의 민주시민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 및 가정환경 배경에 대부분이 한정되어 있었음.
- 가정과 지역사회 시민교육의 ‘체제’ 구축이 필요함. 시민교육은 비단 학교만의 몫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도 함께 부담해야 할 책임임을 명확히 해야 함. 특히 분석결과에서 뚜렷하게 확인되었듯 가정배경 및 환경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시민교육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가 함께 연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함.
- 시민교육은 세계화와 지역 통합 맥락에서 추진해야 함. 최근 세계 각국의 시민교육의 강화 경향은 세계화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시민교육은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음.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1. 민주시민역량의 개념	9
2. 시민역량 관련 선행연구 분석	11
제 3 장 연구방법	15
1. 연구추진체계	17
2. 자료분석	18
제 4 장 연구결과	25
1. 청소년 핵심, 민주시민, 비판적사고 역량 조사 분석결과	27
2. ICCS 조사 분석결과	100
3. WVS 조사 분석결과	182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45
참고문헌	255

표 목 차

〈표 II-1〉 사회적 자본 측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요소	11
〈표 III-1〉 청소년 역량의 구분	20
〈표 III-2〉 ICCS 변수 설정	21
〈표 III-3〉 ICCS 분석방법	21
〈표 III-4〉 ICCS 세부 변수 설정	22
〈표 III-5〉 WVS 변수 설정	23
〈표 III-6〉 WVS 세부 변수 설정	24
〈표 IV-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28
〈표 IV-2〉 학교생활 전반적인 만족도(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29
〈표 IV-3〉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30
〈표 IV-4〉 학교생활 경험	31
〈표 IV-5〉 자율적 행동 역량변수 기초분석결과	32
〈표 IV-6〉 관계지향성 역량변수 기초분석결과	32
〈표 IV-7〉 사회적 협력 역량변수 기초분석결과	33
〈표 IV-8〉 갈등관리 역량변수	33
〈표 IV-9〉 성별에 따른 청소년 핵심역량 차이분석	34
〈표 IV-10〉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 핵심역량 차이분석	36
〈표 IV-11〉 아버지 학력에 따른 청소년 핵심역량 차이분석	38
〈표 IV-12〉 어머니 학력에 따른 청소년 핵심역량 차이분석	40
〈표 IV-13〉 가구 경제력에 따른 청소년 행동역량 차이분석	42
〈표 IV-14〉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행동역량 차이분석	44
〈표 IV-15〉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청소년 행동역량 차이분석	46
〈표 IV-16〉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청소년 행동역량 차이분석	47
〈표 IV-17〉 민주시민 역량관련 기초분석	50
〈표 IV-18〉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분석	52
〈표 IV-19〉 거주지역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분석	55

〈표 IV-20〉 아버지 학력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분석	52
〈표 IV-21〉 어머니 학력에 따른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차이분석	54
〈표 IV-22〉 가구 경제력에 따른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차이분석	57
〈표 IV-23〉 학교급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분석	59
〈표 IV-24〉 학교설립 유형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분석	61
〈표 IV-25〉 남녀공학여부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분석	63
〈표 IV-26〉 2010 청소년 역량조사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	66
〈표 IV-27〉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67
〈표 IV-28〉 학교생활 적응	68
〈표 IV-29〉 학교생활 변수 기초통계 분석	69
〈표 IV-30〉 학교생활 경험	70
〈표 IV-31〉 학교생활 경험	71
〈표 IV-32〉 자율적 행동 역량변수	71
〈표 IV-33〉 비판적 사고 역량변수	72
〈표 IV-34〉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특성차이	73
〈표 IV-35〉 아버지학력에 따른 학교생활 특성차이	74
〈표 IV-36〉 어머니 학력에 따른 학교생활 특성차이	75
〈표 IV-37〉 가구경제력에 따른 학교생활 특성차이	76
〈표 IV-38〉 학교설립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특성차이	77
〈표 IV-39〉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특성차이	78
〈표 IV-40〉 학교급에 따른 학교생활 특성차이	79
〈표 IV-41〉 성별에 따른 비판적 사고역량 차이분석 결과	80
〈표 IV-42〉 아버지 학력에 따른 비판적 사고역량 차이분석 결과	81
〈표 IV-43〉 어머니 학력에 따른 비판적 사고역량 차이분석 결과	82
〈표 IV-44〉 가구경제력에 따른 비판적 사고역량 차이분석 결과	83
〈표 IV-45〉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비판적 사고역량 차이분석 결과	84

〈표 IV-46〉 학교유형에 따른 비판적 사고역량 차이분석 결과	85
〈표 IV-47〉 학교급에 따른 비판적 사고역량 차이분석 결과	86
〈표 IV-48〉 변수의 기초통계분석	87
〈표 IV-49〉 진실추구성 역량의 분산분석	90
〈표 IV-50〉 진실추구성 역량의 학교분산에 대한 다층분석	90
〈표 IV-51〉 개방성 역량의 분산분석	91
〈표 IV-52〉 개방성 역량의 학교분산에 대한 다층분석	92
〈표 IV-53〉 탐구성 역량의 분산분석	93
〈표 IV-54〉 탐구성 역량의 학교분산에 대한 다층분석	93
〈표 IV-55〉 객관성역량의 분산분석	94
〈표 IV-56〉 객관성 역량의 학교분산에 대한 다층분석	95
〈표 IV-57〉 체계성역량의 분산분석	96
〈표 IV-58〉 체계성 역량의 학교분산에 대한 다층분석	97
〈표 IV-59〉 자기신뢰성 역량의 분산분석	98
〈표 IV-60〉 자기신뢰성 역량의 학교분산에 대한 다층분석	98
〈표 IV-6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	101
〈표 IV-62〉 학교에서의 활동에 대한 참여	103
〈표 IV-6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04
〈표 IV-64〉 학교에서의 영향력	105
〈표 IV-65〉 교사 및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	106
〈표 IV-66〉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에 대한 의견	107
〈표 IV-67〉 학교 변인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	108
〈표 IV-68〉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109
〈표 IV-69〉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	110
〈표 IV-70〉 민주 시민 역량(종합) 변수 기초통계분석	111
〈표 IV-71〉 성별에 따른 학교활동 참여의 차이분석	112

〈표 IV-72〉 성별에 따른 학급토론에의 개방성 인식의 차이분석	113
〈표 IV-73〉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 인식정도	115
〈표 IV-74〉 성별에 따른 학생-교사의 관계	116
〈표 IV-75〉 성별에 따른 학생참여에 대한 가치인식	117
〈표 IV-76〉 성별에 따른 학교교육에 관한 차이분석(t분석)	118
〈표 IV-77〉 성별에 따른 시민의식 역량인식 차이분석	119
〈표 IV-78〉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행동사항	121
〈표 IV-79〉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분석	123
〈표 IV-80〉 국적에 따른 학교활동 참여의 차이분석	124
〈표 IV-81〉 국적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26
〈표 IV-82〉 국적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 인식의 차이분석	129
〈표 IV-83〉 국적에 따른 학생-교사의 관계 차이분석	132
〈표 IV-84〉 국적에 따른 학생참여에 대한 가치인식	135
〈표 IV-85〉 국적에 따른 학교 교육에 관한 차이분석	136
〈표 IV-86〉 국적에 따른 시민의식 역량 차이분석	137
〈표 IV-87〉 국적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행동사항	141
〈표 IV-88〉 국적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분석	144
〈표 IV-89〉 변수의 기초통계분석	145
〈표 IV-90〉 민주시민 역량의 분산분석	147
〈표 IV-91〉 민주시민 역량의 학교분산에 대한 다층분석	148
〈표 IV-92〉 미래투표의지 역량의 분산분석	149
〈표 IV-93〉 민주시민 역량의 학교분산에 대한 다층분석	149
〈표 IV-94〉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	151
〈표 IV-95〉 학교 활동에의 참여정도	152
〈표 IV-9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53
〈표 IV-97〉 학교에서의 영향력 인식	154

〈표 IV-98〉 학생과 교사의 관계	155
〈표 IV-99〉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에 대한 의견	156
〈표 IV-100〉 학교 변인에 대한 기초통계	157
〈표 IV-101〉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158
〈표 IV-102〉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	159
〈표 IV-103〉 민주 시민 역량(종합) 변수 기초통계분석	160
〈표 IV-104〉 성별에 따른 학교활동 참여의 차이분석	161
〈표 IV-105〉 성별에 따른 학교토론에의 개방성 인식차이	162
〈표 IV-106〉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 차이분석	165
〈표 IV-107〉 성별에 따른 학생-교사의 관계	168
〈표 IV-108〉 성별에 따른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71
〈표 IV-109〉 성별에 따른 학교교육과 관련된 차이분석	172
〈표 IV-110〉 성별에 따른 시민의식 역량차이분석	173
〈표 IV-111〉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행동사항 차이분석 ...	177
〈표 IV-112〉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분석	180
〈표 IV-113〉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WVS)	183
〈표 IV-114〉 삶의 만족도 및 행복관련 변수	184
〈표 IV-115〉 부모 및 가족관계 관련 변수	185
〈표 IV-116〉 민주주의식 관련 변수	186
〈표 IV-117〉 적극적 사회참여 관련 변수	187
〈표 IV-118〉 정치관심 및 정치활동 관련 변수	187
〈표 IV-119〉 신뢰관련 변수	188
〈표 IV-120〉 성별에 따른 삶의 인식 관련 변수 차이분석	190
〈표 IV-121〉 성별에 따른 가족관계 변수 차이분석	190
〈표 IV-122〉 성별에 따른 일반 민주시민 의식 차이분석	191
〈표 IV-123〉 성별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의 차이분석	192

〈표 IV-124〉 성별에 따른 정치관심 및 정치활동 참여 차이분석	193
〈표 IV-125〉 성별에 따른 다양한 집단신뢰의 차이분석	194
〈표 IV-126〉 OECD여부에 따른 개인 삶의 인식 변수 차이분석	195
〈표 IV-127〉 OECD여부에 따른 가족관계 변수 차이분석	195
〈표 IV-128〉 OECD여부에 따른 민주시민 의식 차이분석	196
〈표 IV-129〉 OECD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의 차이분석	197
〈표 IV-130〉 OECD에 따른 정치관심 및 정치활동 참여 차이분석	198
〈표 IV-131〉 OECD에 따른 다양한 집단신뢰의 차이분석	198
〈표 IV-132〉 OECD 및 성별에 따른 삶의 인식 관련 변수 차이분석	200
〈표 IV-133〉 OECD 및 성별에 따른 가족관계 변수 차이분석	200
〈표 IV-134〉 OECD 및 성별에 따른 일반 민주시민 의식 차이분석	202
〈표 IV-135〉 OECD 및 성별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의 차이분석	203
〈표 IV-136〉 OECD 및 성별에 따른 정치관심 및 정치활동 참여 차이분석 ..	204
〈표 IV-137〉 OECD 및 성별에 따른 다양한 집단신뢰의 차이분석	205
〈표 IV-138〉 조사년도 및 성별에 따른 삶의 인식 관련 변수 차이분석	206
〈표 IV-139〉 조사년도 및 성별에 따른 가족관계 변수 차이분석	206
〈표 IV-140〉 조사년도 및 성별에 따른 일반 민주시민 의식 차이분석	208
〈표 IV-141〉 조사년도 및 성별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의 차이분석	209
〈표 IV-142〉 조사년도 및 성별에 따른 정치관심 및 정치활동 참여 차이분석	210
〈표 IV-143〉 조사년도 및 성별에 따른 다양한 집단신뢰의 차이분석	210
〈표 IV-144〉 조사년도 및 OECD여부에 따른 삶의 인식 관련 변수 차이분석	212
〈표 IV-145〉 조사년도 및 OECD여부에 따른 가족관계 변수 차이분석	212
〈표 IV-146〉 조사년도 및 OECD여부에 따른 일반 민주시민 의식 차이분석	214
〈표 IV-147〉 조사년도 및 OECD여부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의 차이분석	217
〈표 IV-148〉 조사년도 및 OECD여부에 따른 정치관심 및 정치활동 참여 차이분석	218

〈표 IV-149〉 조사년도 및 OECD여부에 따른 다양한 집단신뢰의 차이분석 ..	220
〈표 IV-150〉 조사년도에 따른 개인 삶의 인식 변수 차이분석	222
〈표 IV-151〉 조사년도에 따른 민주시민 의식 차이분석	224
〈표 IV-152〉 조사년도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의 차이분석	227
〈표 IV-153〉 조사년도에 따른 정치관심 및 정치활동 참여 차이분석	229
〈표 IV-154〉 조사년도에 따른 다양한 집단신뢰의 차이분석	230
〈표 IV-155〉 OECD여부에 따른 조사년도별 삶의 인식 관련 변수 차이분석	233
〈표 IV-156〉 OECD여부에 따른 조사년도별 일반 민주시민 의식 차이분석 ..	235
〈표 IV-157〉 OECD여부에 따른 조사년도별 사회활동 참여의 차이분석	237
〈표 IV-158〉 OECD여부에 따른 조사년도별 정치관심 및 정치활동 참여 차이분석	239
〈표 IV-159〉 OECD여부에 따른 조사년도별 다양한 집단신뢰의 차이분석	241

그림 목 차

【그림 Ⅰ-1】 연구의 단계별 추진 내용	5
【그림 Ⅱ-1】 IEA 시민교육 연구모형	12
【그림 Ⅲ-1】 연구추진체계	17
【그림 Ⅲ-2】 자료 분석 프레임워크	18
【그림 Ⅳ-1】 조사년도에 따른 세계청소년 삶에 대한 인식변화	223
【그림 Ⅳ-2】 조사년도에 따른 세계청소년 민주시민 의식변화	226
【그림 Ⅳ-3】 조사년도에 따른 세계청소년 사회활동 참여의 변화	228
【그림 Ⅳ-4】 조사년도에 따른 세계청소년 정치활동 참여의 변화	229
【그림 Ⅳ-5】 조사년도에 따른 세계청소년 기관신뢰 의식변화	231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1년 1월, 튀니지에서 장기독재정부를 밀어내며 시작된 아프리카 민주화 운동은 그로부터 한 달 뒤 30년간 지속되던 이집트의 무바라크 독재정부를 붕괴시키기에 이르렀다. 튀니지와 이집트 정부는 대중매체와 주요 통신수단을 통제함으로써 시민들의 조직화를 막아왔지만,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IT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고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공감, 정보공유, 그리고 시민들의 연대를 막을 수는 없었다. 2010년에는 한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불과한 ‘위키리크스’를 통해 각국 정부의 기밀로 유지되던 정보들이 흘러나옴으로써 국제적인 파문이 인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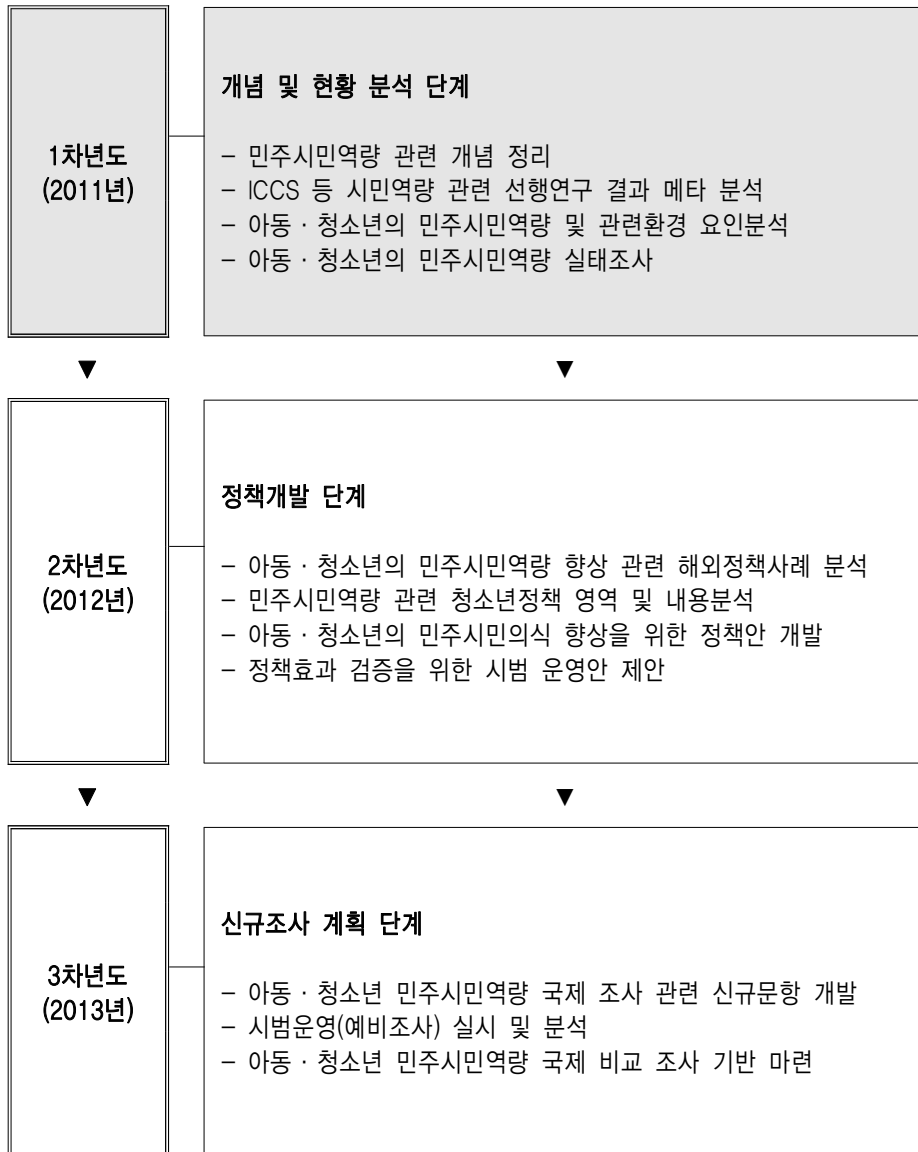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유명 연예인의 학력에 대한 논란이 결국 명예훼손 수사로까지 이어지고, ‘미네르바’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던 한 인터넷 이용자의 정부 외환정책 비판 글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제 2의 산업혁명으로 간주되었던 정보화 시대의 변화가 실제 산업혁명이 그러하였듯이 사회의 모든 부분에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보의 소유와 유통을 독점하던 기술적 장벽이 약화되고, SNS를 통해 분절된 개인들이 연결됨으로써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하고 적극적인 시민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권한을 요구하기도 하며 동시에 더 많은 책임도 요구받고 있다. 이들은 바로 한때 정치에 가장 무관심하고 사회적 참여에 소극적인 세대로 간주되던 10대~30대 젊은이들로, 신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의 주역으로 대두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양상은 보다 강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 한류와 IT 선진국으로서의 지위 확보, OECD 및 G20 가입과 UN사무총장 배출 등으로 국제적인 위상을 인정받으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동시에 국격에 맞는 역할 수행을 위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발현하고 사회·문화적인 역량을 증대하여 향상된 지위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에는 급속한 국제화에 다문화수용성의 개발, 양성평등의식 증진, 공동체성을 포함한 사회적 자본의 증대와 적극적인 사회참여

등이 포함될 것이다. 특히, 국제적 현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참여와 교류 증대 뿐 아니라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함께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IT기술의 발전과 정보통신망의 확대는 N세대 혹은 디지털 세대를 탄생시켰고 특히, 양방향 소통매체를 기반으로 소통과 참여의 욕구를 증가시켜왔다. 그러나, 사이버공간 이외에 아동·청소년이 이러한 욕구한 욕구를 표현하고 현실화할 기회는 많지 않다. 2008년 청소년들의 촛불집회 역시 이들의 표현과 참여 욕구가 적절한 분출구를 찾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아동·청소년의 소통과 참여의 욕구를 수용하고 이를 올바른 시민의식 습득과 실천으로 연결하는 제도와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계획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수준과 관련 변인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생태체계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민주시민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그 효과를 예측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3년 연속연구로 1차년인 2011년도에는 민주시민역량 관련 주요 개념에 대한 정리와 국제적 비교조사 결과의 메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차 년도에는 민주시민역량 관련 청소년 정책 영역 및 내용 분석과 다양한 해외 사례의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효과 검증을 위한 시범운영안을 제안하였다. 3차 년도에는 정책 대안의 시범운영 결과를 검토하고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국제 비교를 위한 측정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 수행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회(IEA)에서 실시하는 TIMSS 및 ICCS의 아시아지역 국가조사 문항(Asean Module) 및 국제조사문항(International Module)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림 I-1】 연구의 단계별 추진 내용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민주시민역량의 개념
2. 시민역량 관련 선행연구 분석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민주시민역량의 개념

이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민주시민역량 관련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리함으로 민주시민역량을 정의하고자하며 특히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자본(personal capital)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타인 혹은 사회제도, 사회적 네트워크, 시스템의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회학자인 콜먼(Coleman) 등은 개인과 사회의 긍정적 성장에 있어 개개인의 지적·정의적 능력 이외의 요소를 포함시키기 위해 사회적 자본이란 용어를 제안하였다.

콜먼은 사회적 자본의 기본 요소로 타인이나 시스템에 대한 신뢰(trust), 효과적인 규범(effective norms),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발적 조직(voluntary organization)을 제시하였다. 또한, 퍼트남(R. Putnam)은 개인과 개인 간의 협동을 위한 기반이 되는 요소를 사회적 자본으로 정의하고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정치적 평등(political equality), 단결(solidarity), 신뢰(trust), 관용(tolerance), 조직/결사(association) 등이 포함된다고 정의하였다(Putnam, 2000).¹⁾

이와 함께, 세계은행(World Bank)은 사회적 자본을 개발도상국의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간주하고 사회적 자본을 조성하고 강화하는 사업과 더불어 관련 지표와 방법론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였다. 1996년부터 시작된 SCI(Social Capital Initiatives)는 12개 연구 사업을 통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함께 사회적 자본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자본의 계량적 접근을 보완하기 위한 질적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OECD를

1)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경우 국가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측정 도구 개발 및 조사가 이루어져 왔으며(SCCBS, 2007; ONS, 2003; PRI, 2003), 사회적 자본의 객관적 비교를 위해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의 사회적 자본 모듈 및 국제비교지표를 활용하거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는 종단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Healy, 2002; Hudson, 2009).

비롯한 주요국의 관심은 부유한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빈곤에 대한 우려에서 사회적 자본에 관한 관심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사회통합이 이룩되었을 때 비로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이영현, 2006).

OECD(2005, 2006)는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통해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현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핵심역량으로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Use tools interactively), ‘자율적으로 행동하기’(Act autonomously), ‘이질적 집단과 상호작용하기’(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시민의식은 이질적 집단과의 상호작용역량의 한 부분으로서 민주주의 · 시민, 국가정체성 · 국제관계, 사회적 유대 · 다양성을 핵심영역으로 포함한다는 점에서(김기현 · 장근영 외, 2010) 이질적 집단과의 상호작용역량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였다.

표 II-1 사회적 자본 측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요소

사회적 자본 측정요소	세부 측정내용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관련 요소
시민참여 (civic participation)	지역사회에서의 참여활동 및 강도	●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장애요인	○
	정치참여활동(정치, 투표참여)	○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	○
	이웃에 대한 친밀감	○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생활에 대한 만족도	○
	정치결정에 대한 개인적 영향력	●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의식	●
지역 사회의 구조나 제도 수준 (structures or support)	지역의 삶에 대한 만족도	○
	지역 소음 등 환경문제	-
	지역의 공공서비스(교육, 교통 등)	-
	사회 · 경제적 불평등 정도	○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원체계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친구 · 친척 · 이웃과의 접촉의 질 · 양	●
	친구 · 친척 · 이웃과의 접촉장애요인	○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	●
신뢰, 사회적 응집성 (trust, social cohesion)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정보 수준	●
	한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	○
	공공 및 서비스 제도에 대한 신뢰	○
	타인에 대한 신뢰	○
	정치구조에 대한 신뢰	○
	가치의 공유에 대한 인식	●

주 : ○ 사회적 상호작용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 ● 사회적 상호작용역량을 측정하는 요소

출처 : 김태준 외, 2008: 24.

특히,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사회가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으며, 이는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이 소위 선진국에 비해 신뢰 수준이 낮다고 지적한 후쿠야마(Fukuyama, 2001) 등의 견해와 같은 맥락임을 감안할 때 한국사회가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역량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2. 시민역량 관련 선행연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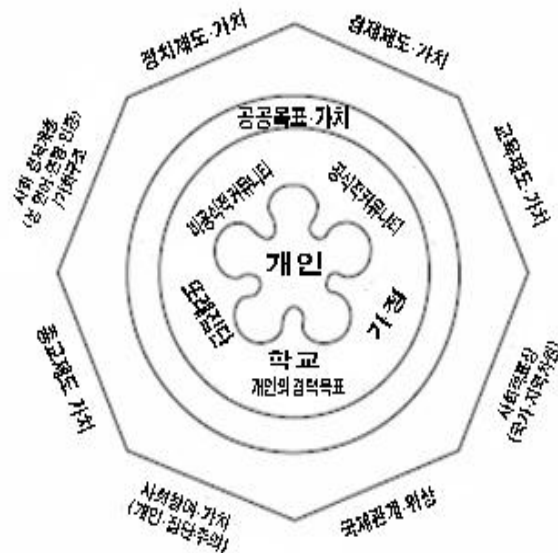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 주요국의 경우 국가수준에서 시민역량 증진 정책을 위한 실증적 자료 마련을 위하여 사회적 자본 측정도구 개발 및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SCCBS, 2007; ONS, 2003; PRI, 2003). 또한, 이들 국가들은 사회적 자본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의 사회적 자본 모듈 및 국제비교지표를 활용하거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는 종단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Healy, 2002; Hudson, 2009).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학업성취도에 관한 국제수준 비교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음에 비해 생애핵심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시민역량의 국제비교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를 위해 CIVED와 ICCS 연구의 틀과 평가도구의 핵심영역 및 내용영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1) CIVED(Civic Education Study)

IE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는 교육이 미래세대의 시민역량을 개발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시민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96년부터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해왔다. 그 첫 번째 국제비교연구가 CIVED(Civic Education Study)이며 2000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 시민의식을 민주주의/시민자질, 국가정체성/국제관계, 사회통합/다양성의 세 가지 공통 핵심영역으로 도출하고 지식, 기술, 개념, 태도, 행동 측정 문항을 개발하여 20여개 국가의 수준을 비교 분석한 바 있다.

CIVED는 생태체계학적 발달이론(Bronfenbrenner, 1988)과 상황인지이론(Lave and Wenger, 1991; Wenger, 1998)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은 자신을 중심으로 그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아동·청소년은 가족(부모,

형제, 확대 가족 등), 학교(교사, 교과과정, 참여 기회 등), 또래집단(학급 및 지역사회 내), 이웃(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사회(제도 및 정책, 교육, 종교, 정치 환경 등)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하위체계로 정의된다.



* 자료출처: Torney-purta et al., 2001

【그림 II-1】 IEA 시민교육 연구모형

CIVED의 분석결과는 교사 양성과 교과과정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²⁾ 특히, 시민의식 교육에 있어 교사의 역할은 청소년에게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래집단의 중요성과 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2) 1차년도 IEA CIVED는 두 단계로 나뉘어져 연구되어졌다. 1단계는 1999년 Torney-Purta, Schwille, Amadeo가 24개의 참여국의 사례연구를 상세하게 기술한 간행물을 출판하였고, 2단계에서는 두 개의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하나는 2001년에 Torney-Purta, Lehmann, Oswald, Schulz가 연구한 28개 참여국의 14세 학생에게서 얻은 결과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2002년 Amadeo, Torney-Purta, Lehmann, Hustfeldt, Nikolova에 의해 연구되어진 16세에서 18세 학생에 대한 16개국의 결과물이다.

2) ICCS(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EA는 1차 국제시민교육연구(CIVED)을 기반으로 발전된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ICCS(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를 진행 중이다. 현재 ICCS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38개국³⁾이 참여하고 있다. ICCS는 청소년이 미래 시민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공교육을 통해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한 시민교육의 이행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조사하고 국제수준에서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시민교육이란 정치, 제도, 인권, 다양성, 환경 등의 포괄적 주제에 대한 학교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해, 태도, 관점, 활동 등을 포함한다.

ICCS에서는 시민역량에 대한 측정을 크게 인지영역과 정의행동영역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아는 것(knowing)과 추론·분석력(reasoning and analysing)을, 후자는 가치신념(value belief), 태도(attitudes),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s), 행동(behaviors)을 측정하며 측정 영역은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공동체 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 등이다. 이 연구에는 우리나라도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ICCS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실시한 대규모 국제수준의 조사 결과의 분석과 실태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3) WVS(World Values Survey)

세계가치관조사(WVS)는 세계인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그러한 가치관이 사회와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는 연구이다. 1981년 이후, 유럽가치관조사(EVS)와 함께 세계 인구의 90% 정도를 대표할 수 있는 97개국에 걸쳐 조사 결과를 축적해 왔다. 1차 조사는 1981년~1984년에 20개국의 2만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시작되었으며, 마지막 조사는 2005~2008년 54개국의 7만 7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서 측정도구는 259개의 질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문항은 미시적 수준에서 거시적 수준에 이르는 '신뢰' 관련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미시적 수준의 신뢰 : 가족, 친구, 이웃에 대한 신뢰

3)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벨기에,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 중간적 수준의 신뢰 : 지역사회, 단체 및 기구에 대한 신뢰
- 거시적 수준의 신뢰 :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국가에 대한 신뢰, 국제단체에 대한 신뢰

이러한 세계가치관 조사는 국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사회적 자본의 비교가 가능하지만, 각 나라별 표본 크기, 질문 영역이 제한적인 점과 ‘신뢰’ 등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

제 3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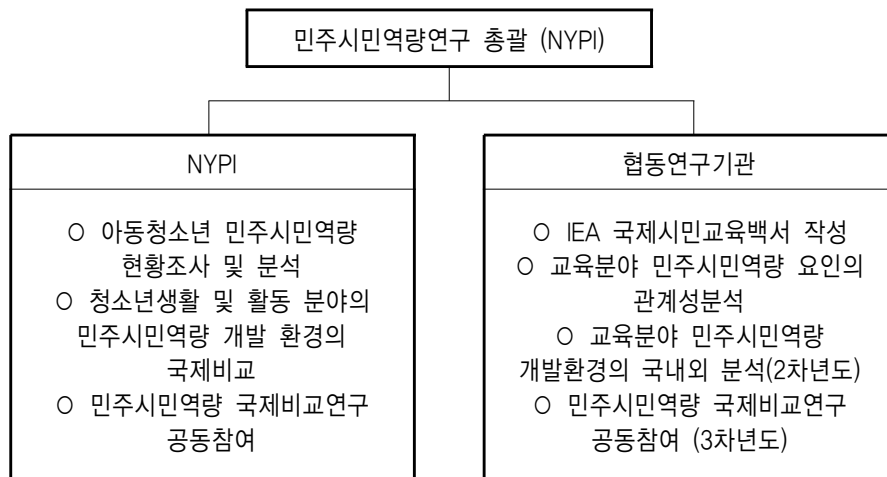
연구방법

1. 연구추진체계
2. 자료분석

제 3 장 연구방법

1.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는 다음 【그림 Ⅲ-1】 과 같은 연구추진체계에 의해 진행하였다.



【그림 Ⅲ-1】 연구추진체계

NYPI는 전체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연구 추진을 총괄하며, 이와 함께 민주시민역량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우리나라의 민주시민역량 관련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현황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CIVED에서 전제한 생태학적 발달모형 【그림 Ⅱ-1】 을 사용하여 민주시민역량의 발달에 필요한 환경을 분석하고,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취약점과 강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주요 목적을 둔다.

협동연구기관은 IEA에 제출하기 위한 ‘세계시민교육백서’ 의 한국 보고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고,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교육 환경 분석 및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또한 NYPI와 한국교육개발

원은 국제자료 비교분석결과의 공개와 논의를 위한 국제 학술회의에 공동참가하고 차기 IEA의 국제비교연구에도 한국 공동대표로 참여할 예정이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료선정과 분석 프레임워크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는 자료 출처에 따라 크게 국내 자료와 국외 자료로 분류할 수 있고, 자료표집 연도에 따라서는 횡단 자료와 종단 자료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국내 자료이면서 횡단 자료는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2009, 2010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외 자료이면서 횡단 자료는 ICCS 2009자료를, 국외 자료이면서 종단 자료는 WVS자료를 활용하였다. 아울러 민주시민역량 관련 문헌연구 검토에서는 민주시민역량 관련 개념 정의를 위한 국내·외 자료 수집과 내용 분석(사회적 자본, 시민성, 시민의식, 핵심역량 중 이질적 집단과의 상호작용, 비판적 사고역량 등),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실태 조사를 위한 시민역량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출처 \ 연도	횡단 자료	종단 자료
국내자료	①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2009/2010)	—
국외자료	② ICCS (2009)	③ WVS(3차, 5차년도 자료)
	↑	↑
시민역량 관련 문헌 연구		

【그림 Ⅲ-2】 자료 분석 프레임워크

1) 시민역량 관련 문헌연구 검토

시민역량(civic competencies)은 시민성(citizenship),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 시민의식(civic knowledge), 다문화 포용성(cultural diversity), 양성 평등, 인권 등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시민역량을 실용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회적 자본, 교육적 측면에서 시민의식, 그리고 시민사회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책임에 관련한 시민성, 시민공동체(civic) 등의 개념은 서로 다른 맥락과 배경에서 사용되지만 혼용되기도 하는 주요 개념들이다. 따라서 이들 개념과의 관련성을 정리하는 것은 이 연구의 방향과 내용을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 해당한다. 문헌자료 분석결과는 이론적 배경에 종합적으로 작성한다.

2) 국내 · 횡단 :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2009, 2010년)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는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각 2,000명을 비례층화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조사 내용은 지적 도구 활용,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사고력, 배경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 조사내용 중, 민주시민역량과 관련된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의 세 가지 하위 구성 항목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의 하위 영역인 관계지향성 영역, 사회적 협력 영역, 갈등관리 영역 등 각각의 세부 항목을 구성하였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 민주시민역량 관련 주요 개념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시민참여 현황, 시민참여 요구, 신뢰, 관용, 양성평등의식 등 민주시민역량 실태 파악
- 민주시민역량 관련 환경 요소로서 학교/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시민참여 경험, 시민참여에 대한 가족/학교/교사의 수용 및 태도, 민주시민의식 및 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 등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개발에 필요한 환경 요소의 실태 파악
- 시민참여 영역별 아동·청소년의 참여욕구와 참여 실태의 편차 분석을 통한 정책 개입이 필요한 영역 제안 및 시민의식 교육환경에서 취약하고 우선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 도출

또한, 2010년 조사된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의 경우, 2009년도 자료의 심층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핵심역량과 민주시민 역량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중심으로 설문이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능력의 하위 6개 변수(진실추구성, 개방성, 탐구성, 객관성, 체계성, 자기신뢰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였다.

표 III -1 청소년 역량의 구분

범주			구성요소	
2009년	핵심 역량	자율적 행동역량	· 거시적 맥락 · 권익요구	· 목표수립 실천 · 패턴이해
		관계지향성영역	· 적극적 경청 · 공공에 대한 신뢰	· 주변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사회적 협력영역	· 소속감	· 만족감
		갈등관리 영역	· 문제인식해결 ·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	· 이민자에 대한 태도 · 다수정당존재이유
	민주시민의식 역량		· 정치관심 · 권리책임	· 종교이해 · 민주적절차
2010년	비판적사고 성향 역량		· 진실추구성 · 탐구성 · 객관성	· 개방성 · 체계성 · 자기신뢰성

3) 국외 · 횡단 : ICCS(2009) 국제비교조사 자료분석

아동 · 청소년의 민주적 시민의식과 교육환경 실태에 대한 국제비교조사의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2009년 IEA에서 실시하고 우리 연구원이 공동 참여한 ICCS 2차 조사결과를 기초로 민주시민의식과 교육환경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조사에 참여한 국제학생들과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시민의식 교육 환경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였다.

- 대상 : 2008년 조사 시점 기준 중학교 3학년 재학생
- 활용설문지 : International student
- 조사 대상자 수

	대한민국	국제학생(한국학생 포함)
학생 수	5,254명	140,650명

표 III-2 ICCS 변수 설정

구분		세부 변수
개인 변수	개인변수	성별, 기대교육수준, 사용언어(모국어, 비모국어)
	가족배경변수	부모학력(교육년도), 부모의 정치사회 관심정도
설명변수		학교 내 다양한 활동참여도/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학교에서의 영향력/교사-학생과의 관계/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인식
종속변수		시민점수 추정치(1~5)/미래투표의도

위의 설명변수들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III-3 ICCS 분석방법

기초분석	빈도분석, 기초통계분석(평균, 표준편차 등) 집단비교(교차분석, t 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영향요인 분석	HLM 2층 선형모형

표 III-4 ICCS 세부 변수 설정

변수	문항번호	문항내용
독립 변수	개인 변수	1-3 성별/기대교육수준
	가족 변수	4-11 부모 학력/모의 정치적 이슈 관심도
	학교 활동 관련 변수	15 학교에서의 활동(6개 항목) : 음악 및 드라마 활동, 토론참여, 반장/ 학생회 참여/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학생회 토론, 반장 및 학생회 임원 출마
		16 수업시간에 정치적 사회적 이슈토론 시 다음 일들에 대한 의견(7개 항목):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격려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습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difms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토론권장/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준다.
		17 의견 반영정도(7개 항목) : 교수법(선생님의 수업방식 및 수업방법)/수업내용 / 교과서 및 학습자료/수업시간표/학습수칙/학교규칙/방과 후 활동

종속 변수		18	다음 사항에 대한 동의 정도(7개 항목)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를 공정하게 대해주신다/학생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잘 지낸다/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 복지에 관심을 갖는다. / 나는 우리학교의 아웃사이더인 것 같다/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경청해 주신다/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들은 내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다른 학생들이 나를 때릴까 봐 두렵다
		종합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 참여/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학교에서의 영향력/ 학생_교사의 관계/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민주 시민 역량	20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12항목)모든 사람은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국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 등
		21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의 중요성(12개 항목) 모든 선거 활동 참여, 정당참여, 역사학습~~항상 법을 준수하기 등
		종합	민주시민 역량(5개 영역)
			미래투표의도 여부

4) 국외 · 종단: WVS 자료 분석

1980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5회에 걸쳐서 54개국의 7만 7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WVS조사는 조사의 양과 규모가 매우 방대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 중 청소년에 해당하는 조사 당시 17세~18세만을 연구대상을 선별하였다. 또한 조사 당시, 측정한 259개의 질문 문항 중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미시적 수준, 거시적 수준 신뢰 문항을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을 중심으로 OECD와 Non_OECD나라를 비교하였으며⁴⁾, 조사 시기별(3차, 5차)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변수는 개인 및 가족관계 변수, 행복관련 변수, 민주시민 역량관련 변수, 정치관심 및 사회 참여, 그리고 신뢰수준을 확인하였다. 특히, 신뢰문항은 미시적으로는 가족, 친구, 이웃에 대한 신뢰수준에서 지역사회, 단체 및 기구를 넘어 거시적으로는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국가에 대한 신뢰, 국제단체에 대한 신뢰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신뢰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국가별 OECD의 구분은 5차년도에만 조사를 실시하여 3차년도 자료와 비교가 불가능한 관계로, 분석당시(2011년)를 기준으로 OECD에 가입된 나라와 가입되지 않은 나라를 기준으로 변수를 선정하였다.

표 III-5 WVS 변수 설정

구분		세부 변수
개인 변수	개인변수	성별(남, 녀)/ OECD, Non_OECD/ 3차, 5차
	가족배경변수	부모존경정도, 가족 신뢰 정도
설명변수		건강정도, 행복감, 삶의 만족도,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
종속변수		사람신뢰,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 정도, 사회 참여도,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정치적 행동 등

위의 설명변수들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III-6 WVS 세부 변수 설정

독립변수		종속변수		
개인 변수	성별(남, 녀)	종속 변수	사람신뢰	대부분의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등
	건강정도		사회참여	사회참여에 대한 적극성 (종교나 교회단체/스포츠, 레크리에이션/예술, 음악 혹은 교육 문화적 활동/노동단체/정당/환경보호 단체/전문가 단체/인권 혹은 자선단체)
	행복감			
	삶의 만족도		양성평등	일자리가 귀할 때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부여해야 한다. 일자리가 귀할 때는 자국민이 외국인보다 먼저 고용되어야 한다.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대학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중요하다.
	선택의 자유정도			
가족 관계 변수	부모 존경 정도	종속 변수	정치관심 및 정치적 행동	정치에 대한 관심도(전체) 정치적 행동 : 탄원 및 진정서 서명 정치적 행동 : 보이콧에 참여 정치적 행동 : 법적, 평화적 시위에 참여 정치적 행동 : 파업에 참여
	가족에 대한 신뢰정도		기관신뢰	기관에 대한 신뢰정도(교회/군대/언론기관/노동연합/경찰/의회/행정부/텔레비전/정부/정당/대기업/환경운동단체/여성운동단체/사법제도/EU/UN)
OEDE여부(OECD/ Non_OECD)				
조사년도(WVS 3차년도/ 5차년도)				

제 4 장

연구결과

1. 청소년 핵심, 민주시민, 비판적 사고 역량조사 분석결과
2. ICCS 조사 분석결과
3. WVS 조사 분석결과

제 4 장 연구결과

1.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분석(청소년 핵심역량[2009년])

한국 청소년들의 핵심역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9년에 실시한 “청소년기 핵심역량 진단조사” 설문 중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는 총 9,150명이었다.

(1) 기초 분석

①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남학생이 52.4%(4,792명), 여학생이 47.6%(4,358명)로, 조사당시(2009년) 초등학생 30.4%, 중학생 30.3%, 고등학생이 39.4% 이었다. 이들의 가족관계 변수를 살펴보면, 아버지 학력은 전체 중 50.9%에 해당하는 4341명이 대학졸업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고졸이 그 뒤를 이어 43.4%를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전체의 53.1%, 대졸(40.8%)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아버지는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96.2%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66.0% 만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경제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누어 확인한 결과, “중간”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1.8%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가구경제력이 “상” 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0.8%, “하” 라는 응답이 17.4%를 나타냈다.

표 IV-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N	
성별	남자	4792	52.4
	여자	4358	47.6
	합계	9150	100
초중고집단	초등학생	2781	30.4
	중학생	2770	30.3
	고등학생	3599	39.3
	합계	9150	100
권역	서울	1521	16.6
	광역시	2838	31.0
	시·군	4791	52.4
	합계	9150	100
부학력	고등이하	486	5.7
	고졸	3696	43.4
	대학이상	4341	50.9
	합계	8523	100
모학력	고등이하	523	6.2
	고졸	4491	53.1
	대학이상	3451	40.8
	합계	8465	100
아버지 직업유무	없음	336	3.8
	있음	8611	96.2
	합계	8947	100
어머니 직업유무	없음	3039	34.0
	있음	5889	66.0
	합계	8928	100
경제수준	하	1564	17.4
	중	4658	51.8
	상	2764	30.8
	합계	8986	100

② 학교생활 관련 변수

응답자들의 학교생활 관련 변수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학교생활 경험”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체의 34.9%가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을 보였는데, 이들의 구체적인 학교생활의 특징을 알아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V-2 학교생활 전반적인 만족도(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N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스럽다	648	7.1
	불만족스럽다	1501	16.5
	보통이다	3787	41.5
	만족스럽다	2322	25.5
	매우 만족스럽다	861	9.4
	합계	9119	100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수업시간이 재미있다”에 28.1%, “우리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 16.1%,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등의 질문에 21.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싶다”에 18.9%,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에 24.1%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20% 내외의 학생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IV-3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N	%
수업시간이 재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860	9.4
	그렇지 않다	1495	16.4
	보통이다	4215	46.1
	그렇다	1941	21.2
	매우 그렇다	627	6.9
	합계	9138	100

우리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448	15.9
	그렇지 않다	2238	24.5
	보통이다	3970	43.5
	그렇다	1155	12.7
	매우 그렇다	311	3.4
	합계	9122	100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싶다.	전혀 그렇지 않다	2778	30.4
	그렇지 않다	2095	23.0
	보통이다	2525	27.7
	그렇다	1040	11.4
	매우 그렇다	687	7.5
	합계	9125	100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26	13.5
	그렇지 않다	2075	22.8
	보통이다	3834	42.1
	그렇다	1403	15.4
	매우 그렇다	577	6.3
	합계	9115	100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1660	18.2
	그렇지 않다	1803	19.8
	보통이다	3458	38.0
	그렇다	1445	15.9
	매우 그렇다	745	8.2
	합계	9111	100

나. 학교생활 경험

이들의 학교생활 경험을 살펴보면, 90% 이상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휴학”, “무단결석” 혹은 “징계를 받아 본 경험”은 없었으나, “지각 경험”은 과반 수 이상의 학생들이 한번 이상씩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학교생활 경험

		N	%
휴학 경험	없었다	8564	93.9
	한두번	421	4.6
	서너번	82	0.9
	다섯번 이상	51	0.6
	합계	9118	100

지각 경험	없었다	4542	49.7
	한두번	2668	29.2
	서너번	797	8.7
	다섯번 이상	1128	12.3
	합계	9135	100
무단결석 경험	없었다	8293	90.9
	한두번	575	6.3
	서너번	121	1.3
	다섯번 이상	134	1.5
	합계	9123	100
(교내·외) 사회봉사 혹은 등교정지 등의 징계	없었다	8445	92.9
	한두번	503	5.5
	서너번	83	0.9
	다섯번 이상	62	0.7
	합계	9093	100

다. 핵심역량 관련 변수

설문에서 사용된 청소년들의 역량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크게 자율적 행동역량, 관계지향성 역량, 사회적 협력(협동) 관련 역량, 갈등관리 역량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 자율적 행동관련 역량

자율적 행동 역량의 경우, 사회 현상을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는 정도를 확인하는 “거시 맥락” 역량을 비롯하여 “목표수립”, “권익요구”, “패턴이해” 등 네 가지 행동 역량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기초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IV-5 자율적 행동 역량변수 기초분석결과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거시맥락	9150	1	9	3.16	0.65
목표수립	9150	1	9	3.26	0.74
권익요구	9150	1	9	3.60	0.74
패턴이해	9150	0	1	0.62	0.30

(나) 관계지향성 역량

관계지향성 관련 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경험관련 변수 7개를 평균한 “적극적 경청”, “부모와 접촉의 질과 양”,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기초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IV-6 관계지향성 역량변수 기초분석결과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적극적 경청	9060	1	5	3.48	0.60
부모와 접촉의 질과 양	8974	1	5	2.32	0.81
공공에 대한 신뢰	5634	0	10	3.74	1.87

(다) 사회적 협력(협동) 관련 역량

사회적 협력(협동)관련 변수의 경우, “소속감” 을 살펴볼 수 있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학교생활 경험, “만족도” 를 살펴볼 수 있는 현재 삶의 만족도 변수를 활용하였다.

표 IV-7 사회적 협력 역량변수 기초분석결과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소속감(1)학교생활만족도	9053	1	5	2.79	0.53
소속감(2)학교생활경험	9074	1	4	1.29	0.37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	8354	0	10	6.64	2.12

(라) 갈등관리 역량

마지막으로 갈등관리 역량변수는 문제인식 및 해결, 이민자에 대한 태도, 다양한 정당의 존재이유를 변수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문제인식 및 해결” 은 이와 관련된 3개 문항(문제해결의 방해요소를 생각해 본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한다, 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생각한다)을 평균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이민자에 대한 태도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변수는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외국인들을 얼마나 허용해야 하는지” 에(4점 척도) 대한 평균으로, 두 번째 변수는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경제, 문화수준 등 살기 좋은 나라 만드는 것에 이바지 하는지” 로(10점 척도) 세부 질문을 평균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표 IV-8 갈등관리 역량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문제인식해결	9109	1	5	3.39	0.71
이민자에 대한 태도(1)	7811	1	4	2.95	0.59
이민자에 대한 태도(2)	3703	0	10	5.50	1.90

(2) 개인특성에 따른 청소년 핵심역량 차이분석

① 성별에 따른 청소년 핵심역량 차이분석

성별에 따른 청소년 행동역량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의 경우 “갈등관리 역량” 과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를 제외한 “자율적 행동역량” 및 “관계지향성 역량” 대부분에서 남학생보다 역량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성별에 따른 청소년 핵심역량 차이분석

			N	평균	표준편차	t
자율적 행동 역량	거시맥락	남자	4792	3.14	0.68	-4.342***
		여자	4358	3.20	0.62	
	목표수립	남자	4792	3.23	0.74	-3.996***
		여자	4358	3.30	0.73	
	권익요구	남자	4792	3.56	0.77	-5.412***
		여자	4358	3.64	0.69	
	패턴이해	남자	4792	0.61	0.30	-6.546***
		여자	4358	0.65	0.29	
관계 지향성 역량	적극적 경청	남자	4736	3.38	0.61	-16.840***
		여자	4324	3.59	0.57	
	주변사람(부모)과의 접촉의 질과 양	남자	4694	2.21	0.75	-13.690***
		여자	4280	2.44	0.85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남자	2978	3.84	1.96	4.515***
		여자	2656	3.62	1.75	

			N	평균	표준 편차	t
사회적 협력 역량	소속감(1) 학교생활만족도	남자	4734	2.75	0.53	- 6.579***
		여자	4319	2.83	0.52	
	소속감(2) 학교생활경험	남자	4745	1.31	0.40	6.160***
		여자	4329	1.26	0.35	
	만족감	남자	4325	6.67	2.15	1.418
		여자	4029	6.60	2.08	
갈등 관리 역량	문제인식해결	남자	4764	3.38	0.73	-1.516
		여자	4345	3.40	0.68	
	이민자태도1	남자	4017	2.93	0.63	- 2.980*
		여자	3794	2.97	0.54	
	이민자태도2	남자	2033	5.53	2.02	0.961
		여자	1670	5.46	1.75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자율적 행동역량의 경우, 여학생은 거시맥락, 목표수립, 권익요구, 패턴이해 등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에 비하여 역량이 높았으며, 관계지향 역량 중 적극적 경청정도, 부모와의 접촉의 양과 질은 여학생이, 각종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남학생의 역량이 다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협력정도를 살펴보는 학교생활 만족도는 여학생이 높았고, 학교생활 경험은 대부분이 휴학, 지각, 무단결석 등 부정적인 경험이었는데, 이러한 경험은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여학생의 학교생활이 보다 원활한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반면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에서는 성별에 따른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갈등관리 역량은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서만 여학생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들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포용력” 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거주 지역에 따른 청소년 핵심역량 차이분석

다음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아동·청소년 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핵심 역량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서울거주 학생의 경우, 자율적 행동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광역시와 시·군 학생 순으로 역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관계지향성 역량 중 경청과, 부모와

접촉의 양과 질에서 역시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서울거주 학생의 경우 두 영역의 역량이 가장 높은 반면, 광역시와 시·군 여부에 따라서는 특별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 거주학생들의 경우, 학교생활 만족도와 다양한 가치의 수용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 거주 학생들에 비하여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표 IV-10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 핵심역량 차이분석

			N	평균	표준 편차	F
자율적 행동 역량	거시맥락	서울	1521	3.22	0.67	10.228***
		광역시	2838	3.18	0.65	
		시·군	4791	3.14	0.65	
		합계	9150	3.16	0.65	
	목표수립	서울	1521	3.33	0.77	7.870***
		광역시	2838	3.27	0.70	
		시·군	4791	3.24	0.74	
		합계	9150	3.26	0.74	
	권익요구	서울	1521	3.66	0.76	9.726***
		광역시	2838	3.60	0.68	
		시·군	4791	3.57	0.76	
		합계	9150	3.60	0.74	
	패턴이해	서울	1521	0.64	0.29	5.553**
		광역시	2838	0.63	0.29	
		시·군	4791	0.61	0.30	
		합계	9150	0.62	0.30	
관계 지향성 역량	적극적 경청	서울	1500	3.53	0.62	5.666**
		광역시	2818	3.48	0.58	
		시·군	4742	3.47	0.60	
		합계	9060	3.48	0.60	
	주변사람 (부모)과의 접촉의 질과 양	서울	1492	2.41	0.84	11.681***
		광역시	2796	2.29	0.81	
		시·군	4686	2.31	0.80	
		합계	8974	2.32	0.81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서울	944	3.82	1.82	1.589
		광역시	1844	3.69	1.94	
		시·군	2846	3.74	1.83	
		합계	5634	3.74	1.87	

			N	평균	표준 편차	F
사회적 협력 역량	학교생활 만족도	서울	1497	2.83	0.52	9.753***
		광역시	2808	2.76	0.53	
		시·군	4748	2.79	0.53	
		합계	9053	2.79	0.53	
	학교생활 경험	서울	1505	1.30	0.39	4.229*
		광역시	2817	1.29	0.38	
		시·군	4752	1.27	0.36	
		합계	9074	1.29	0.37	
	만족감	서울	1395	6.65	2.11	0.046
		광역시	2605	6.64	2.08	
		시·군	4354	6.63	2.14	
		합계	8354	6.64	2.12	
갈등 관리 역량	문제인식 해결	서울	1515	3.44	0.70	5.565*
		광역시	2823	3.40	0.70	
		시·군	4771	3.37	0.71	
		합계	9109	3.39	0.71	
	이민자 태도	서울	1332	2.96	0.60	2.203
		광역시	2401	2.96	0.58	
		시·군	4078	2.93	0.60	
		합계	7811	2.95	0.59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	서울	643	5.73	1.84	6.126**
		광역시	1206	5.43	1.87	
		시·군	1854	5.46	1.94	
		합계	3703	5.50	1.90	

③ 가족특성에 따른 청소년 핵심역량 차이분석

가족특성에 따른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핵심역량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아버지학력, 어머니학력 및 가구경제력을 독립변수로 청소년의 핵심역량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아버지학력에 따른 청소년 핵심역량 차이분석

먼저 아동·청소년의 핵심역량은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패턴이해 및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대부분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핵심역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율적 행동역량 결과를 살펴보면, 거시맥락, 목표수립, 권익요구 역량에서 아버지학력이 대졸이상일 경우 가장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고졸, 고등학력 이하로 갈수록 자녀의

역량도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역량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아버지 학력에 따른 청소년 핵심역량 차이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
자율적 행동 역량	거시맥락	고등이하	486	3.03	0.69	72.069***
		고졸	3696	3.10	0.60	
		대학이상	4341	3.26	0.66	
		합계	8523	3.18	0.64	
	목표수립	고등이하	486	3.12	0.67	59.063***
		고졸	3696	3.20	0.72	
		대학이상	4341	3.36	0.73	
		합계	8523	3.28	0.73	
	권익요구	고등이하	486	3.45	0.65	43.747***
		고졸	3696	3.55	0.74	
		대학이상	4341	3.67	0.72	
		합계	8523	3.61	0.73	
	패턴이해	고등이하	486	0.63	0.30	0.848
		고졸	3696	0.63	0.29	
		대학이상	4341	0.64	0.29	
		합계	8523	0.64	0.29	
관계 지향성 역량	적극적 경청	고등이하	478	3.45	0.65	22.978***
		고졸	3670	3.45	0.58	
		대학이상	4298	3.54	0.60	
		합계	8446	3.50	0.60	
	주변사람 (부모) 과의 접촉의 질과 양	고등이하	479	2.11	0.76	78.001***
		고졸	3627	2.23	0.78	
		대학이상	4273	2.43	0.83	
		합계	8379	2.32	0.81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고등이하	337	3.60	1.85	5.434**
		고졸	2493	3.67	1.86	
		대학이상	2577	3.82	1.87	
		합계	5407	3.74	1.86	

			N	평균	표준편차	F
사회적 협력 역량	학교생활 만족도	고등이하	485	2.64	0.48	72.778***
		고졸	3660	2.72	0.51	
		대학이상	4293	2.85	0.54	
		합계	8438	2.78	0.53	
	학교생활 경험	고등이하	481	1.35	0.45	10.610***
		고졸	3677	1.29	0.38	
		대학이상	4304	1.27	0.36	
		합계	8462	1.28	0.37	
	만족감	고등이하	424	6.20	2.15	27.204***
		고졸	3342	6.49	2.10	
		대학이상	4051	6.78	2.11	
		합계	7817	6.63	2.11	
갈등 관리 역량	문제인식 해결	고등이하	484	3.30	0.72	27.824***
		고졸	3678	3.35	0.69	
		대학이상	4323	3.46	0.71	
		합계	8485	3.40	0.70	
	이민자태도	고등이하	402	2.92	0.57	2.333
		고졸	3151	2.94	0.58	
		대학이상	3803	2.96	0.60	
		합계	7356	2.95	0.59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	고등이하	199	4.99	1.94	15.304***
		고졸	1580	5.38	1.90	
		대학이상	1779	5.64	1.88	
		합계	3558	5.49	1.90	

나. 어머니학력에 따른 청소년 핵심역량 차이분석

어머니학력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핵심역량 차이분석 결과 역시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핵심역량 차이 분석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즉, 대부분의 영역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핵심역량도 높았는데, 특히, 관계지향성 역량 중 “주변사람(부모)과의 접촉의 질과 양”, 사회적 협력영역의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감” 갈등관리 영역의 “문제인식 해결” 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이상인 경우, 모 학력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보다 월등히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표 IV-12 어머니 학력에 따른 청소년 핵심역량 차이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
자율적 행동 역량	거시맥락	고등이하	523	3.06	0.62	47.515***
		고졸	4491	3.13	0.60	
		대학이상	3451	3.26	0.69	
		합계	8465	3.18	0.64	
	목표수립	고등이하	523	3.16	0.67	46.419***
		고졸	4491	3.22	0.72	
		대학이상	3451	3.37	0.74	
		합계	8465	3.28	0.73	
	권익요구	고등이하	523	3.47	0.67	31.467***
		고졸	4491	3.57	0.73	
		대학이상	3451	3.68	0.73	
		합계	8465	3.61	0.73	
	패턴이해	고등이하	523	0.65	0.29	7.308**
		고졸	4491	0.65	0.29	
		대학이상	3451	0.62	0.30	
		합계	8465	0.64	0.29	
관계 지향성 역량	적극적 경험	고등이하	516	3.48	0.63	10.063***
		고졸	4456	3.47	0.59	
		대학이상	3413	3.53	0.61	
		합계	8385	3.50	0.60	

			N	평균	표준편차	F
	주변사람(부모) 과의 접촉의 질과 양	고등이하	517	2.15	0.74	73.100***
		고졸	4415	2.25	0.79	
		대학이상	3391	2.45	0.83	
		합계	8323	2.33	0.81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고등이하	384	3.63	1.82	7.214**
		고졸	3100	3.66	1.85	
		대학이상	1905	3.86	1.90	
		합계	5389	3.73	1.87	
사회적 협력 역량	학교생활 만족도	고등이하	520	2.66	0.49	116.435***
		고졸	4443	2.72	0.51	
		대학이상	3414	2.88	0.54	
		합계	8377	2.78	0.53	
	학교생활 경험	고등이하	519	1.32	0.44	4.571*
		고졸	4459	1.28	0.37	
		대학이상	3426	1.27	0.36	
		합계	8404	1.28	0.37	
	만족감	고등이하	464	6.21	2.07	35.750***
		고졸	4101	6.50	2.07	
		대학이상	3208	6.86	2.14	
		합계	7773	6.63	2.11	
갈등 관리 역량	문제인식 해결	고등이하	520	3.27	0.72	32.930***
		고졸	4473	3.36	0.68	
		대학이상	3432	3.47	0.71	
		합계	8425	3.40	0.70	
	이민자 태도	고등이하	439	2.95	0.56	1.442
		고졸	3856	2.94	0.59	
		대학이상	3000	2.96	0.60	
		합계	7295	2.95	0.59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	고등이하	231	5.18	1.90	12.538***
		고졸	2000	5.41	1.86	
		대학이상	1315	5.69	1.96	
		합계	3546	5.50	1.91	

다. 가구경제력에 따른 청소년 핵심역량 차이분석

가구경제력 역시 청소년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가구 경제력이 높은 집단은 자율적 행동 역량 중 거시맥락, 목표수립, 권익요구가 높았으며, 관계지향성의 부모와의 접촉의 양과 질, 사회적 협력의 학교소속감 및 현재생활 만족도가 월등히 높았다. 또한, 이들은 갈등관리 영역의 문제인식 역량 역시 다른 집단에 비해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3 가구 경제력에 따른 청소년 행동역량 차이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
자율적 행동 역량	거시맥락	하	1564	3.08	0.64	103.927***
		중	4658	3.11	0.61	
		상	2764	3.31	0.69	
		합계	8986	3.17	0.65	
	목표수립	하	1564	3.17	0.75	121.122***
		중	4658	3.19	0.69	
		상	2764	3.44	0.77	
		합계	8986	3.26	0.74	
	권익요구	하	1564	3.53	0.73	84.657***
		중	4658	3.53	0.70	
		상	2764	3.75	0.77	
		합계	8986	3.60	0.73	
	패턴이해	하	1564	0.68	0.28	29.533***
		중	4658	0.62	0.30	
		상	2764	0.61	0.29	
		합계	8986	0.63	0.30	
관계 지향성 역량	적극적 경청	하	1551	3.46	0.60	38.330***
		중	4622	3.44	0.59	
		상	2725	3.57	0.61	
		합계	8898	3.48	0.60	
	주변사람(부모) 과의 접촉의 질과 양	하	1540	2.06	0.76	205.419***
		중	4585	2.27	0.78	
		상	2694	2.55	0.84	
		합계	8819	2.32	0.81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하	1162	3.43	1.82	27.735***
		중	2934	3.73	1.84	
		상	1478	3.97	1.91	
		합계	5574	3.73	1.86	
사회적 협력 역량	학교생활 만족도	하	1554	2.64	0.51	153.406***
		중	4609	2.76	0.50	
		상	2732	2.92	0.56	
		합계	8895	2.79	0.53	

			N	평균	표준편차	F
	학교생활 경험	하	1548	1.34	0.42	25.350***
		중	4625	1.28	0.36	
		상	2737	1.26	0.35	
		합계	8910	1.28	0.37	
	만족감	하	1421	5.78	2.17	239.063***
		중	4211	6.55	2.02	
		상	2582	7.24	2.05	
		합계	8214	6.64	2.11	
갈등 관리 역량	문제인식 해결	하	1558	3.35	0.72	45.412***
		중	4636	3.34	0.68	
		상	2751	3.50	0.72	
		합계	8945	3.39	0.70	
	이민자 태도	하	1341	2.96	0.57	0.683
		중	3934	2.94	0.59	
		상	2403	2.95	0.61	
		합계	7678	2.95	0.59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	하	747	5.35	1.89	7.913***
		중	1883	5.44	1.86	
		상	1034	5.69	1.97	
		합계	3664	5.49	1.91	

④ 학교특성에 따른 청소년 행동역량 차이분석

학교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핵심역량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학교급(초·중·고), 학교설립유형 및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청소년 핵심역량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행동역량 차이분석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행동역량 차이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학교급에 따라 청소년 행동역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율적 행동역량 중 “거시맥락”, “목표수립”, “패턴이해”에 있어서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역량 역시 높았으나, “권익요구”에 있어서는 오히려 초등학교의 역량 인식이 다른 집단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관계지향성에서는, 고등학생들의 경청능력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부모와 접촉의 양과 질은 초등학교가 다소 높았다. 반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 고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하여 공공기관을 신뢰하는 정도가 높았고, 학교생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는 초등학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고등학생은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행동역량 차이분석

			N	평균	표준 편차	t/F
자율적 행동 역량	거시맥락	초등학생	2781	3.14	0.69	7.068**
		중학생	2770	3.15	0.68	
		고등학생	3599	3.20	0.59	
		합계	9150	3.16	0.65	
	목표수립	초등학생	2781	3.31	0.79	11.505***
		중학생	2770	3.22	0.74	
		고등학생	3599	3.27	0.69	
		합계	9150	3.26	0.74	
	권익요구	초등학생	2781	3.65	0.79	12.667***
		중학생	2770	3.56	0.74	
		고등학생	3599	3.58	0.68	
		합계	9150	3.60	0.74	
	패턴이해	초등학생	2781	0.42	0.25	1,538.881***
		중학생	2770	0.64	0.28	
		고등학생	3599	0.78	0.24	
		합계	9150	0.62	0.30	
관계 지향성 역량	적극적 경청	초등학생	2720	3.41	0.63	45.727***
		중학생	2754	3.46	0.60	
		고등학생	3586	3.55	0.57	
		합계	9060	3.48	0.60	
	주변사람(부모) 과의 접촉의 질과 양	초등학생	2671	2.55	0.82	248.534***
		중학생	2741	2.37	0.79	
		고등학생	3562	2.11	0.76	
		합계	8974	2.32	0.81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중학생	2401	4.15	1.93	10.92***
		고등학생	3233	3.43	1.75	
		합계	5634	3.74	1.87	
사회적 협력 역량	소속감(1) 학교생활 만족도	초등학생	2721	3.16	0.48	1,271.007***
		중학생	2754	2.70	0.47	
		고등학생	3578	2.57	0.46	
		합계	9053	2.79	0.53	
	소속감(2) 학교생활 경험	초등학생	2742	1.29	0.37	0.141
		중학생	2751	1.28	0.37	
		고등학생	3581	1.29	0.38	
		합계	9074	1.29	0.37	
	만족감	초등학생	2552	7.41	2.15	275.462***
		중학생	2467	6.48	2.10	
		고등학생	3335	6.16	1.93	
		합계	8354	6.64	2.12	

			N	평균	표준 편차	t/F
갈등 관리 역량	문제 인식 해결	초등학생	2757	3.38	0.76	9.324***
		중학생	2761	3.36	0.70	
		고등학생	3591	3.43	0.67	
		합계	9109	3.39	0.71	
	이민자 태도	초등학생	2276	2.91	0.61	6.667**
		중학생	2347	2.95	0.60	
		고등학생	3188	2.97	0.58	
		합계	7811	2.95	0.59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	중학생	1588	5.58	1.93	2.250*
		고등학생	2115	5.44	1.88	
		합계	3703	5.50	1.90	

나.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청소년 행동역량 차이분석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청소년 핵심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각 영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생의 경우,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는 역량과, 패턴을 이해하는 영역에서 공립학생들이 비하여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적극적 경청 역시 뛰어났다. 반면, “주변사람(부모)과의 접촉의 양과 질”,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학교생활 소속감” 과 “만족도” 에 있어서는 공립학교 학생들의 역량이 사립학교 학생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5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청소년 행동역량 차이분석

			N	평균	표준 편차	t
자율적 행동 역량	거시맥락	사립	2173	3.20	0.58	2.949***
		공립	6977	3.15	0.67	
	목표수립	사립	2173	3.27	0.69	0.285
		공립	6977	3.26	0.75	
	권익요구	사립	2173	3.58	0.66	-0.860
		공립	6977	3.60	0.76	
	패턴이해	사립	2173	0.76	0.25	25.168***
		공립	6977	0.58	0.30	
관계 지향성 역량	적극적 경청	사립	2167	3.53	0.59	4.464***
		공립	6893	3.47	0.60	
	주변사람(부모) 과의 접촉의 질과 양	사립	2152	2.18	0.79	- 9.431***
		공립	6822	2.36	0.81	

사회적 협력 역량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사립	1940	3.48	1.80	-7.521***
		공립	3694	3.87	1.89	
	소속감(1) 학교생활 만족도	사립	2160	2.58	0.48	-21.852***
		공립	6893	2.86	0.53	
	소속감(2) 학교생활 경험	사립	2161	1.27	0.36	-2.086*
		공립	6913	1.29	0.38	
갈등 관리 역량	만족감	사립	2016	6.21	2.00	-10.565***
		공립	6338	6.78	2.14	
	문제 인식해결	사립	2172	3.40	0.68	0.861
		공립	6937	3.39	0.71	
	이민자 태도	사립	1939	2.97	0.55	2.156*
		공립	5872	2.94	0.61	
	이민자 태도2	사립	1291	5.45	1.85	-1.146
		공립	2412	5.52	1.93	

다.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청소년 행동역량 차이분석

마지막으로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관계지향성 영역과, 사회적 협력 영역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특히, 관계지향성 영역의 “적극적 경청”의 경우, “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가장 높은 역량을 보인 반면, “주변사람(부모)과 접촉의 양과 질”,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학교 소속감” 및 “만족감”은 남녀공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역량이 가장 높았다.

표 IV-16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청소년 행동역량 차이분석

			N	평균	표준 편차	t/F
자율적 행동 역량	거시맥락	남녀공학	6742	3.16	0.67	2.654*
		남학교	1201	3.19	0.61	
		여학교	1207	3.19	0.57	
		합계	9150	3.16	0.65	
	목표수립	남녀공학	6742	3.27	0.76	1.083
		남학교	1201	3.24	0.65	
		여학교	1207	3.26	0.69	
		합계	9150	3.26	0.74	
	권익요구	남녀공학	6742	3.61	0.77	2.875
		남학교	1201	3.55	0.64	
		여학교	1207	3.58	0.64	
		합계	9150	3.60	0.74	

			N	평균	표준 편차	t/F
	패턴이해	남녀공학	6742	0.58	0.30	348.790***
		남학교	1201	0.74	0.27	
		여학교	1207	0.77	0.25	
		합계	9150	0.62	0.30	
관계 지향성 역량	적극적 경청	남녀공학	6660	3.46	0.61	47.253***
		남학교	1197	3.44	0.59	
		여학교	1203	3.64	0.54	
		합계	9060	3.48	0.60	
	주변사람 (부모) 과의 접촉의 질과 양	남녀공학	6587	2.36	0.82	49.631***
		남학교	1191	2.11	0.70	
		여학교	1196	2.32	0.84	
		합계	8974	2.32	0.81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남녀공학	3476	3.83	1.90	19.041***
		남학교	1077	3.73	1.84	
		여학교	1081	3.43	1.75	
		합계	5634	3.74	1.87	
사회적 협력 역량	소속감(1) 학교생활 만족도	남녀공학	6656	2.85	0.54	193.906***
		남학교	1196	2.59	0.46	
		여학교	1201	2.63	0.46	
		합계	9053	2.79	0.53	
	소속감(2) 학교생활 경험	남녀공학	6682	1.30	0.38	23.319***
		남학교	1192	1.26	0.35	
		여학교	1200	1.23	0.33	
		합계	9074	1.29	0.37	
	만족감	남녀공학	6142	6.77	2.16	52.356***
		남학교	1099	6.40	1.96	
		여학교	1113	6.13	1.95	
		합계	8354	6.64	2.12	
갈등 관리 역량	문제 인식 해결	남녀공학	6705	3.39	0.71	0.927
		남학교	1201	3.41	0.70	
		여학교	1203	3.38	0.66	
		합계	9109	3.39	0.71	
	이민자 태도	남녀공학	5681	2.94	0.61	1.419
		남학교	1021	2.95	0.60	
		여학교	1109	2.97	0.51	
		합계	7811	2.95	0.59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	남녀공학	2273	5.49	1.99	0.596
		남학교	747	5.56	1.80	
		여학교	683	5.45	1.68	
		합계	3703	5.50	1.90	

2) 기초통계 분석 (청소년 민주시민역량[2009])

(1) 기초분석

대한민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보유수준 및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9년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중 민주시민 의식과 관련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인 대한민국 청소년 핵심역량 조사의 것과 일치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경우 60%가 정치에 관심을 나타낸 반면, 나머지 40%는 정치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는 질문의 응답한 결과는 92.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었다. 반면, “어떤 집단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럿이 의논하기 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23.6%,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18.5%,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 라는 응답에는 30.8%가 찬성을 하는 등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비민주적인 의식에 다소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또한 민주국가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민주국가에서 하나 이상의 여러 정당이 있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정답:47.3%, 오답:52.7%], “정부가 가장 비민주적인 경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정답:45.4%, 오답:54.6%]의 질문에 대해서도 과반수이상의 오답비율을 보여, 실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와의 관계에 대한 지식은 다소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IV-17 민주시민 역량관련 기초분석

		구분	N	%
정치관심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	전혀 관심없다	1211	14.2
		거의 관심없다	2197	25.8
		약간 관심있다	4291	50.3
		매우 관심있다	827	9.7
		합계	8526	100
민주시민 의식	어떤 집단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럿이 의논하기 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매우 반대	1518	23.9
		약간 반대	1934	30.5
		보통	1658	26.1
		약간 찬성	937	14.8
		매우 찬성	304	4.8
		합계	6351	100

		구분	N	%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매우 반대	2048	32.3
		약간 반대	1570	24.8
		보통	1544	24.4
		약간 찬성	762	12.0
		매우 찬성	409	6.5
		합계	6333	100
종교이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이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거짓	5907	92.9
		참	450	7.1
		합계	6357	100
권리와 책임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거짓	497	7.8
		참	5858	92.2
		합계	6355	100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	거짓	4397	69.2
		참	1960	30.8
		합계	6357	100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만든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거짓	1076	16.9
		참	5280	83.1
		합계	6356	100
민주국가 인식	민주국가에서 하나 이상의 여러 정당이 있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오답	3330	52.7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987	47.3
		합계	6317	100
	정부가 가장 비민주적인 경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오답	3437	54.6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2861	45.4
		합계	6298	100

(2) 개인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차이분석

①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차이분석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을 독립변수로 민주시민 역량을 종속변수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모든 민주시민 역량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종합적으로 여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역량이 남학생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응답의 차이를 살펴보면, 직접적인 민주시민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인 “어떤 집단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럿이 의논하기 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와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에 대해서 여학생의 반대 의견 비율이 남학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민주주의에서 다수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로 바르게 응답한 비율이 54.6%로 남학생의 40.8%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V-18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분석

			남자		여자		전체		X ²
			N	%	N	%	N	%	
정치 관심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	전혀 관심없다	683	15.4	528	12.9	1211	14.2	46.108***
		거의 관심없다	1050	23.6	1147	28.1	2197	25.8	
		약간 관심있다	2219	49.9	2072	50.8	4291	50.3	
		매우 관심있다	496	11.2	331	8.1	827	9.7	
		전체	4448	100	4078	100	8526	100	
민주시민의식	어떤 집단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럿이 의논하기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매우 반대	802	23.8	716	24.0	1518	23.9	72.581***
		약간 반대	901	26.8	1033	34.6	1934	30.5	
		보통	958	28.5	700	23.4	1658	26.1	
		약간 찬성	498	14.8	439	14.7	937	14.8	
		매우 찬성	205	6.1	99	3.3	304	4.8	
		전체	3364	100	2987	100	6351	100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매우 반대	968	28.9	1080	36.2	2048	32.3	162.876***
		약간 반대	735	21.9	835	28.0	1570	24.8	
		보통	869	25.9	675	22.6	1544	24.4	
		약간 찬성	473	14.1	289	9.7	762	12.0	
		매우 찬성	307	9.2	102	3.4	409	6.5	
		전체	3352	100	2981	100	6333	100	
종교 이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이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거짓	3082	91.4	2825	94.6	5907	92.9	24.363***
		참	289	8.6	161	5.4	450	7.1	
		전체	3371	100	2986	100	6357	100	
권리와 책임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거짓	324	9.6	173	5.8	497	7.8	32.018***
		참	3046	90.4	2812	94.2	5858	92.2	
		전체	3370	100	2985	100	6355	100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	거짓	2213	65.6	2184	73.1	4397	69.2	41.689***
		참	1158	34.4	802	26.9	1960	30.8	
		전체	3371	100	2986	100	6357	100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만든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거짓	636	18.9	440	14.7	1076	16.9	19.267***
		참	2734	81.1	2546	85.3	5280	83.1	
		전체	3370	100	2986	100	6356	100	

민주국가인식	다수정당	오답	1982	59.2	1348	45.4	3330	52.7	120.750***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365	40.8	1622	54.6	2987	47.3	
		전체	3347	100	2970	100	6317	100	
	비민주적정부	오답	1898	56.8	1539	52.0	3437	54.6	14.778***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1441	43.2	1420	48.0	2861	45.4	
		전체	3339	100	2959	100	6298	100	

② 거주 지역에 따른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차이분석

거주지역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에 찬성하는 비율이 서울거주 학생의 경우 “21.3%”, 광역시의 경우 “18.6%” 시·군의 경우 “17.5%”로 서울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 역량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다소 낮았으며, “비민주적인 정부는 어떠한 정부인가”를 물어보는 질문 역시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때”라는 정답에 응답한 비율이 시·군(46.1%)→광역시(45.7%)→서울(42.6%)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민주 시민 의식에 지식과 태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거주지역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분석

			서울		광역시		시, 군		전체		X ²
			N	%	N	%	N	%	N	%	
정치관심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전혀 관심없다	215	15.2	368	13.8	628	14.1	1211	14.2	7.924
		거의 관심없다	356	25.2	720	27.1	1121	25.2	2197	25.8	
		약간 관심있다	690	48.8	1321	49.7	2280	51.2	4291	50.3	
		매우 관심있다	154	10.9	249	9.4	424	9.5	827	9.7	
		전체	1415	100	2658	100	4453	100	8526	100	
민주시민의식	어떤 집단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럿이 의논하기 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매우 반대	237	22.7	486	23.3	795	24.7	1518	23.9	8.885
		약간 반대	325	31.1	665	31.9	944	29.3	1934	30.5	
		보통	285	27.3	523	25.1	850	26.4	1658	26.1	
		약간 찬성	141	13.5	311	14.9	485	15.1	937	14.8	
		매우 찬성	57	5.5	100	4.8	147	4.6	304	4.8	
		전체	1045	100	2085	100	3221	100	6351	100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매우 반대	311	29.8	659	31.6	1078	33.6	2048	32.3	17.535*
		약간 반대	242	23.2	526	25.3	802	25.0	1570	24.8	
		보통	267	25.6	511	24.5	766	23.9	1544	24.4	
		약간 찬성	132	12.7	264	12.7	366	11.4	762	12.0	
		매우 찬성	90	8.6	123	5.9	196	6.1	409	6.5	
		전체	1042	100	2083	100	3208	100	6333	100	
종교이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이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거짓	953	91.1	1943	93.1	3011	93.4	5907	92.9	6.344
		참	93	8.9	143	6.9	214	6.6	450	7.1	
		전체	1046	100	2086	100	3225	100	6357	100	
권리와책임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거짓	74	7.1	161	7.7	262	8.1	497	7.8	1.250
		참	971	92.9	1926	92.3	2961	9.9	5858	92.2	
		전체	1045	100	2087	100	3223	100	6355	100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	거짓	711	68.0	1407	67.4	2279	70.7	4397	69.2	6.985*
		참	335	32.0	679	32.6	946	29.3	1960	30.8	
		전체	1046	100	2086	100	3225	100	6357	100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만든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거짓	176	16.8	339	16.2	561	17.4	1076	16.9	1.227
		참	870	83.2	1748	83.8	2662	82.6	5280	83.1	
		전체	1046	100	2087	100	3223	100	6356	100	
민주국가인식	다수정당	오답	573	55.0	1134	54.6	1623	50.7	3330	52.7	10.252* *
		국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468	45.0	943	45.4	1576	49.3	2987	47.3	
		전체	1041	100	2077	100	3199	100	6317	100	
	비민주적 정부	오답	594	57.4	1126	54.3	1717	53.9	3437	54.6	4.052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될때	441	42.6	949	45.7	1471	46.1	2861	45.4	
		전체	1035	100	2075	100	3188	100	6298	100	

③ 가족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차이분석

가족 특성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모의 학력 및 가구 경제력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아버지 학력에 따른 민주시민역량 차이분석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아동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20>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버지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은 정치에 관심이 높았으며, 실질적인 민주시민 역량 역시 높았다. 특히, 민주시민의식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고졸이하 “21.0%”, 고졸 “18.8%”, 대졸 이상에서 “17.3%” 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민주시민 의식은 다소나마 높았으며, 비민주적 정부를 물어보는 질문에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라고 응답하는 비율 역시 아버지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오히려 인식할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20 아버지 학력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분석

			고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전체		X ²
			N	%	N	%	N	%	N	%	
정치관심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	전혀 관심없다	89	19.4	513	14.9	514	12.6	1116	14.0	56.048***
		거의 관심없다	125	27.2	942	27.3	969	23.7	2036	25.5	
		약간 관심있다	214	46.6	1703	49.4	2125	52.0	4042	50.6	
		매우 관심있다	31	6.8	287	8.3	475	11.6	793	9.9	
		전체	459	100	3445	100	4083	100	7987	100	
민주시민의식	어떤 집단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럿이의논하기 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매우 반대	98	24.1	639	22.5	712	25.3	1449	23.9	19.048*
		약간 반대	119	29.2	861	30.3	881	31.3	1861	30.7	
		보통	109	26.8	794	28.0	657	23.3	1560	25.7	
		약간 찬성	63	15.5	418	14.7	421	15.0	902	14.9	
		매우 찬성	18	4.4	126	4.4	145	5.1	289	4.8	
		전체	407	100	2838	100	2816	100	6061	100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매우 반대	122	30.1	837	29.6	1004	35.8	1963	32.5	40.855***
		약간 반대	80	19.8	724	25.6	706	25.2	1510	25.0	
		보통	118	29.1	737	26.0	611	21.8	1466	24.3	
		약간 찬성	57	14.1	345	12.2	315	11.2	717	11.9	
		매우 찬성	28	6.9	188	6.6	171	6.1	387	6.4	
		전체	405	100	2831	100	2807	100	6043	100	
종교이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이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거짓	375	92.1	2632	92.6	2627	93.2	5634	92.8	1.215
		참	32	7.9	211	7.4	191	6.8	434	7.2	
		전체	407	100	2843	100	2818	100	6068	100	

권리와 책임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거짓	41	10.1	240	8.4	190	6.7	471	7.8	8.993*
		참	366	89.9	2601	91.6	2628	93.3	5595	92.2	
		전체	407	100	2841	100	2818	100	6066	100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	거짓	269	66.3	1967	69.2	1963	69.6	4199	69.2	1.901
		참	137	33.7	876	30.8	856	30.4	1869	30.8	
		전체	406	100	2843	100	2819	100	6068	100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만든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거짓	73	17.9	503	17.7	435	15.4	1011	16.7	5.753
		참	334	82.1	2339	82.3	2384	84.6	5057	83.3	
		전체	407	100	2842	100	2819	100	6068	100	
민주국가 인식	다수정당	오답	228	57.0	1496	52.9	1444	51.5	3168	52.5	4.515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72	43.0	1332	47.1	1359	48.5	2863	47.5	
		전체	400	100	2828	100	2803	100	6031	100	
	비민주적정부	오답	237	59.0	1597	56.6	1418	50.8	3252	54.1	23.170***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165	41.0	1224	43.4	1373	49.2	2762	45.9	
		전체	402	100	2821	100	2791	100	6014	100	

나. 어머니 학력에 따른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차이분석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은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역량 차이분석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는 비율이 낮아, 정확한 민주시민 의식을 가질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다수 정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에 48.1%가 응답하여, 41.7%의 응답을 보인 고졸이하의 모 학력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 IV-21 어머니 학력에 따른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차이분석

		고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전체		X ²		
		N	%	N	%	N	%	N	%			
정치 관심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	전혀 관심없다	77	15.7	612	14.6	409	12.6	1098	13.8	62.578***	
		거의 관심없다	133	27.2	1156	27.5	723	22.3	2012	25.4		
		약간 관심있다	246	50.3	2078	49.4	1707	52.7	4031	50.8		
		매우 관심있다	33	6.7	358	8.5	400	12.3	791	10.0		
		전체	489	100	4204	100	3239	100	7932	100		
민주 시민 의식	어떤 집단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럿이 의논하기 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매우 반대	100	22.6	835	24.0	525	24.9	1460	24.2	8.164	
		약간 반대	145	32.7	1049	30.1	653	31.0	1847	30.6		
		보통	118	26.6	920	26.4	509	24.2	1547	25.6		
		약간 찬성	67	15.1	510	14.6	319	15.1	896	14.9		
		매우 찬성	13	2.9	168	4.8	101	4.8	282	4.7		
		전체	443	100	3482	100	2107	100	6032	100		
	의식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매우 반대	134	30.3	1092	31.4	747	35.6	1973	32.8	37.196***
			약간 반대	76	17.2	896	25.8	522	24.8	1494	24.8	
			보통	136	30.8	845	24.3	468	22.3	1449	24.1	
			약간 찬성	68	15.4	423	12.2	228	10.9	719	11.9	
			매우 찬성	28	6.3	218	6.3	136	6.5	382	6.3	
종교 이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이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체	442	100	3474	100	2101	100	6017	100	1.961	
		거짓	413	93.2	3253	93.2	1944	92.3	5610	92.9		
		참	30	6.8	236	6.8	163	7.7	429	7.1		
권리 와 책임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전체	443	100	3489	100	2107	100	6039	100	4.286	
		거짓	45	10.2	258	7.4	159	7.5	462	7.7		
		참	398	89.8	3229	92.6	1948	92.5	5575	92.3		
	책임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전체	443	100	3487	100	2107	100	6037	100	1.392
			거짓	306	69.2	2439	69.9	1442	68.4	4187	69.3	
		참	136	30.8	1050	30.1	666	31.6	1852	30.7		

	있다.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만든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전체	442	100	3489	100	2108	100	6039	100	1,326
		거짓	82	18.5	584	16.7	343	16.3	1009	16.7	
		참	361	81.5	2904	83.3	1765	83.7	5030	83.3	
		전체	443	100	3488	100	2108	100	6039	100	
민주 국가 인식	다수정당	오답	256	58.3	1809	52.2	1090	51.9	3155	52.6	6,335*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83	41.7	1654	47.8	1010	48.1	2847	47.4	
		전체	439	100	3463	100	2100	100	6002	100	
		오답	256	58.0	1882	54.5	1103	52.7	3241	54.2	
	비민주적정부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185	42.0	1569	45.5	990	47.3	2744	45.8	4,681
		전체	441	100	3451	100	2093	100	5985	100	

다. 가구경제력에 따른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차이분석

마지막으로 가구경제력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치관심, 민주시민 의식 영역에서만 가구 경제력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특히 정치에 대한 관심에 의하면, 가구경제력이 “상” 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67.6%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가구경제력이 “하” 인 집단의 경우, 58.2%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라는 응답 역시 23.2%가 긍정하여, 다른 집단[“중” : 17.2%, “상”: 17.5%]에 비하여 민주 시민역량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가구 경제력에 따른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차이분석

		하		중		상		전체		X ²
		N	%	N	%	N	%	N	%	
정치 관심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	전혀 관심없다	222	15.2	668	15.5	307	11.8	1197	14.3
		거의 관심없다	390	26.6	1223	28.4	538	20.6	2151	25.7
		약간 관심있다	705	48.1	2086	48.5	1424	54.6	4215	50.3
		매우 관심있다	148	10.1	328	7.6	340	13.0	816	9.7
민주 시민 의식	어떤 집단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럿이 의논하기 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전체	1465	100	4305	100	2609	100	8379	100
		매우 반대	335	25.1	756	22.7	412	25.5	1503	23.9
		약간 반대	373	28.0	1040	31.3	494	30.6	1907	30.4
		보통	357	26.8	914	27.5	369	22.8	1640	26.1
		약간 찬성	199	14.9	468	14.1	258	16.0	925	14.7
		매우 찬성	69	5.2	150	4.5	82	5.1	301	4.8
		전체	1333	100	3328	100	1615	100	6276	100
		매우 반대	430	32.4	1004	30.3	593	36.8	2027	32.4
		약간 반대	272	20.5	884	26.6	389	24.1	1545	24.7
		보통	318	23.9	861	25.9	349	21.7	1528	24.4
종교 이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이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약간 찬성	194	14.6	385	11.6	174	10.8	753	12.0
		매우 찬성	114	8.6	185	5.6	106	6.6	405	6.5
		전체	1328	100	3319	100	1611	100	6258	100
		거짓	1242	93.2	3098	92.9	1497	92.8	5837	92.9
권리 와 책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이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참	91	6.8	237	7.1	117	7.2	445	7.1
		전체	1333	100	3335	100	1614	100	6282	100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거짓	98	7.3	263	7.9	127	7.9	488	7.8
		참	1236	92.7	3070	92.1	1486	92.1	5792	92.2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	전체	1334	100	3333	100	1613	100	6280	100
		거짓	894	67.1	2335	70.0	1121	69.5	4350	69.2
		참	439	32.9	1000	30.0	493	30.5	1932	30.8
		전체	1333	100	3335	100	1614	100	6282	100

		하		중		상		전체		X ²
		N	%	N	%	N	%	N	%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만든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거짓	210	15.7	558	16.7	287	17.8	1055	16.8	2,190
	참	1124	84.3	2775	83.3	1327	82.2	5226	83.2	
	전체	1334	100	3333	100	1614	100	6281	100	
다수정당	오답	717	54.0	1719	51.8	855	53.5	3291	52.7	2,290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611	46.0	1598	48.2	744	46.5	2953	47.3	
	전체	1328	100	3317	100	1599	100	6244	100	
비민주적 정부	오답	730	55.1	1808	54.7	853	53.5	3391	54.5	0,834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596	44.9	1498	45.3	741	46.5	2835	45.5	
	전체	1326	100	3306	100	1594	100	6226	100	

④ 학교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차이분석

가.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차이분석

민주시민 역량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에 비하여 정치에 대한 관심이 다소 높았고(고등학생 71.7%, 중학생 57.1%), “어떤 집단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럿이 의논하기 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도 고등학생의 반대 의견이 중학생의 반대 의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에 대한 응답은 중학생이 16.8% 찬성, 고등학생은 19.7%가 찬성하고 있어, 오히려 중학생의 의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민주적정부는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라는 올바른 정답을 인식하고 있는 집단은 고등학생이 51.0%로 중학생(38.1%)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

표 IV-23 학교급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분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X ²
			N	%	N	%	N	%	
정치 관심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	전혀 관심없다	425	16.4	430	12.7	1211	14.2	27.964***
		거의 관심없다	687	26.5	873	25.7	2197	25.8	
		약간 관심있다	1260	48.6	1769	52.1	4291	50.3	
		매우 관심있다	221	8.5	325	9.6	827	9.7	
		전체	2593	100	3397	100	8526	100	
민주 시민 의식	어떤 집단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럿이 의논하기 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매우 반대	616	22.3	902	25.1	1518	23.9	27.129***
		약간 반대	803	29.1	1131	31.5	1934	30.5	
		보통	804	29.1	854	23.8	1658	26.1	
		약간 찬성	395	14.3	542	15.1	937	14.8	
		매우 찬성	142	5.1	162	4.5	304	4.8	
		전체	2760	100	3591	100	6351	100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매우 반대	925	33.6	1123	31.4	2048	32.3	17.628**
		약간 반대	651	23.7	919	25.7	1570	24.8	
		보통	712	25.9	832	23.2	1544	24.4	
		약간 찬성	293	10.6	469	13.1	762	12.0	
		매우 찬성	171	6.2	238	6.6	409	6.5	
		전체	2752	100	3581	100	6333	100	

종교 이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이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거짓	2559	92.5	3348	93.2	5907	92.9	1.221
		참	207	7.5	243	6.8	450	7.1	
		전체	2766	100	3591	100	6357	100	
권리와 책임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거짓	272	9.8	225	6.3	497	7.8	27.772***
		참	2491	90.2	3367	93.7	5858	92.2	
		전체	2763	100	3592	100	6355	100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	거짓	1920	69.4	2477	69.0	4397	69.2	0.113
		참	847	30.6	1113	31.0	1960	30.8	
		전체	2767	100	3590	100	6357	100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만든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거짓	505	18.3	571	15.9	1076	16.9	6.203*
		참	2260	81.7	3020	84.1	5280	83.1	
		전체	2765	100	3591	100	6356	100	
민주의식	다수정당	오답	1451	52.9	1879	52.5	3330	52.7	0.096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290	47.1	1697	47.5	2987	47.3	
		전체	2741	100	3576	100	6317	100	
	비민주적정부	오답	1690	61.9	1747	49.0	3437	54.6	104.491***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1040	38.1	1821	51.0	2861	45.4	
		전체	2730	100	3568	100	6298	100	

나. 학교설립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차이분석

학교설립 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 학생들의 경우, “비민주적 정부”에 대한 의견에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라는 올바른 응답을 보이는 비율이 48.7%로 공립학교 학생의 43.7%에 비하여 높아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식은 높게 가지고 있으나, “어떤 집단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럿이 의논하기 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에 공립학교 학생에 비하여 높은 비율의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어, 실제 민주시민 역량은 미흡함을 엿볼 수 있었다.

표 IV-24 학교설립 유형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분석

			사립		공립		전체		X ²
			N	%	N	%	N	%	
정치 관심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	전혀 관심없다	262	12.7	949	14.7	1211	14.2	6.601
		거의 관심없다	520	25.3	1677	25.9	2197	25.8	
		약간 관심있다	1064	51.7	3227	49.9	4291	50.3	
		매우 관심있다	213	10.3	614	9.5	827	9.7	
		전체	2059	100	6467	100	8526	100	
민주 시민 의식	어떤 집단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럿이 의논하기 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매우 반대	528	24.7	990	23.5	1518	23.9	22.258***
		약간 반대	674	31.5	1260	29.9	1934	30.5	
		보통	485	22.7	1173	27.8	1658	26.1	
		약간 찬성	350	16.4	587	13.9	937	14.8	
		매우 찬성	101	4.7	203	4.8	304	4.8	
		전체	2138	100	4213	100	6351	100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매우 반대	721	33.7	1327	31.6	2048	32.3	7.685
		약간 반대	520	24.3	1050	25.0	1570	24.8	
		보통	484	22.6	1060	25.3	1544	24.4	
		약간 찬성	273	12.8	489	11.7	762	12.0	
		매우 찬성	139	6.5	270	6.4	409	6.5	
		전체	2137	100	4196	100	6333	100	
종교 이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만이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거짓	2011	94.0	3896	92.4	5907	92.9	5.873*
		참	128	6.0	322	7.6	450	7.1	
		전체	2139	100	4218	100	6357	100	
권리와 책임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거짓	138	6.4	359	8.5	497	7.8	8.425**
		참	2002	93.6	3856	91.5	5858	92.2	
		전체	2140	100	4215	100	6355	100	
	나라에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	거짓	1505	70.4	2892	68.5	4397	69.2	2.267
		참	633	29.6	1327	31.5	1960	30.8	
		전체	2138	100	4219	100	6357	100	
	투표권을 가진 어른들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만든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	거짓	304	14.2	772	18.3	1076	16.9	16.919***
		참	1835	85.8	3445	81.7	5280	83.1	
		전체	2139	100	4217	100	6356	100	
민주 의식	다수정당	오답	1086	51.1	2244	53.5	3330	52.7	3.428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040	48.9	1947	46.5	2987	47.3	
		전체	2126	100	4191	100	6317	100	
	비민주적정부	오답	1090	51.3	2347	56.3	3437	54.6	14.123***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1036	48.7	1825	43.7	2861	45.4	
		전체	2126	100	4172	100	6298	100	

다.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차이분석

마지막으로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IV-25>와 같다. 표에 의하면, 학교 유형이 남녀공학 여부에 따라 민주시민 의식의 대부분의 역량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여학교 재학생들의 경우 다수정당이 존재하는 이유와, 비민주적인 정부에 대한 인식을 남학교나 남녀공학 학생들에 비하여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주시민 의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집단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럿이 의논하기 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와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에 긍정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위의 의견을 “부정”하는 의견의 경우, 여학교 재학생들이 남학교나 남녀공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나 이들의 민주시민의식 역량이 다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25 남녀공학여부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분석

		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		전체		X ²
		N	%	N	%	N	%	N	%	
정 치 관 심	전혀 관심없다	923	14.8	150	13.2	138	12.0	1211	14.2	18.834**
	거의 관심없다	1593	25.6	270	23.7	334	28.9	2197	25.8	
	약간 관심있다	3100	49.7	602	52.9	589	51.0	4291	50.3	
	매우 관심있다	618	9.9	116	10.2	93	8.1	827	9.7	
	전체	6234	100	1138	100	1154	100	8526	100	
민 주 시 민 의 식	어떤 집단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럿이 의논하기 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916	23.2	296	24.8	306	25.4	1518	23.9	56.866***
	매우 반대	1143	28.9	366	30.7	425	35.2	1934	30.5	
	약간 반대	1118	28.3	303	25.4	237	19.7	1658	26.1	
	보통	569	14.4	165	13.8	203	16.8	937	14.8	
	약간 찬성	205	5.2	64	5.4	35	2.9	304	4.8	
	매우 찬성	3951	100	1194	100	1206	100	6351	100	
	전체	1232	31.3	360	30.2	456	37.8	2048	32.3	
	매우 반대	963	24.5	275	23.1	332	27.5	1570	24.8	
	약간 반대	997	25.3	291	24.4	256	21.2	1544	24.4	
	보통	468	11.9	170	14.2	124	10.3	762	12.0	
종 교 이 해	매우 찬성	274	7.0	97	8.1	38	3.2	409	6.5	61.000***
	전체	3934	100	1193	100	1206	100	6333	100	
	거짓	3651	92.4	1109	92.5	1147	95.1	5907	92.9	
	참	301	7.6	90	7.5	59	4.9	450	7.1	
	전체	3952	100	1199	100	1206	100	6357	100	
권 리 와 책 임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328	8.3	109	9.1	60	5.0	497	7.8	17.508***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3622	91.7	1090	90.9	1146	95.0	5858	92.2	
	전체	3950	100	1199	100	1206	100	6355	100	
	거짓	2714	68.7	806	67.2	877	72.7	4397	69.2	
	참	1238	31.3	393	32.8	329	27.3	1960	30.8	
	전체	3952	100	1199	100	1206	100	6357	100	
	투표권을 가진	683	17.3	222	18.5	171	14.2	1076	16.9	

	어른들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만든 새로운 법에 투표할 권리가있다.	참	3268	82.7	977	81.5	1035	85.8	5280	83.1	
		전체	3951	100	1199	100	1206	100	6356	100	
민 주 이 사	다수정당	오답	2045	52.0	717	60.2	568	47.5	3330	52.7	40.599***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885	48.0	474	39.8	628	52.5	2987	47.3	
		전체	3930	100	1191	100	1196	100	6317	100	
		오답	2226	56.9	629	52.9	582	48.6	3437	54.6	
	비민주적정부	사람들이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하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	1687	43.1	559	47.1	615	51.4	2861	45.4	26.824***
		전체	3913	100	1188	100	1197	100	6298	100	

3) 기초통계 분석 (비판적 사고역량[2010])

비판적 사고역량은 앞의 분석에 사용된 청소년 핵심역량 및 민주시민 역량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역량으로 “2010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의 내용을 분석에 사용할 수 있었다. “2010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는 먼저 실시된 “2009년 청소년 역량조사”를 심층 분석하여 개발한 조사로, 청소년의 핵심역량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 사고력 영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 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사고력 측정문항의 특성상 조사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초등학교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전문계고교 포함)를 포함하였으며, 전국 중고등학교의 학생 및 학교 수에 따라 지역별로 표본을 선정한 자료이다.

(1) 기초 분석

①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응답자는 총 7,313명으로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전체의 51.0%(3,733명), 여학생이 49.0%(3,580명)이었으며, 조사당시(2010년) 일반계중학생이 44.9%, 인문계/일반계고등학교 재학생이 40.5%,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가 14.6%를 차지하였다. 이들 중 34.1%는 사립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국공립:65.9%), 70.1%가 남녀공학(남학교:15.2%, 여학교:14.6%)에 재학 중이었다.

이들의 가족관계 변수를 살펴보면, 아버지학력의 경우 전체의 51.0%에 해당하는 3,661명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어머니는 전체의 38.8%(2,773명)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경제 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누어 확인한 결과, “중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2.6%, “상”이라는 응답이 33.4%, “하”라는 응답이 23.9%를 나타냈다.

표 IV-26 2010 청소년 역량조사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

		N	%
성별	남자	3733	51.0
	여자	3580	49.0
	합계	7313	100
학교집단	일반계중학교	3269	44.9
	인문계/일반계고등학교	2949	40.5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1062	14.6
	합계	7280	100
설립형태	사립	2495	34.1
	국공립	4818	65.9
	합계	7313	100
학교유형	남녀공학	5127	70.1
	남학교	1115	15.2
	여학교	1071	14.6
	합계	7313	100
부학력	고졸이하	466	6.5
	고졸	3050	42.5
	대졸이상	3661	51.0
	합계	7177	100
모학력	고졸이하	459	6.4
	고졸	3914	4.8
	대졸이상	2773	38.8
	합계	7146	100
가구경제수준	하	1733	23.9
	중	3087	42.6
	상	2418	33.4
	합계	7238	100

② 학교생활 관련 변수

응답자들의 학교생활 관련 변수는,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학교생활 경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 학교생활 만족도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의 30% 미만의 학생만이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46.0%는 보통, 24.2%는 불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표 IV-27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N	%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매우 불만족스럽다	470	6.5
	불만족스럽다	1276	17.7
	보통이다	3311	46.0
	만족스럽다	1794	24.9
	매우 만족스럽다	345	4.8
	합계	7196	100

학생들의 세부적인 학교생활 적응정도를 확인해보면, 다음의 <표 IV-28>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수업시간이 재미있냐는 질문에 과반수이상의 학생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재미있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23.4%,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25.8%였다. 이들 중 약 20%에 해당하는 학생은 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적응에 문제가 있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의 30% 이상의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미래를 위하여 지금 현재 학교에 충실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28 학교생활 적응

			N	%
학교적응 (1)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610	8.4
		그렇지 않다	1269	17.4
		보통 이다	3717	50.9
		그렇다	1458	20.0
		매우 그렇다	251	3.4
		합계	7305	100
학교적응 (2)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싶다	전혀 그렇지 않다	1487	20.4
		그렇지 않다	2136	29.3
		보통 이다	2170	29.7
		그렇다	975	13.4
		매우 그렇다	528	7.2
		합계	7296	100
학교적응 (3)	지금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나중에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713	9.8
		그렇지 않다	1475	20.2
		보통 이다	3120	42.8
		그렇다	1631	22.4
		매우 그렇다	357	4.9
		합계	7296	100
	내가 어른이 되어 살아가는데 있어 지금 학교에서 배운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536	7.3
		그렇지 않다	1102	15.1
		보통 이다	3253	44.6
		그렇다	1971	27.0
		매우 그렇다	434	5.9
		합계	7296	100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배운 것을 나중에 잘 쓸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660	9.0
		그렇지 않다	1428	19.6
		보통 이다	2628	36.0
		그렇다	1958	26.8
		매우 그렇다	623	8.5
		합계	7297	100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배우려면 지금 학교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327	4.5
		그렇지 않다	520	7.1
		보통 이다	2042	28.0
		그렇다	2810	38.5
		매우 그렇다	1591	21.8
		합계	7290	100

나는 열심히 공부할수록 더 좋은 성적이 나오곤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347	4.8
	그렇지 않다	906	12.4
	보통 이다	2483	34.0
	그렇다	2337	32.0
	매우 그렇다	1227	16.8
	합계	7300	100

전체적인 학교생활 만족도의 기초통계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V-29 학교생활 변수 기초통계 분석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반적인 학교 생활 만족도	7196	1	5	3.04	0.94
학교적응(1) 학교생활 재미있다	7305	1	5	2.93	0.92
학교적응(2) 전학가고싶다	7296	1	5	2.58	1.16
학교적응(3) 학교생활미래긍정	7266	1	5	3.23	0.76
학교적응(4) 학교생활경험(평균)	7269	1	4	1.28	0.38

나. 학교생활 경험

이들의 학교생활 경험을 살펴보면, 대부분에 속하는 90%이상의 학생들은 “휴학”, “무단결석” 혹은 “징계를 받아 본 경험” 이 없었으나 “지각 경험” 은 과반 수 이상의 학생들이 한번 이상씩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0 학교생활 경험

		N	%
휴학 경험	없었다	7028	96.3
	한 두 번	194	2.7
	서 너 번	44	0.6
	다섯 번 이상	31	0.4
	합계	7297	100
지각 경험	없었다	3507	48.1
	한 두 번	2216	30.4
	서 너 번	642	8.8
	다섯 번 이상	930	12.7
	합계	7295	100
무단결석 경험	없었다	6608	90.6
	한 두 번	434	6.0
	서 너 번	118	1.6
	다섯 번 이상	131	1.8
	합계	7291	100
(교내·외) 사회봉사 혹은 등교정지 등의 징계	없었다	6868	94.3
	한 두 번	320	4.4
	서 너 번	63	0.9
	다섯 번 이상	35	0.5
	합계	7286	100

③ 학교특성 관련 변수

각 학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 내용 중 아래와 같은 세 문항을 선별하였다.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 10%에 해당하는 응답자만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학습하기 좋은 분위기인지에 대한 응답에는 15%, 학교 교칙이 엄격하다는 인식에는 40%가 긍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를 다소 강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31 학교생활 경험

		N	%
학생의견 반영 우리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47	14.3
	그렇지 않다	2234	30.6
	보통 이다	3215	44.1
	그렇다	699	9.6
	매우 그렇다	102	1.4
	합계	7297	100
학습분위기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939	12.9
	그렇지 않다	1898	26.0
	보통 이다	3338	45.7
	그렇다	906	12.4
	매우 그렇다	220	3.0
	합계	7301	100
학교교직원격정도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278	3.8
	그렇지 않다	970	13.3
	보통 이다	3023	41.4
	그렇다	1718	23.5
	매우 그렇다	1308	17.9
	합계	7297	100

학교특성 응답의 기초통계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IV-32>와 같다.

표 IV-32 자율적 행동 역량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학교수준 : 의견반영	7297	1	5	2.53	0.90
학교수준 : 공부분위기	7301	1	5	2.67	0.95
학교수준 : 엄격규율	7297	1	5	3.38	1.04

④ 비판적 사고역량 관련 변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역량을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비판적 사고능력의 6개 하위영역은 각각 진실추구성, 개방성, 탐구성, 객관성, 체계성, 자기신뢰성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모든 영역에서 3점 이상의 평균을 보였으며, 특히 “개방성”의 경우, 평균 3.70을 보여, 다른 영역에 비하여 높은 평균을 보였다.

표 IV-33 비판적 사고 역량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진실추구성	7233	1	5	3.49	0.50
개방성	7190	1	5	3.70	0.59
탐구성	7223	1	5	3.49	0.68
객관성	7213	1	5	3.48	0.62
체계성	7227	1	5	3.00	0.71
자기신뢰성	7207	1	5	3.13	0.66

(2) 개인특성에 따른 학교특성 차이분석

①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차이분석

성별에 따른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차이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34>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교생활의 특성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34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특성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개인 수준	학교생활 전반적인 만족도	남자	3657	3.05	0.98	0.926
		여자	3539	3.03	0.89	
	학교적응(1) 학교생활 재미있다	남자	3729	2.92	0.97	-1.123
		여자	3576	2.94	0.85	
	학교적응(2) 전학가고 싶다	남자	3723	2.41	1.17	-12.593***
		여자	3573	2.75	1.13	
	학교적응(3) 학교생활 미래긍정	남자	3707	3.23	0.81	-0.914
		여자	3559	3.24	0.71	
	학교적응(4) 휴학, 지각, 무단결석 등	남자	3704	1.30	0.40	4.030
		여자	3565	1.26	0.36	
학교 수준	의견반영	남자	3726	2.52	0.94	-0.913
		여자	3571	2.54	0.86	
	학습분위기	남자	3726	2.65	1.00	-1.839
		여자	3575	2.69	0.90	
	엄격규율	남자	3722	3.38	1.08	-0.769
		여자	3575	3.39	1.00	

② 가정배경 특성에 따른 학교특성 차이분석

가. 아버지학력에 따른 학교생활 차이분석

아버지 학력에 따른 청소년 학교생활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학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으며, 학교생활이 재미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35 아버지학력에 따른 학교생활 특성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F
학생 수준	학교생활 전반적인 만족도	고졸이하	460	2.99	0.88	8.422***
		고졸	3004	2.99	0.92	
		대졸이상	3602	3.08	0.96	
		합계	7066	3.04	0.94	
	학교적응(1) 학교생활 재미있다.	고졸이하	466	2.86	0.89	8.332***
		고졸	3046	2.89	0.88	
		대졸이상	3659	2.97	0.94	
		합계	7171	2.93	0.91	
	학교적응(2) 학교생활부적응 전학가고 싶다.	고졸이하	466	2.59	1.18	1.710
		고졸	3040	2.61	1.16	
		대졸이상	3656	2.56	1.15	
		합계	7162	2.58	1.16	
	학교적응(3) 학교생활 미래긍정	고졸이하	462	3.21	0.76	2.792
		고졸	3031	3.22	0.74	
		대졸이상	3641	3.26	0.78	
		합계	7134	3.24	0.76	
	학교적응(4) 휴학, 지각, 무단결석 등	고졸이하	462	1.31	0.43	3.707*
		고졸	3031	1.29	0.38	
		대졸이상	3642	1.27	0.38	
		합계	7135	1.28	0.38	
학교 수준	의견반영	고졸이하	466	2.51	0.88	0.561
		고졸	3042	2.54	0.87	
		대졸이상	3655	2.52	0.93	
		합계	7163	2.53	0.90	
	학습분위기	고졸이하	465	2.51	0.91	16.510***
		고졸	3044	2.62	0.92	
		대졸이상	3658	2.73	0.98	
		합계	7167	2.67	0.95	
	엄격규율	고졸이하	466	3.38	1.04	2.089
		고졸	3042	3.42	1.02	
		대졸이상	3656	3.36	1.06	
		합계	7164	3.39	1.04	

나. 어머니학력에 따른 학교생활 차이분석

어머니학력에 따른 차이에 의하면, 모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전반적인 만족도 ‘학교가 재미있다, 학교분위기가 좋고, 규칙이 엄격하지 않아 유연하다’ 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고졸이하의 모 학력을 가진 학생들은 ‘휴학, 지각, 결석, 징계’ 의 경험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 IV-36 어머니 학력에 따른 학교생활 특성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F
학생 수준	학교생활 전반적인 만족도	고졸이하	454	2.96	0.90	8.186***
		고졸	3858	3.01	0.91	
		대졸이상	2726	3.09	0.98	
		합계	7038	3.04	0.94	
	학교적응(1) 학교생활 재미있다.	고졸이하	459	2.84	0.90	8.820***
		고졸	3910	2.90	0.89	
		대졸이상	2771	2.98	0.94	
		합계	7140	2.93	0.92	
	학교적응(2) 학교생활 부적응/ 전학가고 싶다.	고졸이하	458	2.64	1.19	3.247
		고졸	3909	2.60	1.16	
		대졸이상	2764	2.54	0.16	
		합계	7131	2.58	1.16	
	학교적응(3) 학교생활 미래긍정	고졸이하	455	3.20	0.76	8.452*
		고졸	3895	3.21	0.73	
		대졸이상	2756	3.28	0.80	
		합계	7106	3.24	0.76	
	학교적응(4) 휴학, 지각, 무단결석 등	고졸이하	456	1.33	0.46	3.231*
		고졸	3892	1.28	0.37	
		대졸이상	2756	1.28	0.38	
		합계	7104	1.28	0.38	
학교 수준	의견반영	고졸이하	458	2.44	0.90	2.233
		고졸	3907	2.53	0.87	
		대졸이상	2767	2.54	0.94	
		합계	7132	2.53	0.90	
	학습분위기	고졸이하	458	2.51	0.89	13.515***
		고졸	3909	2.64	0.93	
		대졸이상	2769	2.73	1.00	
		합계	7136	2.67	0.95	
	엄격규율	고졸이하	458	3.40	1.04	4.594*
		고졸	3905	3.42	1.02	
		대졸이상	2770	3.34	1.07	
		합계	7133	3.39	1.04	

다. 가구경제력에 따른 학교생활 차이분석

가구경제력에 따른 학교생활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의 규율이 엄격하게 인식하는지 여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다. 가구경제력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으며,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었으며, 학교의 학습 분위기가 긍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37 가구경제력에 따른 학교생활 특성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F
학생 수준	학교 생활 전반적인 만족도	하	1703	2.88	0.93	38.588***
		중	3035	3.05	0.89	
		상	2388	3.14	0.98	
		합계	7126	3.04	0.94	
	학교적응(1) 학교생활 재미있다.	하	1732	2.80	0.90	41.685***
		중	3082	2.90	0.87	
		상	2417	3.06	0.96	
		합계	7231	2.93	0.91	
	학교적응(2) 전학가고 싶다.	하	1731	2.72	1.20	17.826***
		중	3078	2.55	1.12	
		상	2414	2.51	1.18	
		합계	7223	2.58	1.16	
	학교적응(3) 학교생활 미래긍정	하	1722	3.17	0.76	23.688***
		중	3066	3.21	0.72	
		상	2404	3.32	0.80	
		합계	7192	3.24	0.76	
	학교적응(4) 휴학, 지각, 무단결석 등	하	1721	1.34	0.43	34.447***
		중	3068	1.27	0.37	
		상	2408	1.25	0.34	
		합계	7197	1.28	0.38	
학교 수준	의견반영	하	1728	2.46	0.90	7.004**
		중	3080	2.56	0.86	
		상	2415	2.54	0.95	
		합계	7223	2.53	0.90	
	학습분위기	하	1730	2.52	0.95	30.011***
		중	3081	2.70	0.90	
		상	2416	2.73	1.01	
		합계	7227	2.67	0.95	
	엄격규율	하	1729	3.43	1.07	2.068
		중	3079	3.36	1.00	
		상	2416	3.39	1.08	
		합계	7224	3.39	1.04	

③ 학교특성에 따른 학교특성 차이분석

가. 학교설립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차이분석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생활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국공립학생들은 사립학교 학생들에 비하여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나 적응을 잘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사립학생들의 경우 학교 규율이 다소 엄격하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대신 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라는 질문에는 국공립학생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38 학교설립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특성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
학생 수준	학교생활 전반적인만족도	사립	2462	2.96	0.95	-4.737***
		국공립	4734	3.08	0.93	
	학교적응(1) 학교생활 재미 있다.	사립	2494	2.86	0.92	-4.649***
		국공립	4811	2.96	0.91	
	학교적응(2) 전학가고 싶다.	사립	2491	2.69	1.17	5.842***
		국공립	4805	2.52	1.15	
	학교적응(3) 학교생활미래긍정	사립	2484	3.24	0.77	0.736
		국공립	4782	3.23	0.76	
	학교적응(4) 휴학, 지각, 무단결석 등	사립	2484	1.29	0.39	0.574
		국공립	4785	1.28	0.38	
학교 수준	의견반영	사립	2488	2.48	0.93	-3.187*
		국공립	4809	2.55	0.88	
	학습분위기	사립	2491	2.76	1.01	6.156***
		국공립	4810	2.62	0.92	
	엄격규율	사립	2488	3.62	1.07	14.136***
		국공립	4809	3.26	1.01	

나. 학교유형(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학교생활 차이분석

남녀공학 등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차이분석 결과, 몇몇 변수에서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특히, 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전학가고 싶다는 인식이 높아, 다른 집단에 비하여 학교 부적응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들은 학교분위기 역시 엄격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39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특성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F
학생 수준	학교 생활 전반적인 만족도	남녀공학	5039	3.05	0.93	1.988
		남학교	1104	2.99	1.00	
		여학교	1053	3.05	0.92	
		합계	7196	3.04	0.94	
	학교적응(1) 학교생활 재미있다.	남녀공학	5120	2.92	0.92	1.143
		남학교	1114	2.96	0.95	
		여학교	1071	2.94	0.84	
		합계	7305	2.93	0.92	
	학교적응(2) 전학가고 싶다.	남녀공학	5111	2.56	1.16	24.624***
		남학교	1114	2.46	1.17	
		여학교	1071	2.79	1.12	
		합계	7296	2.58	1.16	
	학교적응(3) 학교생활 미래긍정	남녀공학	5085	3.21	0.76	8.586***
		남학교	1112	3.29	0.81	
		여학교	1069	3.29	0.71	
		합계	7266	3.23	0.76	
	학교적응(4) 휴학, 지각, 무단결석 등	남녀공학	5093	1.30	0.40	16.066***
		남학교	1109	1.26	0.34	
		여학교	1067	1.23	0.34	
		합계	7269	1.28	0.38	
학교 수준	의견반영	남녀공학	5116	2.54	0.90	1.005
		남학교	1114	2.50	0.94	
		여학교	1067	2.53	0.87	
		합계	7297	2.53	0.90	
	학습분위기	남녀공학	5119	2.61	0.93	27.569***
		남학교	1113	2.77	1.06	
		여학교	1069	2.82	0.92	
		합계	7301	2.67	0.95	
	엄격규율	남녀공학	5112	3.31	1.03	43.163***
		남학교	1114	3.51	1.10	
		여학교	1071	3.60	1.03	
		합계	7297	3.38	1.04	

다. 학교급에 따른 학교생활 차이분석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차이분석 결과는 다음 <표 IV-40>과 같다. 분석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하여 학교생활 전반적인 만족도나 적응, 미래 생활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학생의견이 학교에 반영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0 학교급에 따른 학교생활 특성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F
학생 수준	학교 생활 전반적인 만족도	일반계중학교	3218	3.17	0.92	59.679***
		인문계/일반계 고등학교	2910	2.92	0.94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35	2.96	0.92	
		합계	7163	3.04	0.94	
	학교적응(1) 학교생활 재미있다.	일반계중학교	3264	3.04	0.93	51.252***
		인문계/일반계 고등학교	2946	2.86	0.89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62	2.76	0.91	
		합계	7272	2.93	0.92	
	학교적응(2) 전학가고 싶다.	일반계중학교	3262	2.43	1.14	51.177***
		인문계/일반계 고등학교	2942	2.72	1.16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59	2.66	1.19	
		합계	7263	2.58	1.16	
	학교적응(3) 학교생활 미래긍정	일반계중학교	3244	3.31	0.76	29.750***
		인문계/일반계 고등학교	2930	3.17	0.73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59	3.19	0.82	
		합계	7233	3.23	0.76	
	학교적응(4) 휴학, 지각 무단결석 등	일반계중학교	3245	1.27	0.36	49.008***
		인문계/일반계 고등학교	2935	1.26	0.34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57	1.39	0.51	
		합계	7237	1.28	0.38	

			N	평균	표준편차	t/F
학교 수준	의견반영	일반계중학교	3261	2.67	0.88	70.602***
		인문계/일반계 고등학교	2943	2.41	0.90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60	2.44	0.90	
		합계	7264	2.53	0.90	
	학습분위기	일반계중학교	3263	2.79	0.89	90.589***
		인문계/일반계 고등학교	2943	2.65	0.99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62	2.35	0.94	
		합계	7268	2.67	0.95	
	엄격규율	일반계중학교	3261	3.33	1.02	11.335***
		인문계/일반계 고등학교	2943	3.46	1.06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060	3.38	1.08	
		합계	7264	3.39	1.04	

(3) 개인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 역량 차이분석

① 성별에 따른 비판적 사고 역량 차이분석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역량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비판적 사고역량 중 “개방성” 과 “객관성” 에서는 여학생이 “체계성” 영역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각각 다른 성에 비하여 사고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 성별에 따른 비판적 사고역량 차이분석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t
진실추구성	남자	3682	3.48	0.54	-1.606
	여자	3551	3.50	0.45	
개방성	남자	3654	3.62	0.62	-11.97***
	여자	3536	3.78	0.54	
탐구성	남자	3675	3.48	0.69	-1.044
	여자	3548	3.50	0.67	
객관성	남자	3673	3.45	0.64	-3.069**
	여자	3540	3.50	0.60	

		N	평균	표준편차	t
체계성	남자	3677	3.02	0.72	2.495*
	여자	3550	2.98	0.69	
자기신뢰성	남자	3664	3.14	0.68	0.831
	여자	3543	3.13	0.64	

② 가정배경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 역량 차이분석

가. 아버지학력에 따른 비판적 사고 역량 차이분석

아버지학력은 자녀의 비판적사고 역량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아버지학력이 대졸 이상일 경우, 고졸이하 학력의 청소년에 비하여 모든 비판적 사고 역량이 높았으며, 그 차이는 “자기 신뢰성” 과 “체계성” 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IV-42 아버지 학력에 따른 비판적 사고역량 차이분석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t/F
진실추구성	고졸이하	461	3.44	0.56	4.638**
	고졸	3023	3.48	0.49	
	대졸이상	3621	3.50	0.49	
	합계	7105	3.49	0.49	
개방성	고졸이하	458	3.60	0.69	21.925***
	고졸	3000	3.67	0.57	
	대졸이상	3605	3.74	0.58	
	합계	7063	3.70	0.59	
탐구성	고졸이하	463	3.37	0.70	18.078***
	고졸	3011	3.46	0.65	
	대졸이상	3626	3.54	0.69	
	합계	7100	3.49	0.68	
객관성	고졸이하	463	3.39	0.67	24.260***
	고졸	3015	3.43	0.59	
	대졸이상	3615	3.53	0.63	
	합계	7093	3.48	0.62	
체계성	고졸이하	463	2.87	0.74	56.663***
	고졸	3018	2.93	0.67	
	대졸이상	3626	3.09	0.72	
	합계	7107	3.01	0.71	
자기신뢰성	고졸이하	457	2.98	0.68	63.731***
	고졸	3026	3.06	0.63	
	대졸이상	3618	3.22	0.67	
	합계	7101	3.14	0.66	

나. 어머니학력에 따른 비판적 사고 역량 차이분석

어머니 학력 역시 자녀의 비판적 사고역량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어머니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비판적 사고능력은 모든 영역에서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학력에 따른 역량의 차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라 하겠다.

표 IV-43 어머니 학력에 따른 비판적 사고역량 차이분석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t/F
진실추구성	고졸이하	453	3.44	0.58	3.425*
	고졸	3881	3.49	0.48	
	대졸이상	2740	3.50	0.50	
	합계	7074	3.49	0.49	
개방성	고졸이하	452	3.61	0.70	11.433***
	고졸	3856	3.69	0.56	
	대졸이상	2726	3.74	0.61	
	합계	7034	3.70	0.59	
탐구성	고졸이하	457	3.37	0.71	23.346***
	고졸	3867	3.46	0.65	
	대졸이상	2746	3.56	0.70	
	합계	7070	3.50	0.68	
객관성	고졸이하	454	3.38	0.68	17.026***
	고졸	3870	3.46	0.59	
	대졸이상	2738	3.53	0.64	
	합계	7062	3.48	0.62	
체계성	고졸이하	453	2.84	0.73	57.772***
	고졸	3880	2.95	0.68	
	대졸이상	2747	3.12	0.73	
	합계	7080	3.01	0.71	
자기신회성	고졸이하	452	2.96	0.69	55.634***
	고졸	3882	3.09	0.63	
	대졸이상	2737	3.23	0.68	
	합계	7071	3.14	0.66	

다. 가구경제력에 따른 비판적 사고 역량 차이분석

가족관계 변수 중 가구경제력 역시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 역량 형성에 크게 반영되고 있었다(〈표 IV-44〉참고).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구경제력이 높을수록 모든 영역에서의 청소년 비판적 사고역량이 높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체계성” 과 “자기신뢰성” 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가구경제력에 따른 차이가 대한민국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역량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IV-44 가구경제력에 따른 비판적 사고역량 차이분석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t/F
진실추구성	하	1714	3.47	0.52	12.137***
	중	3057	3.46	0.47	
	상	2397	3.53	0.51	
	합계	7168	3.49	0.50	
개방성	하	1713	3.69	0.61	24.753***
	중	3032	3.65	0.57	
	상	2377	3.76	0.59	
	합계	7122	3.70	0.59	
탐구성	하	1717	3.43	0.68	50.586***
	중	3058	3.44	0.64	
	상	2384	3.60	0.71	
	합계	7159	3.49	0.68	
객관성	하	1709	3.42	0.65	54.367***
	중	3060	3.43	0.58	
	상	2383	3.58	0.63	
	합계	7152	3.48	0.62	
체계성	하	1713	2.88	0.71	119.484***
	중	3053	2.93	0.66	
	상	2402	3.18	0.73	
	합계	7168	3.00	0.71	
자기신뢰성	하	1716	3.02	0.68	139.724***
	중	3050	3.06	0.62	
	상	2390	3.31	0.66	
	합계	7156	3.13	0.66	

③ 학교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 역량 차이분석

가. 학교설립 유형에 따른 비판적 사고 역량 차이분석

학교설립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 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45>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탐구성과 체계성을 제외한 4개 영역(진실추구성, 개방성, 객관성, 자기신뢰성)에서 청소년 비판적 사고역량에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사립학교 학생들은 국공립학생에 비하여 진실추구, 개방성, 자기 신뢰성 역량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V-45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비판적 사고역량 차이분석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진실추구성	사립	2466	3.51	0.49	2.991**
	국공립	4767	3.47	0.50	
개방성	사립	2464	3.74	0.59	4.989***
	국공립	4726	3.67	0.59	
탐구성	사립	2474	3.50	0.68	0.982
	국공립	4749	3.48	0.68	
객관성	사립	2467	3.50	0.63	2.421*
	국공립	4746	3.46	0.61	
체계성	사립	2473	3.02	0.72	1.388
	국공립	4754	2.99	0.70	
자기신뢰성	사립	2472	3.16	0.66	2.831**
	국공립	4735	3.12	0.66	

나. 학교유형(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비판적 사고 역량 차이분석

학교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 역량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역량에서 여학교 재학생의 비판적 사고 역량이 높게 나타난 반면, 체계성과 자기신뢰성에 있어서는 남학교 학생의 사고능력이 가장 높았다. 반면, 남녀공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비판적 사고역량 모든 영역에서 남 혹은 여 등 단일성의 학교 재학생에 비하여 비판적 사고역량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46 학교유형에 따른 비판적 사고역량 차이분석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t/F
진실추구성	남녀공학	5064	3.47	0.51	7.216**
	남학교	1106	3.50	0.49	
	여학교	1063	3.53	0.43	
	합계	7233	3.49	0.50	
개방성	남녀공학	5043	3.67	0.60	31.803***
	남학교	1094	3.71	0.57	
	여학교	1053	3.82	0.52	
	합계	7190	3.70	0.59	
탐구성	남녀공학	5057	3.48	0.69	4.715**
	남학교	1104	3.51	0.65	
	여학교	1062	3.54	0.66	
	합계	7223	3.49	0.68	
객관성	남녀공학	5050	3.45	0.63	13.042***
	남학교	1102	3.51	0.60	
	여학교	1061	3.55	0.57	
	합계	7213	3.48	0.62	
체계성	남녀공학	5066	2.99	0.71	4.164*
	남학교	1100	3.05	0.71	
	여학교	1061	3.03	0.70	
	합계	7227	3.00	0.71	
자기신뢰성	남녀공학	5048	3.12	0.67	5.783**
	남학교	1096	3.18	0.64	
	여학교	1063	3.17	0.61	
	합계	7207	3.13	0.66	

다. 학교급에 따른 비판적 사고 역량 차이분석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역량 역시 모든 영역에서 학교급에 따른 역량에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인문계/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은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사고 역량을 보였으며,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은 사고역량을 보였다. 이를 통해 전문계/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계중학교 학생들에 비하여 낮은 역량을 지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47 학교급에 따른 비판적 사고역량 차이분석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t/F
진실추구성	일반계중학교	3227	3.44	0.49	56.057***
	인문계/일반계고등학교	2920	3.56	0.44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1053	3.41	0.60	
	합계	7200	3.48	0.50	
개방성	일반계중학교	3200	3.63	0.58	192.614***
	인문계/일반계고등학교	2912	3.84	0.53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1045	3.49	0.66	
	합계	7157	3.69	0.59	
탐구성	일반계중학교	3208	3.48	0.70	29.613***
	인문계/일반계고등학교	2929	3.54	0.63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1053	3.35	0.70	
	합계	7190	3.49	0.68	
객관성	일반계중학교	3214	3.46	0.63	52.617***
	인문계/일반계고등학교	2914	3.54	0.57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1052	3.32	0.68	
	합계	7180	3.47	0.62	
체계성	일반계중학교	3220	2.99	0.73	25.849***
	인문계/일반계고등학교	2922	3.06	0.68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1052	2.88	0.71	
	합계	7194	3.00	0.71	
자기신뢰성	일반계중학교	3200	3.07	0.70	66.546***
	인문계/일반계고등학교	2924	3.24	0.60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1050	3.02	0.67	
	합계	7174	3.13	0.66	

4) 영향요인 분석(비판적 사고역량[2010])

(1)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모형

대한민국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내기 위하여 비판적 사고능력의 6개 하위역량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학교변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료를 통해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개인수준의 변수들과 학교수준의 변수들로 구별할 수 있었다. 즉, 제 1수준에 속하는 개인수준의 변수는 학생의 성별, 학교급 등의 개인변수와, 부모학력, 가구경제력, 부모와 대화의 질과 양의 가족변수 및 학교생활 변수(학교생활 및 적응)로 하였으며, 학교 전체의 분위기와 특성을 나타내는 학생의견 반영정도(개방성), 학습 분위기, 교직적용의 엄격성 등은 각 학교의 평균을 사용하여 제 2수준(학교변수)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분석을 위하여 집단의 각 단계별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HLM7을 활용하였다. HLM(Hierarchical Linear Model)은 여러 단계의 수준으로 나누어진 다층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여러 수준의 자료를 선형회귀분석 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의 기초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분석에는 총 6,356명의 학생과, 218개 학교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학교수준 변수의 경우, 개인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학교별 평균을 구하여 활용하였으며, 학생의견 반영정도, 학습 분위기에서는 5점 만점에 2.53, 2.67을 나타내 보통(3점) 이하로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교직의 엄격정도는 3.40으로 다소 엄격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의 다소 경직된 학교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표 IV-48 변수의 기초통계분석

독립변수 1수준 : 개인수준의 변수						
	변수	N	MEAN	SD	최소값	최대값
개인	성별	6356	0.50	0.50	0	1
	사립, 공립여부	6356	0.65	0.48	0	1
가족	부학력	6356	2.52	0.73	1	4
	모학력	6356	2.36	0.66	1	4
	가구경제력	6356	4.12	1.11	1	7

학교 생활	학교생활 전체만족도	6356	3.04	0.93	1	5
	학교적응(1) 즐겁다	6356	2.94	0.91	1	5
	학교적응(2) 전학 가고 싶다	6356	2.59	1.16	1	5
	학교적응(3) 미래긍정	6356	3.24	0.76	1	5
	학교적응(4) 휴학, 지각, 자퇴경험	6356	1.28	0.38	1	4
독립변수 2수준 : 학교관련 변수						
변수	N	MEAN	SD	최소값	최대값	
학생의견반영	218	2.53	0.90	1	5	
학습하기 좋은 분위기	218	2.67	0.96	1	5	
교칙의 엄격정도	218	3.40	1.04	1	5	
종속변수						
변수	N	MEAN	SD	최소값	최대값	
진실추구성	6356	3.50	0.48	1	5	
개방성	6356	3.71	0.57	1	5	
탐구성	6356	3.50	0.67	1	5	
객관성	6356	3.49	0.61	1	5	
체계성	6356	3.02	0.70	1	5	
자기신뢰성	6356	3.15	0.65	1	5	

대한민국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 및 학교수준의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1수준: 학생수준]

$$\begin{aligned}
 Y_{ij} = & \beta_0 + \beta_1*(\text{성별}_{ij}) + \beta_2*(\text{사립,공립유무}_{ij}) + \beta_3*(\text{부학력}_{ij}) \\
 & + \beta_4*(\text{모학력}_{ij}) + \beta_5*(\text{가구경제수준}_{ij}) + \beta_6*(\text{전체만족도}_{ij}) \\
 & + \beta_7*(\text{학교적응1}_{ij}) + \beta_8*(\text{학교적응2}_{ij}) \\
 & + \beta_9*(\text{학교적응3}_{ij}) + \beta_{10}*(\text{학교적응4}_{ij}) + r_{ij}
 \end{aligned}$$

위의 식은 제 1수준인 학생수준에서 종속변수인 비판적 사고능력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으로, 이때 투입된 독립변수들 모두 학생 개인수준의 변수로 학생특성 변수, 가정배경 변수, 학생활동 변수가 투입되었다.

[2수준 : 학교수준모형]

$$\begin{aligned}\beta_{0j} &= \gamma_{00} + \gamma_{01}*(\text{학생의견에 대한 개방성}) + \gamma_{02}*(\text{학습하기 좋은 분위기}) \\ &\quad + \gamma_{03}*(\text{학교교칙의 엄격정도}) + u_{0j} \\ \beta_{1j} &= \gamma_{10} \dots\end{aligned}$$

반면, 학교수준 변수들은 학교의 평균을 나타내는 β_{0j} 를 설명하는 데에만 포함된다. 설명변수로서의 학교수준 변수는 학생의견에 대한 반영정도(개방성), 학습분위기, 교칙의 엄격성 등 3개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2) 비판적 사고능력(1) : “진실 추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민국 청소년의 비판적 지식역량 중 “진실추구성”을 종속변수로 한 학교 내 변량과 학교 간 변량을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위계적 선형모형(HLM)에서 가장 단순한 모형인 일원변량분석 모형(the one-way ANOVA model)을 통해서 학생수준과 학교수준 각각에서 발생하는 성취도 변량의 비율을 산출한 것인데, 분산을 추정하기 위하여 학교수준(τ_{00})과 학생수준(σ^2) 분산 비율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준거변수의 전체 분산 중 학교간 차이에 의한 분산 비율 ($\frac{\tau_{00}}{\tau_{00} + \sigma^2}$)을 추정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진실추구역량 변인의 총 변량 중에서 학교수준에 따른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4.5%, 개인수준의 변량은 95.5%로 개인수준의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진실추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월등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한민국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능력 중의 하나인 진실추구성의 경우, 전체 분산의 4.5%는 학교차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는 개인수준에 의한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학교수준에 따른 진실추구성의 차이도 일정 부분 존재하고 있지만, 동일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 개개인 수준에서 진실추구성의 차이는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9 진실추구성 역량의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학교수준 변량(%)	0.010(4.5%)
개인수준 변량(%)	0.206(95.5%)
전체 분산	0.2161(100%)

이들의 자세한 영향요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아래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진실추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수준에서의 개인, 가정, 학교생활 변수 및 학교수준에서의 영향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수준에서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진실추구성이 높았으며, 부모와 대화의 양과 질이 높을수록, 학교가 즐겁고, 미래인식을 긍정적으로 할수록 진실추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학을 희망하거나, 학생의견 반영비율이 낮은 학교라는 인식이 강한 곳에서도 진실성이 높아, 비판적 의견을 솔직하게 제시하는 경우 역시 진실추구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50 진실추구성 역량의 학교분산에 대한 다층분석

고정효과			1수준(개인수준) + 2수준(학교수준)		
			회귀계수	표준오차	t 비율
전체평균			2.896***	0.150	19.253
학생 수준	학생 특성	성별(남=0,여=1)	-0.047**	0.017	-2.832
		사립국공립여부 (사립=0.국공립=1)	-0.018	0.023	-0.818
	가정 배경	부 학력	0.009	0.011	0.772
		모 학력	-0.006	0.013	-0.471
		가구경제력	-0.004	0.007	-0.611
		부모와 대화의 양과 질	0.070***	0.009	7.926

	학교에서의 학생 활동	학교생활 전체 만족도	0.005	0.010	0.509	
		학교적응 1 (수업즐겁다)	0.044***	0.010	4.567	
		학교적응 2 (전학희망정도)	0.040***	0.008	5.201	
		학교적응 3 (긍정적 인식)	0.135***	0.013	10.420	
		학교적응 4 (휴학,지각,결석,징계정도)	0.011***	0.022	0.497	
학교 수준	학교 환경 및 풍토	학생의견 반영정도	-0.127***	0.032	-4.007	
		학습분위기	0.015	0.021	0.709	
		하교교칙의 엄격정도	0.014	0.020	0.696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자유도	χ^2	p
학교수준 분산		0.099	0.010	214	505.085	<0.001
학생수준 분산		0.454	0.206			

(3) 비판적 사고능력(2) : “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51 개방성 역량의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학교수준 변량(%)	0.032(11.0%)
개인수준 변량(%)	0.257(89.0%)
전체 분산	0.289(100%)

개방성에 따른 학교수준의 변수는 전체변량의 11.0%, 개인수준의 변량은 89.0%로 진실추구성에 비하여 조직(학교변수)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청소년의 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세한 영향요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52 개방성 역량의 학교분산에 대한 다층분석

고정효과			1수준(개인수준) + 2수준(학교수준)			
			회귀계수	표준오차	t 비율	
전체평균			3.025***	0.195	15.473	
학생수준	학생 특성	성별(남=0, 여=1)	0.101***	0.020	5.062	
		사립공립 여부 (사립=0, 공립=1)	-0.041	0.036	-1.144	
	가정 배경	부학력	0.029*	0.012	2.376	
		모학력	- 0.000	0.013	-0.012	
		가구경제력	- 0.017*	0.008	-2.028	
		부모와 대화의 양과 질	0.091***	0.009	9.743	
	학교 에서의 학생 활동	학교생활 전체 만족도	- 0.000	0.011	-0.031	
		학교적응 1 (수업 즐겁다)	0.069***	0.010	6.577	
		학교적응 2 (전학희망정도)	0.026**	0.008	3.055	
		학교적응 3 (긍정적 인식)	0.168***	0.014	12.355	
		학교적응 4 (휴학,지각,결석,징계정도)	-0.039	0.021	-1.893	
학교수준	학교 환경 및 풍토	학생의견 반영정도	-0.229***	0.047	-4.859	
		학습분위기	0.111***	0.030	3.649	
		학교교칙의 엄격정도	0.005	0.032	0.166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자유도	X ²	p
학교수준 분산		0.17851	0.03187	214	955.12	<0.001
학생수준 분산		0.50733	0.25738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개방성이 높았으며, 부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대화의 양과 질이 높을수록 개방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생활의 적응을 잘하고 수업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학생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생의 경우 개방성이 높았다. 반면, 학교수준의 변수를 살펴보면, 학생의견이 학교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이 낮은 학교 학생들과 학교의 분위기가 학습하기 좋은 학교의 학생들의 경우, 청소년의 개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4) 비판적 사고능력(3) : “탐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탐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분산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수준의 변수는 전체변량의 2.7%, 반면, 개인수준의 변량은 97.3%로 개인수준의 변수가 청소년의 탐구성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53 탐구성 역량의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학교수준 변량(%)	0.010(2.7%)
개인수준 변량(%)	0.371(97.3%)
전체 분산	0.381(100%)

자세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54 탐구성 역량의 학교분산에 대한 다층분석

고정효과			1수준(개인수준) + 2수준(학교수준)		
			회귀계수	표준오차	t 비율
전체평균			2.091***	0.150	13.911
학생수준	학생 특성	성별(남=0, 여=1)	-0.052*	0.026	-1.999
		사립공립여부 (사립=0, 공립=1)	-0.018	0.025	-0.734
	가정 배경	부 학력	0.001	0.014	0.104
		모 학력	0.041*	0.016	2.540
		가구경제력	0.019*	0.009	2.072
		부모와 대화의 양과 질	0.128***	0.013	10.160

	학교에서의 학생 활동	학교생활 전체 만족도	-0.020	0.012	-1.634	
		학교적응 1 (수업즐거움)	0.132***	0.013	10.339	
		학교적응 2 (전학희망정도)	0.037***	0.009	4.301	
		학교적응 3 (긍정적 인식)	0.215***	0.014	14.942	
		학교적응 4 (휴학, 지각, 결석, 징계정도)	-0.022	0.025	-0.894	
학교수준	학교 환경 및 풍토	학생의견 반영정도	-0.090	0.039	-2.333	
		학습 분위기	-0.000	0.027	-0.017	
		학교교칙의 엄격정도	0.027	0.023	1.186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자유도	X ²	p
학교수준 분산		0.102	0.010	214	385.328	<0.001
학생수준 분산		0.609	0.371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하여 탐구성이 높았으며, 모 학력, 가구경제력, 부모와의 대화수준 등 가정배경 환경이 청소년의 탐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생활이 즐겁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등 학교에 적응을 잘하는 경우 이들의 탐구성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학교수준의 변수는 청소년의 탐구성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5) 비판적 사고능력(4) :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객관성 분산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수준 분산은 전체변량의 3.9%, 개인수준의 변량은 96.1%로 다른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수준(조직수준)에 미하여 개인수준의 변수가 청소년의 객관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월등히 높았다.

표 IV-55 객관성역량의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학교수준 변량(%)	0.013(3.9%)
개인수준 변량(%)	0.311(96.1%)
전체 분산	0.324(100)

자세한 영향요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56 객관성 역량의 학교분산에 대한 다층분석

고정효과			1수준(개인수준) + 2수준(학교수준)			
			회귀계수	표준오차	t 비율	
전체평균			2.533***	0.163	15.521	
학 생 수 준	학생 특성	성별(남=0, 여=1)	0.002	0.022	0.109	
		사립공립여부 (사립=0, 공립=1)	-0.020	0.026	-0.775	
	가정 배경	부 학력	0.028*	0.013	2.161	
		모 학력	0.008	0.014	0.550	
		가구경제력	0.015	0.008	1.868	
		부모와 대화의 양과 질	0.091***	0.011	8.457	
	학교 에서의 학생 활동	학교생활 전체 만족도	-0.004	0.012	-0.355	
		학교적응 1 (수업 즐겁다)	0.064***	0.012	5.532	
		학교적응 2 (전학희망정도)	0.017*	0.008	2.013	
		학교적응 3 (긍정적 인식)	0.183***	0.014	12.812	
		학교적응 4 (휴학, 지각, 결석, 징계정도)	-0.081***	0.022	-3.710	
학 교 수 준	학교 환경 및 풍토	학생의견 반영정도	-0.140***	0.038	-3.677	
		학습 분위기	0.068**	0.025	2.784	
		학교교칙의 엄격정도	0.022	0.023	0.964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자유도	X ²	p
학교수준 분산		0.112	0.013	214	460.933	<0.001
학생수준 분산		0.558	0.311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수준에서의 개인, 가정, 학교생활 변수 및 학교수준에서의 영향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가정배경 중 아버지의 학력은 청소년의 객관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부모와의 대화가 많을수록 자녀의 객관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학교생활 경험 중 학교적응은 수업이 즐겁거나, 긍정적인 인식이 객관성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에서의 휴학, 정학, 처벌 등의 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객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학교수준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학교의 학습 분위기가 좋은 경우와, 학생의견이 학교에 반영되는 비율이 낮은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객관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비판적 사고능력(5) : “체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으로 청소년 비판적 사고역량의 체계성 분산결과는 아래와 같다(학교수준 2.6%, 개인수준 97.4%). 체계성 분산결과 역시 다른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수준에 의한 작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57 체계성역량의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학교수준 변량(%)	0.012(2.6%)
개인수준 변량(%)	0.429(97.4%)
전체 분산	0.441(100%)

자세한 영향요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체계적이었으며, 가정배경의 모든 변수는 청소년의 체계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학교적응 역시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학교생활에 잘 긍정하는 학생들이 체계성 역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58 체계성 역량의 학교분산에 대한 다층분석

고정효과			1수준(개인수준) + 2수준(학교수준)			
			회귀계수	표준오차	t 비율	
전체평균			1.713***	0.155	11.071	
학생수준	학생 특성	성별(남=0, 여=1)	-0.139***	0.026	-5.351	
		사립공립여부 (사립=0, 공립=1)	-0.037	0.024	-1.508	
	가정 배경	부 학력	0.051**	0.016	3.221	
		모 학력	0.046**	0.017	2.732	
		가구경제력	0.059***	0.009	6.402	
		부모와 대화의 양과 질	0.135***	0.012	10.838	
	학교 에서의 학생 활동	학교생활 전체 만족도	-0.018	0.014	-1.299	
		학교적응 1 (수업즐겁다)	0.100***	0.013	7.499	
		학교적응 2 (전학희망정도)	0.038***	0.010	3.887	
		학교적응 3 (긍정적 인식)	0.124***	0.016	7.539	
		학교적응 4 (휴학, 지각, 결석, 징계정도)	-0.010	0.024	-0.401	
학교수준	학교 환경 및 풍토	학생의견 반영정도	-0.130**	0.040	-3.244	
		학습 분위기	0.052	0.034	1.551	
		학교교칙의 엄격정도	0.002	0.025	0.078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자유도	X ²	p
학교수준 분산		0.108	0.012	214	380.915	<0.001
학생수준 분산		0.655	0.429			

(7) 비판적 사고능력(6) : “자기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자기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자기신뢰성 전체분산의 학교수준 분산은 전체의 5.4%, 개인수준의 변량은 전체의 94.6%를 나타냈다.

표 IV-59 자기신뢰성 역량의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학교수준 변량(%)	0.020(5.4%)
개인수준 변량(%)	0.353(94.6%)
전체 분산	0.373(100%)

이들의 영향요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60 자기신뢰성 역량의 학교분산에 대한 다층분석

고정효과			1수준(개인수준) + 2수준(학교수준)		
			회귀계수	표준오차	윤고딕330
전체평균			2.172***	0.179	12.149
학생수준	학생특성	성별(남=0, 여=1)	-0.083***	0.023	-3.554
		사립공립여부 (사립=0, 공립=1)	-0.049	0.029	-1.721
	가정배경	부 학력	0.036**	0.014	2.604
		모 학력	0.038*	0.015	2.457
		가구경제력	0.064***	0.009	6.769
		부모와 대화의 양과 질	0.136***	0.013	10.445
	학교에서의 학생활동	학교생활 전체 만족도	-0.010	0.013	-0.819
		학교적응 1 (수업즐거움)	0.114***	0.012	9.315
		학교적응 2 (전학희망정도)	0.028**	0.009	3.065
		학교적응 3 (긍정적 인식)	0.092***	0.014	6.532
		학교적응 4 (휴학, 지각, 결석, 징계정도)	0.005	0.023	0.197

학 교 수 준	학교 환경 및 풍토	학생의견 반영정도	-0.250***	0.046	-5.431	
		학습 분위기	0.093**	0.034	2.740	
		학교교칙의 엄격정도	-0.013	0.027	-0.462	
무선희과		표준편차	변량	자유도	X ²	p
학교수준 분산		0.143	0.020	214	570.243	<0.001
학생수준 분산		0.594	0.353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기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성별(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높음), 부모학력 및 가구 경제력, 부모와의 대화의 양과 질 등의 모든 가정배경 변수 및 학교적응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학교생활 변수 중에서는 학습 분위기가 좋은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의견 반영은 적은 학교일수록 자기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5) 요약 및 소결

청소년 핵심역량조사는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사회의식 역량을 비롯한 핵심역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연구자료로서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핵심역량은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특히, 자율적 행동과 관계지향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 소속감과 삶의 만족도는 고교생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 비하여 고등학생의 만족도는 현저하게 낮았으며, 이들의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접촉의 양과 질,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역시 다른 집단에 비하여 낮았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입시부담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 가족관계 변수는 삶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아버지학력, 어머니학력, 그리고 가구경제수준 등 모든 가족변수 영역에서 각각의 변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삶의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경제력의 경우, 자기 집의 경제적 수준이 “하” 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에 비하여 “상” 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점수가 월등히 높았는데,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수준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이들의 민주시민 의식 특성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높은 편이나 기본적인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지식수준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치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청소년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으며 국민은 정부를 비판할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92.0%로 나타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민주적 의사결정보다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청소년이 19.5%, 민주주의가 아니더라도 모두 잘 살 수 있으면 된다는 응답이 18.5%,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0.8%에 달해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 대한 지식은 부족함이 발견되었다.

다섯째, 가족관계 변수는 일반 핵심역량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은 정치에 관심이 높았으며, 민주시민 역량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아동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는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역량 차이분석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는 비율이 낮아, 민주시민 의식을 올바르게 가질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개인수준과 학교수준 등 2개 수준의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변수에서 개인수준의 변수에 의한 영향이 학교수준의 변수에 의한 영향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하위변수에서 학교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5% 미만으로 매우 미약하게 나타났다.

2. ICCS 조사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분석 (한국)

대한민국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9년도 ICCS자료를 활용하여 기초통계분석 및 차이분석을 실시했다. 전체 학생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 5,25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 기초 분석

①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전체의 56.6%(2,968명), 여학생은 43.4%(2,275명)였으며, 이들의 향후 기대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이상” 이 76.1%(3,974명), “전문대학 졸업” 이 15.5%(809명)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기대하고 있었다. 가족관계 변수를 살펴보면, 전체학생 중 99.7%가 어머니 국적이 한국, 99.8%가 아버지 국적이 한국으로 대부분의 학생부모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인 99.7%가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어머니 학력은 고교졸업이 56.7%(2,957명)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28.4%, 1,482명), 전문대학 졸업이(8.1%, 442명) 그 뒤를 따랐다. 아버지 학력 역시 고교졸업이 42.7%(2,213명),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39.15, 2,024명), 전문대학 졸업(11.5%, 595명)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전체의 74.0%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11.3% 매우관심, 62.7% 다소관심) 아버지는 88.0%가 관심을 보였다(27.2% 매우관심, 59.8% 다소관심).

표 IV-6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

구분		변수	N	%
학생 변수	성별	남학생	2968	56.6
		여학생	2275	43.4
		합계	5243	100
	기대교육수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3974	76.1
		전문대학 졸업	809	15.5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졸업	388	7.4
		중학교 졸업	40	0.8
		중학교 중퇴	8	0.2
		합계	5219	100
가족 관계 변수	어머니 국적 (태어난 나라)	다른 나라	13	0.3
		대한민국	5185	99.7
		합계	5198	100

구분		변수	N	%
가족 관계 변수	아버지 국적 (태어난 나라)	다른 나라	9	0.2
		대한민국	5168	99.8
		합계	5177	100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다른 나라	18	0.3
		대한민국	5229	99.7
		합계	5247	100
	어머니 학력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	1482	28.4
		전문대학 졸업	422	8.1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졸업	2957	56.7
		중학교 졸업	239	4.6
		초등학교 졸업	85	1.6
		초등학교 중퇴	29	0.6
		합계	5214	100
	아버지 학력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	2024	39.1
		전문대학 졸업	595	11.5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졸업	2213	42.7
		중학교 졸업	236	4.6
		초등학교 졸업	89	1.7
		초등학교 중퇴	24	0.5
		합계	5181	100
	정치사회이슈의관 심정도 (어머니)	매우 관심 있음	589	11.3
		다소 관심 있음	3271	62.7
		다소 관심 없음	1273	24.4
		매우 관심 없음	84	1.6
		합계	5217	100
	정치사회이슈의 관심 정도 (아버지)	매우 관심 있음	1408	27.2
		다소 관심 있음	3099	59.8
		다소 관심 없음	618	11.9
		매우 관심 없음	54	1.0
		합계	5179	100

② 학교교육 관련 변수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과 관련된 학교변수는 학교 내 활동에의 참여정도, 학급토론에 대한 개방성 인식, 학교에서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가. 학교 내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정도

학교 내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많은 학생들이 반장/학생회 임원 투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활동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2 학교에서의 활동에 대한 참여

		지난 1년동안 하였음	1년 전에 활동 하였음	전혀 하지 않음	합계
방과 후 학교의 음악활동과 드라마 활동에 자발적 참여	N	537	662	4034	5233
	%	10.3	12.7	77.1	100
토론에 적극적 참여	N	654	1038	3515	5207
	%	12.6	19.9	67.5	100
반장/학생회 임원 투표	N	2848	1119	1238	5205
	%	54.7	21.5	23.8	100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N	887	829	3496	5212
	%	17.0	15.9	67.1	100
학생회 토론 참여	N	681	676	3868	5225
	%	13.0	12.9	74.0	100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N	854	844	3519	5217
	%	16.4	16.2	67.5	100

구체적인 학교활동 참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방과 후 학교의 음악활동과 드라마 활동에 자발적 참여” 는 10.3%인 537명이 지난 1년 동안 참여하였다고 하였으며, 77.1%인 4,034명은 전혀 활동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토론에 적극적 참여” 하는 학생들은 전체 학생의 12.6%인 654명,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는 17.8%(887명), “학생회 토론 참여” 는 13.0%(681명),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는 16.4%가 지난 1년 동안 참여하여, 대부분의 항목에서 10~20%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학급토론에의 개방성에 대한 인식은 일부 수업 이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3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전혀 일어 나지 않음	일부 수업 에서 일어남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종종 수업에서 일어남	합계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N	959	2129	1598	544	5230
	%	18.3	40.7	30.6	10.4	100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격려한다.	N	1089	2077	1416	646	5228
	%	20.8	39.7	27.1	12.4	100
선생님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N	1007	1936	1502	782	5227
	%	19.3	37.0	28.7	15.0	100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N	3103	1494	478	154	5229
	%	59.3	28.6	9.1	2.9	100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습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N	1521	1968	1206	531	5226
	%	29.1	37.7	23.1	10.2	100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	N	2594	1651	750	230	5225
	%	49.6	31.6	14.4	4.4	100
선생님들이 학습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관점을 제시해 준다.	N	1788	1957	1085	397	5227
	%	34.2	37.4	20.8	7.6	100

특히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격려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등의 학습차원에서의 일반적인 토론은 수업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는 질문에는 59.3%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는 49.6%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여 적극적인 토론비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학교에서의 영향력

학생들의 의견이 실제 학교정책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결과, 학교 시간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요소에서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행정에 반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교수법(선생님의 수업방식 또는 수업방법)”, “수업내용” “학급수칙” 에 학생 자신의 의견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높았다.

표 IV-64 학교에서의 영향력

		많이 반영됨	보통 반영됨	조금 반영됨	전혀 반영되지 않음	합계
교수법 (선생님의 수업방식 또는 수업방법)	N	372	1331	1592	1942	5237
	%	7.1	25.4	30.4	37.1	100
수업내용	N	478	1458	1523	1771	5230
	%	9.1	27.9	29.1	33.9	100
교과서 및 학습자료	N	554	1301	1285	2088	5228
	%	10.6	24.9	24.6	39.9	100
수업시간표	N	355	851	1038	2986	5230
	%	6.8	16.3	19.8	57.1	100
학급수칙	N	388	1310	1609	1923	5230
	%	7.4	25.0	30.8	36.8	100
학교규칙	N	433	1029	1459	2310	5231
	%	8.3	19.7	7.9	44.2	100
방과 후 활동	N	614	1095	1300	2227	5236
	%	11.7	20.9	24.8	42.5	100

라.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

학생들의 교사 및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특히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를 공정하게 대해준다.” 73.7%, “학생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잘 지낸다.” 77.1%,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복지에 관심을 갖는다.” 55.4%, “대부분이 선생님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경청해준다.” 61.1%,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들은 내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82.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우리학교 아웃사이더인 것 같다” 9.5%, “다른 학생들이 나를 때릴까봐 두렵다” 8.5%가 동의하고 있어, 10% 내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IV-65 교사 및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합계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를 공정하게 대해준다.	N	568	3296	1051	324	5239
	%	10.8	62.9	20.1	6.2	100
학생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잘 지낸다.	N	613	3425	1001	198	5237
	%	11.7	65.4	19.1	3.8	100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복지에 관심을 갖는다.	N	334	2557	1835	507	5233
	%	6.4	48.9	35.1	9.7	100
나는 우리학교 아웃사이더인 것 같다.	N	64	434	1879	2849	5226
	%	1.2	8.3	36.0	54.5	100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경청해준다.	N	372	2826	1616	419	5233
	%	7.1	54.0	30.9	8.0	100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들은 내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N	997	3327	674	241	5239
	%	19.0	63.5	12.9	4.6	100
다른 학생들이 나를 때릴까봐 두렵다.	N	83	362	1437	3354	5236
	%	1.6	6.9	27.4	64.1	100

마.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에 대한 의견

대한민국 학생들은 학생참여를 통하여 학교경영을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운영방법에 대한 학생참여는 학교를 더 좋게 만든다” 82%, “학생들과 함께 작업할 경우 긍정적인 학교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85.9%, “학생들을 대변하는 학생조직은 학교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77.8%, “학생들이 혼자보다는 함께 행동한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질문에 88.4%가 동의하고 있었다. 반면 “모든 학교는 학생회를 가져야만 한다” 에는 60.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6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에 대한 의견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합계
학교운영방법에 대한 학생참여는 학교를 더 좋게 만든다.	N	1432	2868	676	263	5239
	%	27.3	54.7	12.9	5.0	100
학생들과 함께 작업할 경우 긍정적인 학교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N	1355	3140	561	180	5236
	%	25.9	60.0	10.7	3.4	100
학생들을 대변하는 학생조직은 학교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N	1053	3018	876	287	5234
	%	20.1	57.7	16.7	5.5	100
모든 학교는 학생회를 가져야만 한다.	N	893	2293	1624	423	5233
	%	17.1	43.8	31.0	8.1	100
학생들이 혼자보다는 함께 행동한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	1705	2919	414	197	5235
	%	32.6	55.8	7.9	3.8	100

바. 학교 변인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

마지막으로 학교교육 및 환경 관련 변수들을 IRT척도로 변환한 자료를 살펴보면, “교사 및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 45.86점, “학생참여에 대한 가치”는 45.65점, “학교에서의 참여”는 45.43점을 보였으며, “학교에서의 영향력”은 43.23점을 보였다. 반면,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은 38.09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하여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IV-67 학교 변인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학교 변인	학교에서의 참여	5235	28	78	45.43	11.10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5230	15	79	38.09	10.61
	학교에서의 영향력	5234	27	74	43.23	10.29
	학생_교사의 관계	5238	18	74	45.86	8.60
	학생참여에 대한 가치	5235	15	70	45.65	10.43

③ 민주 시민의식 역량 : 시민사회 역량

가.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민주시민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시민사회 역량에 대한 응답을 확인한 결과, 학생들은 사회의 모습이 다음<표 IV-68>과 같아야 한다는 이상향을 가지고 있었다.

표 IV-68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합계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N	3343	1771	83	40	5237
	%	63.8	33.8	1.6	0.8	100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N	936	2027	1849	415	5227
	%	17.9	38.8	35.4	7.9	100
기업이나 정부가 모든 신문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N	2372	1952	712	195	5231
	%	45.3	37.3	13.6	3.7	100
경찰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을 재판용 통째 감옥에 가둘 권리를 가져야 한다.	N	437	892	2,381	1,522	5232
	%	8.4	17.0	45.5	29.1	100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N	3632	1425	120	53	5230
	%	69.4	27.2	2.3	1.0	100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N	2422	2179	524	100	5225
	%	46.4	41.7	10.0	1.9	100
안전요원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해야 한다.	N	1085	2534	1232	377	5228
	%	20.8	48.5	23.6	7.2	100
모든 시민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N	3456	1658	88	35	5237
	%	66.0	31.7	1.7	0.7	100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N	3489	1614	98	34	5235
	%	66.6	30.8	1.9	0.6	100
정치적 항의는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N	3073	1860	217	84	5234
	%	58.7	35.5	4.1	1.6	100
빈부간의 소득경차는 적어야 한다.	N	2478	2205	441	111	5235
	%	47.3	42.1	8.4	2.1	100
국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 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	N	1178	2579	976	501	5234
	%	22.5	49.3	18.6	9.6	100

분석결과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모든 시민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항의는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는 의견에는 90% 이상의 동의를 보였다.

나.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

먼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의 기초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69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합계
모든 선거 참여	N	3288	1781	115	54	5238
	%	62.8	34.0	2.2	1.0	100
정당단체 가입	N	411	2784	1803	236	5234
	%	7.9	53.2	34.4	4.5	100
역사학습	N	1286	2652	1089	210	5237
	%	24.6	50.6	20.8	4.0	100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상의 정치이슈 주시	N	2175	2642	325	94	5236
	%	41.5	50.5	6.2	1.8	100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N	366	1861	2,260	746	5233
	%	7.0	35.6	43.2	14.3	100
정치토론 참여	N	1054	2911	1030	232	5227
	%	20.2	55.7	19.7	4.4	100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	N	2531	2190	394	119	5234
	%	48.4	41.8	7.5	2.3	100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	N	1400	2980	714	134	5228
	%	26.8	57.0	13.7	2.6	100
인권 증진 운동 참여	N	1745	2636	702	147	5230
	%	33.4	50.4	13.4	2.8	100
환경보호운동 참여	N	2091	2510	498	134	5233
	%	40.0	48.0	9.5	2.6	100
열심히 일하기	N	2755	2085	316	80	5236
	%	52.6	39.8	6.0	1.5	100
항상 법을 준수하기	N	2834	2046	279	76	5235
	%	54.1	39.1	5.3	1.5	100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 청소년의 경우,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으로 “모든 선거 참여”,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상의 정치이슈 주시”,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 “열심히 일하기”, “항상 법을 준수하기” 의 문항에 90% 이상의 학생이 중요하다는 응답을 보인 반면, “정당단체 가입”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다. 민주시민 역량(종합) 변수 기초통계분석

민주시민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시민의식 지식관련 역량을 IRT로 척도화한 인지영역 점수로 평균 500, 표준편차 100로 계산한 5개의 시민의식 지식의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 560점 전후로 나타났으며, 성인이 되었을 때 선거에 참여할지를 IRT로 척도화(WLE) 한 것으로 평균을 50, 표준편차를 10으로 재계산한 선거참여 의지는 평균 48.52로 나타났다.

표 IV-70 민주 시민 역량(종합) 변수 기초통계분석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민주 시민 역량	시민의식 지식(1)	5254	259	807	565.19	80.15
	시민의식 지식(2)	5254	192	854	566.07	80.58
	시민의식 지식(3)	5254	260	900	565.98	80.26
	시민의식 지식(4)	5254	205	830	565.66	80.75
	시민의식 지식(5)	5254	227	825	565.91	81.55
	미래투표의도	5230	24	63	48.52	8.94

(2)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한국)

① 성별에 따른 학교교육관련 변수 차이분석

가. 성별에 따른 학교활동 참여의 차이분석

성별에 따른 학교 내 활동 참여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토론에 적극적 참여” 및 “학생회 토론참여”를 제외한 교내 다양한 활동에서 남녀 학생간의 활동참여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활동여부를 살펴보면, “음악활동과 드라마 활동”, “반장/학생회 임원투표”,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활동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71 성별에 따른 학교활동 참여의 차이분석

		남학생		여학생		전체		χ^2
		N	%	N	%	N	%	
음악 활동과 드라마 활동	지난 1년 동안 활동하였음.	235	7.9	301	13.3	536	10.3	84.597 ***
	1년 전에 활동하였음.	304	10.3	356	15.7	660	12.6	
	전혀 활동하지 않았음.	2419	81.8	1611	71.0	4030	77.1	
	전체	2958	100	2268	100	5226	100	
토론에 적극적 참여	지난 1년 동안 활동하였음.	369	12.5	285	12.6	654	12.6	2.743
	1년 전에 활동하였음.	564	19.1	472	20.9	1036	19.9	
	전혀 활동하지 않았음.	2013	68.3	1498	66.4	3511	67.5	
	전체	2946	100	2255	100	5201	100	
반장/ 학생회 임원 투표	지난 1년 동안 활동하였음.	1527	51.8	1316	58.5	2843	54.7	59.740 ***
	1년 전에 활동하였음.	602	20.4	517	23.0	1119	21.5	
	전혀 활동하지 않았음.	819	27.8	418	18.6	1237	23.8	
	전체	2948	100	2251	100	5199	100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 정	지난 1년 동안 활동하였음.	457	15.5	427	18.9	884	17.0	13.817 **
	1년 전에 활동하였음.	454	15.4	374	16.6	828	15.9	
	전혀 활동하지 않았음.	2037	69.1	1457	64.5	3494	67.1	
	전체	2948	100	2258	100	5206	100	
학생회 토론참 여	지난 1년 동안 활동하였음.	392	13.3	288	12.7	680	13.0	4.972
	1년 전에 활동하였음.	356	12.1	320	14.1	676	13.0	
	전혀 활동하지 않았음.	2206	74.7	1657	73.2	3863	74.0	
	전체	2954	100	2265	100	5219	100	
반장/ 학생회 임원 출마	지난 1년 동안 활동하였음.	482	16.3	370	16.4	852	16.4	10.010 **
	1년 전에 활동하였음.	437	14.8	406	18.0	843	16.2	
	전혀 활동하지 않았음.	2034	68.9	1482	65.6	3516	67.5	
	전체	2953	100	2258	100	5211	100	

나. 성별에 따른 학급토론에의 개방성 인식의 차이분석

성별에 따른 학급토론에의 개방성 인식의 차이분석 결과, 기초통계 분석에서 낮은 개방성을 보인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토론을 권장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서 성별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공개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비 동의할 수 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습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에서 여학생의 응답이 남학생보다 높아, 이들의 학급토론이 개방적으로 일어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표 IV-72 성별에 따른 학급토론에의 개방성 인식의 차이분석

		남학생		여학생		전체		X ²
		N	%	N	%	N	%	
공개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비동의	전혀 일어나지 않음	636	21.5	321	14.2	957	18.3	48.436***
	일부 수업에서 일어남	1,146	38.8	981	43.3	2,127	40.7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863	29.2	732	32.3	1,595	30.5	
	종종수업에서 일어남	312	10.6	232	10.2	544	10.4	
	전체	2,957	100	2,266	100	5,223	100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격려한다.	전혀 일어나지 않음	660	22.3	427	18.8	1,087	20.8	16.417**
	일부 수업에서 일어남	1,122	38.0	952	42.0	2,074	39.7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825	27.9	590	26.0	1,415	27.1	
	종종수업에서 일어남	348	11.8	298	13.1	646	12.4	
	전체	2,955	100	2,267	100	5,222	100	
선생님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전혀 일어나지 않음	625	21.2	380	16.8	1,005	19.2	30.018***
	일부 수업에서 일어남	1,069	36.2	866	38.2	1,935	37.1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871	29.5	628	27.7	1,499	28.7	
	종종수업에서 일어남	390	13.2	392	17.3	782	15.0	
	전체	2,955	100	2,266	100	5,221	100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전혀 일어나지 않음	1,746	59.1	1,353	59.7	3,099	59.3	6.431
	일부 수업에서 일어남	825	27.9	668	29.5	1,493	28.6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289	9.8	189	8.3	478	9.2	
	종종수업에서 일어남	96	3.2	57	2.5	153	2.9	
	전체	2,956	100	2,267	100	5,223	100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습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전혀 일어나지 않음	936	31.7	583	25.7	1,519	29.1	22.107***
	일부 수업에서 일어남	1,074	36.4	891	39.3	1,965	37.6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654	22.1	551	24.3	1,205	23.1	
	종종수업에서 일어남	290	9.8	241	10.6	531	10.2	
	전체	2,954	100	2,266	100	5,220	100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토론권장	전혀 일어나지 않음	1,489	50.4	1,101	48.6	2,590	49.6	3.461
	일부 수업에서 일어남	903	30.6	747	33.0	1,650	31.6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428	14.5	322	14.2	750	14.4	
	종종수업에서 일어남	133	4.5	96	4.2	229	4.4	
	전체	2,953	100	2,266	100	5,219	100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	전혀 일어나지 않음	1,090	36.9	695	30.7	1,785	34.2	25.963***
	일부 수업에서 일어남	1,045	35.4	910	40.2	1,955	37.4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615	20.8	469	20.7	1,084	20.8	
	종종수업에서 일어남	206	7.0	191	8.4	397	7.6	
	전체	2,956	100	2,265	100	5,221	100	

다.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 인식정도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현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73>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급수칙을 제외하고 남녀 간 응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다수의 항목에서 남학생의 긍정응답이 여학생보다 다소 높아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표 IV-73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 인식정도

		남학생		여학생		전체		χ^2
		N	%	N	%	N	%	
교수법 (선생님의 수업방식 또는 수업방법)	많이 반영됨	235	7.9	136	6.0	371	7.1	18.097***
	보통 반영됨	786	26.5	544	24.0	1330	25.4	
	조금 반영됨	903	30.5	686	30.2	1589	30.4	
	전혀 반영 되지 않음	1037	35.0	903	39.8	1940	37.1	
	전체	2961	100	2269	100	5230	100	
수업내용	많이 반영됨	323	10.9	155	6.8	478	9.2	34.036***
	보통 반영됨	833	28.2	624	27.5	1457	27.9	
	조금 반영됨	867	29.3	652	28.8	1519	29.1	
	전혀 반영 되지 않음	935	31.6	835	36.8	1770	33.9	
	전체	2958	100	2266	100	5224	100	
교과서 및 학습자료	많이 반영됨	346	11.7	207	9.1	553	10.6	17.686**
	보통 반영됨	750	25.4	550	24.3	1300	24.9	
	조금 반영됨	745	25.2	538	23.8	1283	24.6	
	전혀 반영 되지 않음	1117	37.8	969	42.8	2086	39.9	
	전체	2958	100	2264	100	5222	100	
수업 시간표	많이 반영됨	247	8.4	108	4.8	355	6.8	87.110***
	보통 반영됨	501	16.9	348	15.4	849	16.3	
	조금 반영됨	673	22.8	364	16.1	1037	19.9	
	전혀 반영 되지 않음	1536	51.9	1447	63.8	2983	57.1	
	전체	2957	100	2267	100	5224	100	
학급수칙	많이 반영됨	234	7.9	154	6.8	388	7.4	3.135
	보통 반영됨	750	25.4	558	24.6	1308	25.0	
	조금 반영됨	901	30.5	707	31.2	1608	30.8	
	전혀 반영 되지 않음	1072	36.3	848	37.4	1920	36.8	
	전체	2957	100	2267	100	5224	100	
학교규칙	많이 반영됨	297	10.0	136	6.0	433	8.3	30.154***
	보통 반영됨	589	19.9	437	19.3	1026	19.6	
	조금 반영됨	813	27.5	645	28.4	1458	27.9	
	전혀 반영 되지 않음	1258	42.5	1050	46.3	2308	44.2	
	전체	2957	100	2268	100	5225	100	
방과후 활동	많이 반영됨	353	11.9	260	11.5	613	11.7	15.161*
	보통 반영됨	574	19.4	520	22.9	1094	20.9	
	조금 반영됨	715	24.2	582	25.6	1297	24.8	
	전혀 반영 되지 않음	1318	44.5	908	40.0	2226	42.6	
	전체	2960	100	2270	100	5230	100	

라. 성별에 따른 학생-교사의 관계

성별에 따른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경청해 주신다” 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남녀 간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학생들이 나를 때릴까 봐 두렵다” 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남학생은 11.7%인 반면, 여학생은 4.4%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는 우리학교의 아웃사이더인 것 같다” 라는 질문 역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그렇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 남학생의 학교 부적응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IV-74 성별에 따른 학생-교사의 관계

		남학생		여학생		전체		X ²
		N	%	N	%	N	%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를 공정하게 대해 주신다.	매우 동의함	352	11.9	216	9.5	568	10.9	27.043***
	동의함	1875	63.3	1416	62.4	3291	62.9	
	동의하지 않음	532	18.0	518	22.8	1050	20.1	
	전혀 동의하지 않음	203	6.9	120	5.3	323	6.2	
	전체	2962	100	2270	100	5232	100	
학생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잘 지낸다.	매우 동의함	375	12.7	238	10.5	613	11.7	11.338*
	동의함	1887	63.7	1534	67.6	3421	65.4	
	동의하지 않음	577	19.5	423	18.6	1000	19.1	
	전혀 동의하지 않음	123	4.2	74	3.3	197	3.8	
	전체	2962	100	2269	100	5231	100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 복지에 관심을 갖는다.	매우 동의함	208	7.0	126	5.6	334	6.4	12.478*
	동의함	1434	48.5	1121	49.4	2555	48.9	
	동의하지 않음	1005	34.0	828	36.5	1833	35.1	
	전혀 동의하지 않음	312	10.5	193	8.5	505	9.7	
	전체	2959	100	2268	100	5227	100	
나는 우리학교의 아웃사이더인 것 같다.	매우 동의함	51	1.7	12	0.5	63	1.2	17.786***
	동의함	255	8.6	179	7.9	434	8.3	
	동의하지 않음	1035	35.0	843	37.3	1878	36.0	
	전혀 동의하지 않음	1617	54.7	1228	54.3	2845	54.5	
	전체	2958	100	2262	100	5220	100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경청해 주신다.	매우 동의함	225	7.6	147	6.5	372	7.1	6.162
	동의함	1576	53.3	1248	55.0	2824	54.0	
	동의하지 않음	904	30.6	709	31.3	1613	30.9	
	전혀 동의하지 않음	254	8.6	164	7.2	418	8.0	
	전체	2959	100	2268	100	5227	100	

		남학생		여학생		전체		χ^2
		N	%	N	%	N	%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들은 내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매우 동의함	615	20.7	382	16.8	997	19.1	15.748*
	동의함	1861	62.8	1464	64.5	3325	63.5	
	동의하지 않음	353	11.9	320	14.1	673	12.9	
	전혀 동의하지 않음	135	4.6	103	4.5	238	4.5	
	전체	2964	100	2269	100	5233	100	
다른 학생들이 나를 때릴까 봐 두렵다.	매우 동의함	72	2.4	11	0.5	83	1.6	222.192***
	동의함	274	9.3	88	3.9	362	6.9	
	동의하지 않음	963	32.5	471	20.8	1434	27.4	
	전혀 동의하지 않음	1652	55.8	1699	74.9	3351	64.1	
	전체	2961	100	2269	100	5230	100	

마. 성별에 따른 학생참여에 대한 가치인식

학생참여에 대한 가치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학생참여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여학생은 “학생들과 함께 작업할 경우, 긍정적인 학교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와 “학생 혼자보다는 함께 행동한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서 크게 동의하였으며, “모든 학교는 학생회를 가져야만 한다” 라는 의견에도 66.7%의 동의를 보여, 같은 질문에 56.4%만 동의를 한 남학생에 비하여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5 성별에 따른 학생참여에 대한 가치인식

		남학생		여학생		전체		χ^2
		N	%	N	%	N	%	
학교운영방법에 대한 학생참여는 학교를 더 좋게 만든다.	매우 동의함	794	26.8	635	28.0	1429	27.3	37.302***
	동의함	1573	53.1	1292	56.9	2865	54.8	
	동의하지 않음	402	13.6	274	12.1	676	12.9	
	전혀 동의하지 않음	193	6.5	69	3.0	262	5.0	
	전체	2962	100	2270	100	5232	100	
학생들과 함께 작업할 경우, 긍정적인 학교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매우 동의함	725	24.5	628	27.7	1353	25.9	48.476***
	동의함	1741	58.8	1396	61.5	3137	60.0	
	동의하지 않음	357	12.1	204	9.0	561	10.7	
	전혀 동의하지 않음	138	4.7	41	1.8	179	3.4	
	전체	2961	100	2269	100	5230	100	

		남학생		여학생		전체		χ^2
		N	%	N	%	N	%	
학생들을 대변하는 학생조직은 학교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매우 동의함	589	19.9	464	20.4	1053	20.1	44.472***
	동의함	1636	55.3	1377	60.7	3013	57.6	
	동의하지 않음	523	17.7	353	15.6	876	16.8	
	전혀 동의하지 않음	211	7.1	75	3.3	286	5.5	
	전체	2959	100	2269	100	5228	100	
모든 학교는 학생회를 가져야만 한다.	매우 동의함	491	16.6	400	17.6	891	17.0	81.729***
	동의함	1179	39.8	1113	49.1	2292	43.8	
	동의하지 않음	981	33.2	641	28.3	1622	31.0	
	전혀 동의하지 않음	308	10.4	114	5.0	422	8.1	
	전체	2959	100	2268	100	5227	100	
학생 혼자보다는 함께 행동한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매우 동의함	959	32.4	741	32.7	1700	32.5	34.498***
	동의함	1601	54.1	1318	58.1	2919	55.8	
	동의하지 않음	254	8.6	160	7.1	414	7.9	
	전혀 동의하지 않음	147	5.0	49	2.2	196	3.7	
	전체	2961	100	2268	100	5229	100	

바. 성별에 따른 학교교육에 관한 차이분석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라 학교교육 환경 및 효과에 대한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남녀 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특히 “학교에서의 참여”,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학생참여에 대한 가치”는 여학생이, “학생의견의 학교현장에서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다 높은 긍정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76 성별에 따른 학교교육에 관한 차이분석(t분석)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학교에서의 참여	남학생	2958	44.55	11.24	-6.543***
	여학생	2271	46.56	10.80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남학생	2957	37.63	11.05	-3.647***
	여학생	2267	38.71	9.98	
학교에서의 영향력	남학생	2960	43.80	10.63	4.601***
	여학생	2268	42.49	9.77	
학생_교사의 관계	남학생	2962	46.02	8.85	1.497
	여학생	2270	45.67	8.24	
학생참여에 대한 가치	남학생	2961	44.92	10.82	-5.879***
	여학생	2268	46.61	9.81	

② 성별에 따른 시민역량 차이분석

가. 성별에 따른 시민의식 역량인식 차이분석

다음으로 대한민국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시민 역량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 학생 간 시민의식 역량에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정치적 항의는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빈부 간의 소득차이는 적어야 한다”는 항목에서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에 남학생에 비하여 뚜렷하게 높았다.

표 IV-77 성별에 따른 시민의식 역량인식 차이분석

		남학생		여학생		전체		X ²
		N	%	N	%	N	%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매우 동의함	1785	60.3	1553	68.5	3338	63.8	68.316***
	동의함	1071	36.2	698	30.8	1769	33.8	
	동의하지 않음	72	2.4	11	0.5	83	1.6	
	전혀 동의하지 않음	34	1.1	6	0.3	40	0.8	
	전체	2962	100	2268	100	5230	100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매우 동의함	570	19.3	365	16.1	935	17.9	23.824***
	동의함	1086	36.7	940	41.5	2026	38.8	
	동의하지 않음	1037	35.1	810	35.8	1847	35.4	
	전혀 동의하지 않음	264	8.9	149	6.6	413	7.9	
	전체	2957	100	2264	100	5221	100	
기업이나 정부가 모든 신문사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매우 동의함	1352	45.7	1017	44.9	2369	45.3	20.018***
	동의함	1058	35.7	892	39.4	1950	37.3	
	동의하지 않음	413	14.0	298	13.2	711	13.6	
	전혀 동의하지 않음	137	4.6	58	2.6	195	3.7	
	전체	2960	100	2265	100	5225	100	
경찰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을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둘 권리를 가져야 한다.	매우 동의함	288	9.7	148	6.5	436	8.3	50.017***
	동의함	532	18.0	359	15.8	891	17.0	
	동의하지 않음	1228	41.5	1151	50.7	2379	45.5	
	전혀 동의하지 않음	910	30.8	610	26.9	1520	29.1	
	전체	2958	100	2268	100	5226	100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매우 동의함	1953	66.0	1674	73.8	3627	69.4	59.481***
	동의함	866	29.3	558	24.6	1424	27.3	
	동의하지 않음	97	3.3	23	1.0	120	2.3	
	전혀 동의하지 않음	41	1.4	12	0.5	53	1.0	
	전체	2957	100	2267	100	5224	100	

		남학생		여학생		전체		χ^2
		N	%	N	%	N	%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매우 동의함	1442	48.8	977	43.1	2419	46.3	27.911 ***
	동의함	1166	39.5	1010	44.6	2176	41.7	
	동의하지 않음	275	9.3	249	11.0	524	10.0	
	전혀 동의하지 않음	70	2.4	30	1.3	100	1.9	
	전체	2953	100	2266	100	5219	100	
안전요원은 국가 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해야 한다.	매우 동의함	652	22.1	432	19.1	1084	20.8	29.745 ***
	동의함	1413	47.8	1117	49.3	2530	48.4	
	동의하지 않음	642	21.7	589	26.0	1231	23.6	
	전혀 동의하지 않음	249	8.4	128	5.6	377	7.2	
	전체	2956	100	2266	100	5222	100	
모든 사람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매우 동의함	1920	64.8	1531	67.5	3451	66.0	15.647 **
	동의함	952	32.1	704	31.0	1656	31.7	
	동의하지 않음	65	2.2	23	1.0	88	1.7	
	전혀 동의하지 않음	25	0.8	10	0.4	35	0.7	
	전체	2962	100	2268	100	5230	100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매우 동의함	1960	66.2	1525	67.3	3485	66.6	15.807 **
	동의함	905	30.6	707	31.2	1612	30.8	
	동의하지 않음	71	2.4	27	1.2	98	1.9	
	전혀 동의하지 않음	26	0.9	8	0.4	34	0.7	
	전체	2962	100	2267	100	5229	100	
정치적 항의는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매우 동의함	1660	56.1	1408	62.1	3068	58.7	65.084 ***
	동의함	1066	36.0	793	35.0	1859	35.6	
	동의하지 않음	167	5.6	50	2.2	217	4.2	
	전혀 동의하지 않음	68	2.3	16	0.7	84	1.6	
	전체	2961	100	2267	100	5228	100	
빈부간의 소득차이는 적어야 한다.	매우 동의함	1323	44.7	1152	50.8	2475	47.3	56.992 ***
	동의함	1249	42.2	954	42.1	2203	42.1	
	동의하지 않음	305	10.3	135	6.0	440	8.4	
	전혀 동의하지 않음	85	2.9	26	1.1	111	2.1	
	전체	2962	100	2267	100	5229	100	
국가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	매우 동의함	704	23.8	472	20.8	1176	22.5	28.927 ***
	동의함	1384	46.7	1192	52.6	2576	49.3	
	동의하지 않음	547	18.5	429	18.9	976	18.7	
	전혀 동의하지 않음	326	11.0	174	7.7	500	9.6	
	전체	2961	100	2267	100	5228	100	

나.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행동 사항

또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중요한 행동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남녀 간 의식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모든 선거 참여”,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상의 정치이슈 주시” “환경보호운동 참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응답비율이 남학생에 비하여 높았으며, 남학생의 경우 “정당 단체 가입”, “정부 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정치 토론 참여” 등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8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행동사항

		남학생		여학생		전체		X ²
		N	%	N	%	N	%	
모든 선거 참여	매우 중요함	1764	59.5	1521	67.1	3285	62.8	37.988* **
	약간 중요함	1085	36.6	694	30.6	1779	34.0	
	중요하지 않음	75	2.5	40	1.8	115	2.2	
	전혀 중요하지 않음	41	1.4	12	0.5	53	1.0	
	전체	2965	100	2267	100	5232	100	
정당단체 가입	매우 중요함	282	9.5	128	5.7	410	7.8	73.431* **
	약간 중요함	1457	49.2	1324	58.5	2781	53.2	
	중요하지 않음	1051	35.5	750	33.1	1801	34.5	
	전혀 중요하지 않음	172	5.8	63	2.8	235	4.5	
	전체	2962	100	2265	100	5227	100	
역사학습	매우중요함	725	24.5	560	24.7	1285	24.6	20.039* **
	약간 중요함	1456	49.1	1195	52.7	2651	50.7	
	중요하지 않음	638	21.5	448	19.8	1086	20.8	
	전혀 중요하지 않음	146	4.9	63	2.8	209	4.0	
	전체	2965	100	2266	100	5231	100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상의 정치이슈 주시	매우 중요함	1106	37.3	1067	47.1	2173	41.5	77.752* **
	약간 중요함	1556	52.5	1083	47.8	2639	50.5	
	중요하지 않음	230	7.8	95	4.2	325	6.2	
	전혀 중요하지 않음	72	2.4	21	0.9	93	1.8	
	전체	2964	100	2266	100	5230	100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매우 중요함	256	8.6	110	4.9	366	7.0	46.502* **
	약간 중요함	1050	35.4	810	35.8	1860	35.6	
	중요하지 않음	1197	40.4	1061	46.8	2258	43.2	
	전혀 중요하지 않음	459	15.5	284	12.5	743	14.2	
	전체	2962	100	2265	100	5227	100	
정치토론참여	매우 중요함	629	21.3	425	18.8	1054	20.2	41.497* **
	약간 중요함	1551	52.4	1358	60.0	2909	55.7	
	중요하지 않음	613	20.7	414	18.3	1027	19.7	
	전혀 중요하지 않음	165	5.6	66	2.9	231	4.4	
	전체	2958	100	2263	100	5221	100	

		남학생		여학생		전체		χ^2
		N	%	N	%	N	%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참여	매우 중요함	1432	48.3	1096	48.4	2528	48.4	35.948* **
	약간 중요함	1205	40.7	983	43.4	2188	41.9	
	중요하지 않음	228	7.7	166	7.3	394	7.5	
	전혀 중요하지 않음	98	3.3	20	0.9	118	2.3	
	전체	2963	100	2265	100	5228	100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	매우 중요함	824	27.9	575	25.4	1399	26.8	36.169* **
	약간 중요함	1609	54.4	1368	60.4	2977	57.0	
	중요하지 않음	421	14.2	292	12.9	713	13.7	
	전혀 중요하지 않음	103	3.5	30	1.3	133	2.5	
	전체	2957	100	2265	100	5222	100	
인권증진운동 참여	매우 중요함	977	33.0	767	33.9	1744	33.4	28.645* **
	약간 중요함	1447	48.9	1186	52.4	2633	50.4	
	중요하지 않음	425	14.4	276	12.2	701	13.4	
	전혀 중요하지 않음	110	3.7	36	1.6	146	2.8	
	전체	2959	100	2265	100	5224	100	
환경보호 운동 참여	매우 중요함	1150	38.8	939	41.5	2089	40.0	51.431* **
	약간 중요함	1376	46.5	1132	50.0	2508	48.0	
	중요하지 않음	332	11.2	165	7.3	497	9.5	
	전혀 중요하지 않음	104	3.5	29	1.3	133	2.5	
	전체	2962	100	2265	100	5227	100	
열심히 일하기	매우 중요함	1522	51.4	1230	54.3	2752	52.6	18.671* **
	약간 중요함	1183	39.9	900	39.7	2083	39.8	
	중요하지 않음	198	6.7	118	5.2	316	6.0	
	전혀 중요하지 않음	60	2.0	19	0.8	79	1.5	
	전체	2963	100	2267	100	5230	100	
항상 법을 준수하기	매우 중요함	1578	53.3	1256	55.4	2834	54.2	33.756* **
	약간 중요함	1135	38.3	908	40.1	2043	39.1	
	중요하지 않음	192	6.5	86	3.8	278	5.3	
	전혀 중요하지 않음	58	2.0	16	0.7	74	1.4	
	전체	2963	100	2266	100	5229	100	

다.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분석

이들이 민주시민 역량을 새롭게 계산한 “시민의식 지식 5개 항목과 향후 어른이 되어서의 선거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의 “미래 투표의지” 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 간 차이분석(t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의 민주시민 역량 변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9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분석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시민의식 지식(1)	남학생	2968	555.99	81.17	-9.719***
	여학생	2275	577.47	76.86	
시민의식 지식(2)	남학생	2968	556.39	80.82	-10.163***
	여학생	2275	578.94	78.08	
시민의식 지식(3)	남학생	2968	557.00	80.69	-9.464***
	여학생	2275	577.95	77.84	
시민의식 지식(4)	남학생	2968	555.98	81.42	-10.155***
	여학생	2275	578.57	77.69	
시민의식 지식(5)	남학생	2968	555.96	82.22	-10.344***
	여학생	2275	579.19	78.42	
미래투표의도 의지	남학생	2953	48.07	9.21	-4.169***
	여학생	2271	49.11	8.52	

(3) 국적에 따른 차이분석

① 국적에 따른 학교교육 관련 차이분석

가. 국적에 따른 학교활동 참여의 차이분석

국적에 따른 학교 내 활동 참여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학생과 한국학생 간의 학교활동 참여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적에 따라 모든 항목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음악 및 드라마 활동에서 지난 1년 동안 활동한 비율이 28.0%로 대한민국 학생들의 10.3%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각종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활동 역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장 및 학생회 임원 투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학생의 54.1%가 지난 1년 내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국제학생의 경우 51.9%만이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한국학생들의 참여가 다소 높았다.

표 IV-80 국적에 따른 학교활동 참여의 차이분석

		국외		대한민국		전체		X ²
		N	%	N	%	N	%	
음악활동 드라마 활동	지난 1년동안 활동하였음	37135	28.0	537	10.3	37672	27.3	3164.387***
	1년 전에 활동하였음	44813	33.7	662	12.7	45475	32.9	
	전혀 활동하지 않았음	50844	38.3	4034	77.1	54878	39.8	
	전체	132792	100	5233	100	138025	100	
토론에 적극적 참여	지난 1년동안 활동하였음	29332	22.3	654	12.6	29986	21.9	326.088 ***
	1년 전에 활동하였음	27982	21.2	1038	19.9	29020	21.2	
	전혀 활동하지 않았음	74434	56.5	3515	67.5	77949	56.9	
	전체	131748	100	5207	100	136955	100	
반장/ 학생회 임원투표	지난 1년동안 활동하였음	68368	51.9	2848	54.7	71216	52.0	21.051 ***
	1년 전에 활동하였음	31631	24.0	1119	21.5	32750	23.9	
	전혀 활동하지 않았음	31728	24.1	1238	23.8	32966	24.1	
	전체	131727	100	5205	100	136932	100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지난 1년동안 활동하였음	25740	19.6	887	17.0	26627	19.5	148.443 ***
	1년 전에 활동하였음	28388	21.6	829	15.9	29217	21.3	
	전혀 활동하지 않았음	77531	58.9	3496	67.1	81027	59.2	
	전체	131659	100	5212	100	136871	100	
학생회 토론참여	지난 1년동안 활동하였음	29259	22.6	681	13.0	29940	22.2	620.189 ***
	1년 전에 활동하였음	26906	20.8	676	12.9	27582	20.5	
	전혀 활동하지 않았음	73444	56.7	3868	74.0	77312	57.3	
	전체	129609	100	5225	100	134834	100	
반장/학생회 임원출마	지난 1년동안 활동하였음	26838	20.3	854	16.4	27692	20.2	146.752 ***
	1년 전에 활동하였음	27260	20.6	844	16.2	28104	20.5	
	전혀 활동하지 않았음	78047	59.1	3519	67.5	81566	59.4	
	전체	132145	100	5217	100	137362	100	

나. 국적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국적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의 차이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한국과 국제 학생들 간의 학급토론에서의 인식에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한국학생들에게서 59.3%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여 낮은 개방성인식을 보인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는 항목의 경우, 국제학생들의 경우, 21.5%만을 제외하고 일부수업 이상에서 일어난다는 응답을 보여 응답에 큰 차이를 보였으며,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토론을 권장한다” 는 항목 역시 한국 학생들의 49.6%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는 응답을 보인 반면, 국제학생들의 경우 15.7%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는 응답을 보여 큰 차이를 보였다.

표 IV-81 국적에 따른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국외		대한민국		전체		X ²
	N	%	N	%	N	%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전혀 일어나지 않음	12800	9.7	959	18.3	13759	10.0
	일부 수업에서 일어남	30491	23.0	2129	40.7	32620	23.7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54221	40.9	1598	30.6	55819	40.5
	종종 수업에서 일어남	35122	26.5	544	10.4	35666	25.9
	전체	132634	100	5230	100	137864	100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격려한다.	전혀 일어나지 않음	10356	7.8	1089	20.8	11445	8.3
	일부 수업에서 일어남	20704	15.7	2077	39.7	22781	16.6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45338	34.4	1416	27.1	46754	34.1
	종종 수업에서 일어남	55581	42.1	646	12.4	56227	41.0
	전체	131979	100	5228	100	137207	100
선생님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전혀 일어나지 않음	6687	5.1	1007	19.3	7694	5.6
	일부 수업에서 일어남	15441	11.7	1936	37.0	17377	12.7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39096	29.6	1502	28.7	40598	29.6
	종종 수업에서 일어남	70682	53.6	782	15.0	71464	52.1
	전체	131906	100	5227	100	137133	100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전혀 일어나지 않음	28414	21.5	3103	59.3	31517	23.0
	일부 수업에서 일어남	48828	37.0	1494	28.6	50322	36.7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39440	29.9	478	9.1	39918	29.1
	종종 수업에서 일어남	15170	11.5	154	2.9	15324	11.2
	전체	131852	100	5229	100	137081	100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습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전혀 일어나지 않음	9250	7.0	1521	29.1	10771	7.8
	일부 수업에서 일어남	28968	21.9	1968	37.7	30936	22.5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52185	39.5	1206	23.1	53391	38.9
	종종 수업에서 일어남	41651	31.5	531	10.2	42182	30.7
	전체	132054	100	5226	100	137280	100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전혀 일어나지 않음	20748	15.7	2594	49.6	23342	17.0
	일부 수업에서 일어남	36380	27.6	1651	31.6	38031	27.8

함께 이슈토론 권장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47399	36.0	750	14.4	48149	35.1
	종종 수업에서 일어남	27288	20.7	230	4.4	27518	20.1
	전체	131815	100	5225	100	137040	100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준다.	전혀 일어나지 않음	11432	8.7	1788	34.2	13220	9.6
	일부 수업에서 일어남	26161	19.8	1957	37.4	28118	20.5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49675	37.7	1085	20.8	50760	37.0
	종종 수업에서 일어남	44630	33.8	397	7.6	45027	32.8
	전체	131898	100	5227	100	137125	100
5604.167***							

다. 국적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 인식의 차이분석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현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국적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학생의 의견을 통해 학교현장에서의 교수법, 수업내용, 교과서 및 학습자료, 수업시간표, 학급수칙, 학교규칙 등 영향력에 대한 인식은 국제학생들보다 한국 학생들에게서 영향력 인식이 높게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82 국적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 인식의 차이분석

		국외		대한민국		전체		X ²
		N	%	N	%	N	%	
교수법 (선생님의 수업방식 또는 수업방법)	많이 반영됨	18477	14.0	1942	37.1	20419	14.8	2529.614***
	보통 반영됨	35926	27.1	1592	30.4	37518	27.3	
	조금 반영됨	49383	37.3	1331	25.4	50714	36.9	
	전혀 반영되지 않음	28559	21.6	372	7.1	28931	21.0	
	전체	132345	100	5237	100	137582	100	
수업내용	많이 반영됨	24637	18.7	1771	33.9	26408	19.3	1105.316***
	보통 반영됨	32792	24.9	1523	29.1	34315	25.1	
	조금 반영됨	44240	33.6	1458	27.9	45698	33.4	
	전혀 반영되지 않음	30026	22.8	478	9.1	30504	22.3	
	전체	131695	100	5230	100	136925	100	
교과서 및 학습자료	많이 반영됨	27077	20.6	2088	39.9	29165	21.4	1221.480***
	보통 반영됨	34778	26.5	1285	24.6	36063	26.4	
	조금 반영됨	42298	32.2	1301	24.9	43599	31.9	
	전혀 반영되지 않음	27148	20.7	554	10.6	27702	20.3	
	전체	131301	100	5228	100	136529	100	
수업 시간표	많이 반영됨	41398	31.5	2986	57.1	44384	32.5	1778.964***
	보통 반영됨	26119	19.9	1038	19.8	27157	19.9	
	조금 반영됨	33618	25.6	851	16.3	34469	25.2	
	전혀 반영되지 않음	30264	23.0	355	6.8	30619	22.4	
	전체	131399	100	5230	100	136629	100	
학급수칙	많이 반영됨	18498	14.1	1923	36.8	20421	15.0	2920.850***
	보통 반영됨	28625	21.8	1609	30.8	30234	22.1	
	조금 반영됨	44661	34.0	1310	25.0	45971	33.7	
	전혀 반영되지 않음	39577	30.1	388	7.4	39965	29.3	
	전체	131361	100	5230	100	136591	100	
학교규칙	많이 반영됨	33777	25.7	2310	44.2	36087	26.4	1644.516***
	보통 반영됨	26321	20.0	1459	27.9	27780	20.3	

비용 과 회 영	조금 반영됨	32532	24.8	1029	19.7	33561	24.6	3272,318***
	전혀 반영되지 않음	38768	29.5	433	8.3	39201	28.7	
	전체	131398	100	5231	100	136629	100	
	많이 반영됨	18530	14.1	2227	42.5	20757	15.2	
	보통 반영됨	35707	27.2	1300	24.8	37007	27.1	
	조금 반영됨	47921	36.5	1095	20.9	49016	35.9	
	전혀 반영되지 않음	29005	22.1	614	11.7	29619	21.7	
	전체	131163	100	5236	100	136399	100	

라. 국적에 따른 학생-교사의 관계 차이분석

국적에 따른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학생과 대한민국 학생에 차이를 보였는데, 항목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를 공정하게 대해주신다” 에서 26.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제학생들은 16.2%만이 동의하고 있었다. 또한, 같은 항목에 대하여 국제학생들의 30.9%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여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보였다. 또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 복지에 관심을 갖는다.” 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경청해주신다” 의 항목에서도 한국 학생들이 국제 학생들에 비하여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제학생들의 경우 “학생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잘 지낸다” 에 28.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한국학생들의 22.9%보다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IV-83 국적에 따른 학생-교사의 관계 차이분석

		국외		대한민국		전체		X ²
		N	%	N	%	N	%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를 공정하게 대해 주신다.	매우 동의함	5279	4.0	324	6.2	5603	4.1	1073.553***
	동의함	16256	12.2	1051	20.1	17307	12.5	
	동의하지 않음	70210	52.9	3296	62.9	73506	53.3	
	전혀 동의하지 않음	41010	30.9	568	10.8	41578	30.1	
	전체	132755	100	5239	100	137994	100	
학생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잘 지낸다.	매우 동의함	6129	4.6	198	3.8	6327	4.6	320.356***
	동의함	31564	23.8	1001	19.1	32565	23.6	
	동의하지 않음	70408	53.2	3425	65.4	73833	53.6	
	전혀 동의하지 않음	24364	18.4	613	11.7	24977	18.1	
	전체	132465	100	5237	100	137702	100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 복지에 관심을 갖는다.	매우 동의함	5347	4.1	507	9.7	5854	4.3	2456.205***
	동의함	20326	15.4	1835	35.1	22161	16.1	
	동의하지 않음	69488	52.6	2557	48.9	72045	52.5	
	전혀 동의하지 않음	36853	27.9	334	6.4	37187	27.1	
	전체	132014	100	5233	100	137247	100	
나는 우리학교의 이웃사이더인 것 같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65977	50.1	2849	54.5	68826	50.3	122.717***
	동의하지 않음	48822	37.1	1879	36.0	50701	37.0	
	동의함	11640	8.8	434	8.3	12074	8.8	
	매우 동의함	5280	4.0	64	1.2	5344	3.9	
	전체	131719	100	5226	100	136945	100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경청해주신다.	매우 동의함	6383	4.8	419	8.0	6802	5.0	951.074***
	동의함	24931	18.9	1616	30.9	26547	19.4	
	동의하지 않음	72872	55.3	2826	54.0	75698	55.2	
	전혀 동의하지 않음	27707	21.0	372	7.1	28079	20.5	
	전체	131893	100	5233	100	137126	100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들은 내게 도움을 주실	매우 동의함	5840	4.4	241	4.6	6081	4.4	231.466***
	동의함	17834	13.5	674	12.9	18508	13.5	

마. 국적에 따른 학생참여에 대한 가치인식

학생참여에 대한 가치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한국 학생들이 국제학생들에 비하여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를 높게 여기고 있었다.

		국외		대한민국		전체		X ²
		N	%	N	%	N	%	
학교운영방법에 대한 학생참여는 학교를 더 좋게 만든다.	매우 동의함	3216	2.4	263	5.0	3479	2.5	238.800***
	동의함	13138	9.9	676	12.9	13814	10.0	
	동의하지 않음	71659	54.1	2868	54.7	74527	54.1	
	전혀 동의하지 않음	44521	33.6	1432	27.3	45953	33.4	
	전체	132534	100	5239	100	137773	100	
학생들과 함께 작업할 경우, 긍정적인 학교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매우 동의함	2034	1.5	180	3.4	2214	1.6	632.761***
	동의함	8168	6.2	561	10.7	8729	6.3	
	동의하지 않음	68175	51.4	3140	60.0	71315	51.7	
	전혀 동의하지 않음	54269	40.9	1355	25.9	55624	40.3	
	전체	132646	100	5236	100	137882	100	
학생들을 대변하는 학생조직은 학교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매우 동의함	2839	2.1	287	5.5	3126	2.3	623.553***
	동의함	13816	10.5	876	16.7	14692	10.7	
	동의하지 않음	74619	56.5	3018	57.7	77637	56.5	
	전혀 동의하지 않음	40783	30.9	1053	20.1	41836	30.5	
	전체	132057	100	5234	100	137291	100	
모든 학교는 학생회를 가져야만 한다.	매우 동의함	3819	2.9	423	8.1	4242	3.1	3556.59***
	동의함	12748	9.6	1624	31.0	14372	10.5	
	동의하지 않음	55595	42.1	2293	43.8	57888	42.1	
	전혀 동의하지 않음	60000	45.4	893	17.1	60893	44.3	
	전체	132162	100	5233	100	137395	100	
학생 혼자보다는 함께 행동한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매우 동의함	3527	2.7	197	3.8	3724	2.7	125.054***
	동의함	11054	8.4	414	7.9	11468	8.4	
	동의하지 않음	65299	49.5	2919	55.8	68218	49.7	
	전혀 동의하지 않음	52133	39.5	1705	32.6	53838	39.2	
	전체	132013	100	5235	100	137248	100	

바. 국적에 따른 학교 교육에 관한 차이분석

그러나 이러한 학교 교육환경 및 효과를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환산한 변수를 참조로 학생들의 학교 내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학교에서의 영향력, 학생 및 교사와의 관계, 학생 참여가치에 대한 국적에 따른 차이분석(t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국제학생들의 인식의 평균이 한국학생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 IV-85 국적에 따른 학교 교육에 관한 차이분석

		N	평균	표준편차	t
학교에서의 참여	국외	132816	50.05	9.93	32.870***
	대한민국	5235	45.43	11.10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국외	132743	50.54	9.74	90.299***
	대한민국	5230	38.09	10.61	
학교에서의 영향력	국외	132358	50.92	9.88	55.106***
	대한민국	5234	43.23	10.29	
학생-교사의 관계	국외	132845	50.41	10.01	32.426***
	대한민국	5238	45.86	8.60	
학생참여에 대한 가치	국외	132645	50.37	9.95	33.597***
	대한민국	5235	45.65	10.43	

② 국적에 따른 시민역량 차이분석

가. 국적에 따른 시민의식 역량 차이분석

다음으로 국적에 따른 학생들의 시민 역량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국적에 따라 시민의식 역량에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국제학생들의 경우,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경찰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을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둘 권리를 가져야 한다”, “국가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의 항목에 있어서 대한민국 학생들에 비하여 매우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대한민국 학생들의 경우 “기업이나 정부가 모든 신문사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빈부간의 소득차이는 적어야 한다 “는 항목에서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IV-86 국적에 따른 시민의식 역량 차이분석

		국외		대한민국		전체		X ²
		N	%	N	%	N	%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731	0.5	40	0.8	771	0.6	128.173***
	동의하지 않음	2061	1.5	83	1.6	2144	1.5	
	동의함	35884	26.9	1771	33.8	37655	27.2	
	매우 동의함	94536	71.0	3343	63.8	97879	70.7	
	전체	133212	100	5237	100	138449	100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8199	6.2	415	7.9	8614	6.3	333.493***
	동의하지 않음	33368	25.4	1849	35.4	35217	25.8	
	동의함	57812	44.0	2027	38.8	59839	43.8	
	매우 동의함	31919	24.3	936	17.9	32855	24.1	
	전체	131298	100	5227	100	136525	100	
기업이나 정부가 모든 신문사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8186	6.2	195	3.7	8381	6.1	695.767***
	동의하지 않음	28750	21.9	712	13.6	29462	21.6	
	동의함	56252	42.8	1952	37.3	58204	42.6	
	매우 동의함	38186	29.1	2372	45.3	40558	29.7	
	전체	131374	100	5231	100	136605	100	
경찰은 국가안전권을 위협할 용의자와 여겨지는 사람을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둘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6981	12.9	1522	29.1	18503	13.5	2160.813***
	동의하지 않음	40991	31.2	2381	45.5	43372	31.7	
	동의함	46522	35.4	892	17.0	47414	34.7	
	매우 동의함	27048	20.6	437	8.4	27485	20.1	
	전체	131542	100	5232	100	136774	100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698	1.3	53	1.0	1751	1.3	258.298***
	동의하지 않음	4806	3.6	120	2.3	4926	3.6	
	동의함	48386	36.7	1425	27.2	49811	36.4	
	매우 동의함	76876	58.3	3632	69.4	80508	58.8	
	전체	131766	100	5230	100	136996	100	

		국외		대한민국		전체		X ²
		N	%	N	%	N	%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4174	3.2	100	1.9	4274	3.1	552.881***
	동의하지 않음	25022	19.0	524	10.0	25546	18.7	
	동의함	59624	45.3	2179	41.7	61803	45.2	
	매우 동의함	42664	32.4	2422	46.4	45086	33.0	
	전체	131484	100	5225	100	136709	100	
안전요원은 국가 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해야 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4523	11.1	377	7.2	14900	10.9	151.257***
	동의하지 않음	26720	20.4	1232	23.6	27952	20.5	
	동의함	57308	43.8	2534	48.5	59842	43.9	
	매우 동의함	32382	24.7	1085	20.8	33467	24.6	
	전체	130933	100	5228	100	136161	100	
모든 사람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1577	1.2	35	0.7	1612	1.2	142.694***
	동의하지 않음	5390	4.1	88	1.7	5478	4.0	
	동의함	46905	35.4	1658	31.7	48563	35.3	
	매우 동의함	78455	59.3	3456	66.0	81911	59.5	
	전체	132327	100	5237	100	137564	100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2282	1.7	34	0.6	2316	1.7	1069.111***
	동의하지 않음	9578	7.3	98	1.9	9676	7.1	
	동의함	61596	46.7	1614	30.8	63210	46.1	
	매우 동의함	58556	44.4	3489	66.6	62045	45.2	
	전체	132012	100	5235	100	137247	100	
정치적 항의는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4626	3.5	84	1.6	4710	3.4	203.992***
	동의하지 않음	9831	7.5	217	4.1	10048	7.3	
	동의함	50579	38.4	1860	35.5	52439	38.3	
	매우 동의함	66698	50.6	3073	58.7	69771	50.9	
	전체	131734	100	5234	100	136968	100	

		국외		대한민국		전체		X ²
		N	%	N	%	N	%	
빈부간의 소득차이는 적어야 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7476	5.7	111	2.1	7587	5.6	441.855***
	동의하지 않음	21239	16.2	441	8.4	21680	15.9	
	동의함	53472	40.8	2205	42.1	55677	40.8	
	매우 동의함	49018	37.4	2478	47.3	51496	37.7	
	전체	131205	100	5235	100	136440	100	
국가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7722	5.9	501	9.6	8223	6.0	171.373***
	동의하지 않음	21389	16.3	976	18.6	22365	16.4	
	동의함	66770	50.8	2579	49.3	69349	50.8	
	매우 동의함	35456	27.0	1178	22.5	36634	26.8	
	전체	131337	100	5234	100	136571	100	

나. 국적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 행동사항

또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중요한 행동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국적에 따른 의식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 학생들은 “모든 선거 참여” 및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상의 정치이슈 주시” 를 매우 중요한 행동 사항으로 여기고 있는 반면 국제학생들의 경우, 한국학생과는 달리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표현” 이 중요한 행동사항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표 IV-87 국적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행동사항

		국외		대한민국		전체		X ²
		N	%	N	%	N	%	
모든 선거 참여	전혀 중요하지 않음	3965	3.0	54	1.0	4019	2.9	1234.948***
	중요하지 않음	20576	15.6	115	2.2	20691	15.0	
	약간 중요함	52618	39.8	1781	34.0	54399	39.6	
	매우 중요함	55124	41.7	3288	62.8	58412	42.5	
	전체	132283	100	5238	100	137521	100	
정당단체 가입	전혀 중요하지 않음	19166	14.6	236	4.5	19402	14.2	2530.157***
	중요하지 않음	69238	52.6	1803	34.4	71041	51.9	
	약간 중요함	30672	23.3	2784	53.2	33456	24.5	
	매우 중요함	12457	9.5	411	7.9	12868	9.4	
	전체	131533	100	5234	100	136767	100	
역사 학습	전혀 중요하지 않음	5372	4.1	210	4.0	5582	4.1	378.117***
	중요하지 않음	23464	17.9	1089	20.8	24553	18.0	
	약간 중요함	53050	40.5	2652	50.6	55702	40.9	
	매우 중요함	49126	37.5	1286	24.6	50412	37.0	
	전체	131012	100	5237	100	136249	100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상의 정치이슈 주시	전혀 중요하지 않음	5826	4.4	94	1.8	5920	4.3	1105.272***
	중요하지 않음	29403	22.3	325	6.2	29728	21.7	
	약간 중요함	61190	46.5	2642	50.5	63832	46.6	
	매우 중요함	35184	26.7	2175	41.5	37359	27.3	
	전체	131603	100	5236	100	136839	100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전혀 중요하지 않음	5993	4.6	746	14.3	6739	4.9	4050.005***
	중요하지 않음	22034	16.8	2260	43.2	24294	17.8	
	약간 중요함	63229	48.1	1861	35.6	65090	47.6	
	매우 중요함	40250	30.6	366	7.0	40616	29.7	
	전체	131506	100	5233	100	136739	100	

정치토론 참여	전혀 중요하지 않음	15697	12.0	232	4.4	15929	11.7	2352.200***
	중요하지 않음	60388	46.1	1030	19.7	61418	45.0	
	약간 중요함	40426	30.8	2911	55.7	43337	31.8	
	매우 중요함	14615	11.1	1054	20.2	15669	11.5	
	전체	131126	100	5227	100	136353	100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	전혀 중요하지 않음	11438	8.7	119	2.3	11557	8.5	2102.616***
	중요하지 않음	36917	28.2	394	7.5	37311	27.4	
	약간 중요함	49806	38.0	2190	41.8	51996	38.2	
	매우 중요함	32831	25.1	2531	48.4	35362	26.0	
	전체	130992	100	5234	100	136226	100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	전혀 중요하지 않음	4234	3.2	134	2.6	4368	3.2	256.583***
	중요하지 않음	20410	15.6	714	13.7	21124	15.5	
	약간 중요함	60189	45.9	2980	57.0	63169	46.3	
	매우 중요함	46274	35.3	1400	26.8	47674	35.0	
	전체	131107	100	5228	100	136335	100	
인권증진 운동참여	전혀 중요하지 않음	3715	2.8	147	2.8	3862	2.8	108.032***
	중요하지 않음	18142	13.8	702	13.4	18844	13.8	
	약간 중요함	57062	43.5	2636	50.4	59698	43.8	
	매우 중요함	52214	39.8	1745	33.4	53959	39.6	
	전체	131133	100	5230	100	136363	100	
환경보호운동 참여	전혀 중요하지 않음	3909	3.0	134	2.6	4043	3.0	144.259***
	중요하지 않음	15757	12.0	498	9.5	16255	11.9	
	약간 중요함	52202	39.8	2510	48.0	54712	40.1	
	매우 중요함	59347	45.2	2091	40.0	61438	45.0	
	전체	131215	100	5233	100	136448	100	

다. 국적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분석

국적에 따라 민주시민 역량을 새롭게 계산한 “시민의식 지식” 5개 항목과 향후 어른이 되어서의 선거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의 “미래 투표의지” 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 간의 차이분석(t분 석)을 실시한 결과, 시민의식 지식에 있어서는 모든 항목에서 국제학생들에 비하여 한국학생들의 변수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반면, 미래 선거참여 의지에 있어서는 국제학생들의 평균이 높았다.

표 IV-88 국적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분석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시민의식 지식(1)	국외	135396	497.24	99.77	-48.761***
	대한민국	5254	565.19	80.15	
시민의식 지식(2)	국외	135396	497.12	99.65	-49.525***
	대한민국	5254	566.07	80.58	
시민의식 지식(3)	국외	135396	497.11	99.60	-49.502***
	대한민국	5254	565.98	80.26	
시민의식 지식(4)	국외	135396	497.24	99.66	-49.140***
	대한민국	5254	565.66	80.75	
시민의식 지식(5)	국외	135396	497.14	99.47	-49.474***
	대한민국	5254	565.91	81.55	
미래 선거 참여 의지	국외	128234	50.26	10.06	12.280***
	대한민국	5230	48.52	8.94	

2) 영향요인 분석(한국)

(1) 대한민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영향요인 분석모형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형성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민지식” 과 “미래투표의도” 를 종속변수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학교변수를 확인하였다. 독립변수들은 크게 성별, 미래 희망교육정도, 부모관련 변수 등으로 구성된 개인수준의 변수들과 학교의 자치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수준의 변수 등 2단계로 나눌 수 있었다. 따라서 분석에는 집단의 단계별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HLM7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시민지식’ 과 ‘미래투표의도’ 로, 첫 번째 변수인 “시민 지식” 은 김태준(2010)의 연구에서 이미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역량의 변수로 활용된 바 있듯이,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적 결과이며, 효과적 시민 참여 활동의 기초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다. ICCS에서는

시민지식 점수를 5개의 추정치(plausible values)로, 평균은 500, 표준편차는 100으로 척도화하여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5개 영역의 평균을 “시민지식” 변수로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두 번째 종속변수는 ‘미래투표의도’(expected electoral participation)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성인이 된 후에 선거에 참여할지를 문항을 이용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평균은 50, 표준편차는 10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이 된 후에 선거에 참여할 확률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는 학생특성 변수인 성별, 기대교육수준, 가정배경 변수인 부모의 교육수준과 정치사회에의 관심 정도를 사용하였으며, 학교교육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학교활동에의 참여정도, 영향력 인식정도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자세한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150개 학교, 5,040명의 아동·청소년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IV-89 변수의 기초통계분석

독립변수 1수준 : 개인수준의 변수						
	변수	N	MEAN	SD	최소값	최대값
개인	성	5040	0.43	0.50	0.00	1.00
	기대교육수준	5040	3.68	0.65	0.00	4.00
가족	어머니 학력	5040	3.56	1.03	0.00	5.00
	아버지 학력	5040	3.81	1.09	0.00	5.00
	어머니 정치사회 관심도	5040	1.84	0.63	0.00	3.00
	아버지 정치사회 관심도	5040	2.14	0.64	0.00	3.00
	학교생활 참여 정도	5040	45.47	11.08	28.23	78.47
학교 생활	학교에서의 교사와의 관계 인식	5040	45.89	8.59	17.62	73.53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5040	45.69	10.39	15.18	69.83
독립변수 2수준 : 학교관련 변수						
	변수	N	MEAN	SD	최소값	최대값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50	38.13	2.73	31.43	44.32
	학교에서의 영향력 인식	150	43.24	2.28	37.01	49.85

종속변수					
변수	N	MEAN	SD	최소값	최대값
민주시민지식(평균)	5040	567.27	74.09	290.38	796.79
미래투표의도	5040	48.60	8.90	23.85	63.05

대한민국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개인 및 학교수준에서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1수준: 학생수준]

$$\begin{aligned}
 Y_{ij} = & \beta_{0j} + \beta_{1j}(\text{성별}_{ij}) + \beta_{2j}(\text{기대교육수준}_{ij}) + \beta_{3j}(\text{어머니학력}_{ij}) \\
 & + \beta_{4j}(\text{아버지학력}_{ij}) + \beta_{5j}(\text{어머니정치기대수준}_{ij}) + \beta_{6j}(\text{아버지정치기대수준}_{ij}) \\
 & + \beta_{7j}(\text{학교에서의 참여정도}_{ij}) + \beta_{8j}(\text{학생과 교사의 관계}_{ij}) \\
 & + \beta_{9j}(\text{학생참여에 대한 가치 인식}_{ij}) + r_{ij}
 \end{aligned}$$

이는 1수준인 학생수준에서 종속변수인 민주시민 지식역량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이다. 이때 투입된 독립변수들 모두 학생 개인수준의 변수로 학생특성 변수, 가정배경 변수, 학생활동 변수가 투입되었다.

[2수준 : 학교수준모형]

$$\begin{aligned}
 \beta_{0j} &= \gamma_{00} + \gamma_{01}(\text{학급토론에의 개방성인식}_{ij}) + \gamma_{02}(\text{학교에서의 영향력인식}_{ij}) + u_{0j} \\
 \beta_{1j} &= \gamma_{10} \dots
 \end{aligned}$$

학교수준 변수들은 학교의 평균을 나타내는 β_{0j} 를 설명하는 데에만 포함된다. 설명변수로서의 학교수준 변수는 학교 학급토론에의 개방성에 대한 인식 및 학교에서의 학생의견의 영향력 등 2가지 변수로 구성되었다.

(2) 민주시민지식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의 평균을 종속변수로 개인 및 가족변수 뿐 아니라 학교생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HLM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민주시민 지식 역량 변인의 총 변량 중에서 학교수준에 따른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6.0%, 개인수준의 변량은 94.0%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의 경우, 전체 분산의 6.0%는 학교차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도 일정 부분 존재하고 있지만, 동일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 개개인 수준에서 민주시민 지식역량은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90 민주시민 역량의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학교수준 변량(%)	234.65(6.0%)
개인수준 변량(%)	3699.25(94.0%)
전체 분산	3933.91(100%)

아래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민주시민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수준에서의 개인, 가정, 학교생활 변수 및 학교수준에서의 영향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수준에서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기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민주시민 역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가정변수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민주시민 지식형성에 긍정적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에서 가족관계 변수들이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학교에서의 활동은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가 많을수록, 학생참여에 대한 가치가 높을수록 민주시민 의식이 높았으며, 반면, 학교환경 및 풍토 등 학교수준에서의 변수들 중 학생 영향력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표 IV-91 민주시민 역량의 학교분산에 대한 다층분석

고정효과			1수준(개인수준) + 2수준(학교수준)			
			회귀계수	표준오차	t 비율	
전체평균			406.903***	27.647	14.718	
학 생 수 준	학생 특성	성별(남=0,여=1)	18.873***	1.943	9.712	
		기대교육수준	34.339***	1.571	21.857	
	가정 배경	어머니 교육수준	2.142	1.206	1.776	
		아버지 교육수준	5.223***	1.100	4.746	
		어머니 정치사회기대수준	- 3.506	1.560	-2.248	
		아버지 정치사회기대수준	0.974	1.476	0.660	
	학교 에서의 학생 활동	학교에서의 참여 인식	1.279***	0.087	14.681	
		학교에서의 교사와의 관계 인식	0.285	0.116	2.45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1.312***	0.095	13.767	
학 교 수 준	학교 환경 및 풍토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47	0.584	0.252	
		학교에서의 영향력 인식	- 2.922***	0.686	-4.262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자유도	X ²	p
학교수준 분산		15.318	234.651	147	458.243	<0.001
학생수준 분산		60.822	3,699.254			

(3) 미래투표의향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미래투표의지 역시 민주시민의 역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분석에 앞서 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미래투표의지 변인의 총 변량 중에서 학교수준에 따른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1.3%, 개인수준의 변량은 98.7%로 나타났다. 즉, 대한민국 아동 청소년의 미래투표의지 역량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학생 개인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92 미래투표의지 역량의 분산분석

구분	분산값(%)
학교수준 변량(%)	0.84(1.3%)
개인수준 변량(%)	63.53(98.7%)
전체 분산	64.38(100%)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래투표 의지에 미치는 학생 수준에서의 개인, 가정, 학교생활 변수 및 학교수준에서의 영향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수준에서의 성별에 따라 미래투표의지에는 특별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기대 교육수준은 미래투표의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족변수의 부모의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은 모두 미래투표 의지에 영향을 주었으며,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일수록, 학생참여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미래투표의지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 역량과 마찬가지로 학교환경 및 풍토 등 학교수준에 따른 미래투표의지에 대한 특별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93 민주시민 역량의 학교분산에 대한 다층분석

고정효과			1수준(개인수준) + 2수준(학교수준)		
			회귀계수	표준오차	t 비율
전체평균			18.479***	2.865	6.451
학생 특성	성별(남=0,여=1)		0.223	0.258	0.864
		기대교육수준	1.540***	0.207	7.445

수준	가정 배경	어머니 교육수준	0.011	0.133	0.082	
		아버지 교육수준	0.070	0.143	0.491	
		어머니 정치사회기대수준	0.880***	0.221	3.986	
		아버지 정치사회기대수준	1.300***	0.186	6.980	
	학교 에서의 학생 활동	학교에서의 참여 인식	0.115***	0.011	10.431	
		학교에서의 교사와의 관계 인식	0.125***	0.015	8.182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0.185***	0.013	13.936	
학교수준	학교 환경 및 풍토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0.105	0.052	2.021	
		학교에서의 영향력 인식	-0.085	0.059	-1.442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자유도	X ²	p
학교수준 분산		0.916	0.839	147	213	<0.001
학생수준 분산		7.971	63.540			

3) 기초통계 분석 (국제)

국제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9년도 ICCS자료를 활용하여 기초통계분석을 실시였다. 분석은 조사를 실시한 전세계 140,650명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1) 기초통계 분석

①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49.5%(68,985명), 여학생이 50.5%(70,381명)이었으며, 향후 기대하는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이상” 이 52.7%(72,791명), “전문대학 졸업” 이 16.8%(23,125명), 고교졸업 이상이 24.0%(33,166명)의 응답을 보였다. 한국 학생들에 비하여 기대교육 수준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변수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졸업이 35.7%로 가장 높았으며,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이 20.9%, 전문대학 졸업이 15.5%로 그 뒤를 따랐다. 아버지 학력의 경우 어머니 학력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졸업이 35.5%,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이 21.1%, 전문대학 졸업이 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전체의 54.5%가 정치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11.5% 매우관심,

43.0% 다소관심) 아버지는 63.9%가 관심을 보였다(19.7% 매우관심, 44.2% 다소관심).

표 IV-94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

		변수	N	%
학생 변수	성별	남학생	68985	49.5
		여학생	70381	50.5
		합계	139366	100
	기대교육 수준	기대하지 않음	1120	0.8
		중학교 졸업	7846	5.7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졸업	33166	24.0
		전문대학 졸업	23125	16.8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72791	52.7
		합계	138048	100
	태어난 국적	다른 나라	7259	5.2
		현재 살고 있는 나라	131242	94.8
		합계	138501	100
가족 관계 변수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	다른 나라	17293	12.5
		현재 살고 있는 나라	121569	87.5
		합계	138862	100
	어머니 학력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	28234	20.9
		전문대학 졸업	20989	15.5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졸업	48335	35.7
		중학교 졸업	20080	14.8
		초등학교 졸업	11516	8.5
		초등학교 중퇴	6096	4.5
		합계	135250	100
	아버지 학력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	27928	21.1
		전문대학 졸업	21003	15.9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졸업	46879	35.5
		중학교 졸업	20351	15.4
		초등학교 졸업	10892	8.2
		초등학교 중퇴	5120	3.9
		합계	132173	100
	정치사회이슈의 관심정도 (어머니)	매우 관심이 높다	15647	11.5
		다소 관심이 높다	58634	43.0
		다소 관심이 없다	54090	39.7
		매우 관심이 없다	8005	5.9
		합계	136376	100
	정치사회이슈의 관심정도 (아버지)	매우 관심이 높다	26138	19.7
		다소 관심이 높다	58551	44.2
		다소 관심이 없다	40452	30.5
		매우 관심이 없다	7406	5.6
		합계	132547	100

② 학교교육 관련 변수 기초통계 분석

가. 학교 활동에의 참여정도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과 관련 학교환경 변수는 학교 내 활동에의 참여정도, 학급토론에 대한 개방성인식, 학교에서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학교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학생 참여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내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반장/학생회 임원 투표 변수만이 지난 1년 동안 52.0%의 참여를 보여 과반수이상의 참여를 보인 반면, 나머지 항목에서는 20% 내외의 소극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95 학교 활동에의 참여정도

		지난 1년동안 하였음	1년 전에 활동 하였음	전혀 활동하지 않음	합계
방과 후 학교의 음악활동과 드라마 활동에 자발적 참여	N	37672	45475	54878	138025
	%	27.3	32.9	39.8	100
토론에 적극적 참여	N	29986	29020	77949	136955
	%	21.9	21.2	56.9	100
반장/학생회 임원 투표	N	71216	32750	32966	136932
	%	52.0	23.9	24.1	100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N	26627	29217	81027	136871
	%	19.5	21.3	59.2	100
학생회 토론 참여	N	29940	27582	77312	134834
	%	22.2	20.5	57.3	100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N	27692	28104	81566	137362
	%	20.2	20.5	59.4	100

나.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학급토론에의 개방성에 대한 인식은 일부 수업 이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생님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는 94.3%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습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는 92.2%가 일부 이상의 수업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표 IV-96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전혀 일어 나지 않음	일부 수업 에서 일어남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종종 수업에서 일어남	합계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N	13759	32620	55819	35666	137864
	%	10.0	23.7	40.5	25.9	100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격려한다.	N	11445	22781	46754	56227	137207
	%	8.3	16.6	34.1	41.0	100
선생님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N	7694	17377	40598	71464	137133
	%	5.6	12.7	29.6	52.1	100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N	31517	50322	39918	15324	137081
	%	23.0	36.7	29.1	11.2	100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습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N	10771	30936	53391	42182	137280
	%	7.8	22.5	38.9	30.7	100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	N	23342	38031	48149	27518	137040
	%	17.0	27.8	35.1	20.1	100
선생님들이 학습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관점을 제시해 준다.	N	13220	28118	50760	45027	137125
	%	9.6	20.5	37.0	32.8	100

다. 학급에서의 영향력 인식

학생들의 의견이 실제 학교정책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결과, 학급수칙과 학교규칙의 경우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비율이 높았으며, 수업시간표의 경우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3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7 학교에서의 영향력 인식

		많이 반영됨	보통 반영됨	조금 반영됨	전혀 반영 되지 않음	합계
교수법 (선생님의 수업방식 또는 수업방법)	N	28931	50714	37518	20419	137582
	%	21.0	36.9	27.3	14.8	100
수업내용	N	30504	45698	34315	26408	136925
	%	22.3	33.4	25.1	19.3	100
교과서 및 학습자료	N	27702	43599	36063	29165	136529
	%	20.3	31.9	26.4	21.4	100
수업시간표	N	30619	34469	27157	44384	136629
	%	22.4	25.2	19.9	32.5	100
학급수칙	N	39965	45971	30234	20421	136591
	%	29.3	33.7	22.1	15.0	100
학교규칙	N	39201	33561	27780	36087	136629
	%	28.7	24.6	20.3	26.4	100
방과 후 활동	N	29619	49016	37007	20757	136399
	%	21.7	35.9	27.1	15.2	100

라. 학교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생들의 교사 및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특히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를 공정하게 대해준다.” 83.4%, “학생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잘 지낸다.” 71.7%,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복지에 관심을 갖는다.” 79.6%, “대부분이 선생님

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경청해주시다.” 75.7%,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들은 내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82.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우리학교 아웃사이더인 것 같다” 12.7%, “다른 학생들이 나를 때릴까봐 두렵다” 12.2%가 동의하고 있어 12%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8 학생과 교사의 관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 하지 않음	전혀 동의 하지 않음	합계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를 공정하게 대해준다.	N	41578	73506	17307	5603	137994
	%	30.1	53.3	12.5	4.1	100
학생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잘 지낸다.	N	24977	73833	32565	6327	137702
	%	18.1	53.6	23.6	4.6	100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복지에 관심을 갖는다.	N	37187	72045	22161	5854	137247
	%	27.1	52.5	16.1	4.3	100
나는 우리학교 아웃사이더인 것 같다.	N	5344	12074	50701	68826	136945
	%	3.9	8.8	37.0	50.3	100
대부분이 선생님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경청해주시다.	N	28079	75698	26547	6802	137126
	%	20.5	55.2	19.4	5.0	100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들은 내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N	37954	74650	18508	6081	137193
	%	27.7	54.4	13.5	4.4	100
다른 학생들이 나를 때릴까봐 두렵다.	N	10318	20196	43362	63319	137195
	%	7.5	14.7	31.6	46.2	100

마.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에 대한 의견

학생들은 학생참여를 통하여 학교경영을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운영방법에 대한 학생참여는 학교를 더 좋게 만든다 87.5%, “학생들과 함께 작업할 경우 긍정적인 학교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92.0%, “학생들을 대변하는 학생조직은 학교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87.0%, “학생들이 혼자보다는 함께 행동한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9.1%가 동의하고 있었다. “모든 학교는 학생회를 가져야만 한다” 에는 86.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9 학교경영에의 학생 참여에 대한 의견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합계
학교운영방법에 대한 학생참여는 학교를 더 좋게 만든다.	N	45953	74527	13814	3479	137773
	%	33.4	54.1	10.0	2.5	100
학생들과 함께 작업할 경우 긍정적인 학교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N	55624	71315	8729	2214	137882
	%	40.3	51.7	6.3	1.6	100
학생들을 대변하는 학생조직은 학교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N	41836	77637	14692	3126	137291
	%	30.5	56.5	10.7	2.3	100
모든 학교는 학생회를 가져야만 한다.	N	60893	57888	14372	4242	137395
	%	44.3	42.1	10.5	3.1	100
학생들이 혼자보다는 함께 행동한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	53838	68218	11468	3724	137248
	%	39.2	49.7	8.4	2.7	100

바. 학교 변인에 대한 기초통계

마지막으로 학교교육 및 환경 관련 변수들을 IRT 척도로 변환한 자료를 살펴보면, “학교에서의 참여” 는 49.87점,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은 50.07점 “학교에서의 영향력” 은 50.62점 “교사 및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 50.23점, “학생참여에 대한 가치” 는 50.19점을 보였다.

표 IV-100 학교 변인에 대한 기초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학교 변인	학교에서의 참여	138051	28	78	49.87	10.01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137973	15	79	50.07	10.06
	학교에서의 영향력	137592	27	74	50.62	10.00
	학생-교사의 관계	138083	18	74	50.23	10.00
	학생참여에 대한 가치	137880	15	70	50.19	10.01

③ 민주시민 역량관련 변수 기초통계 분석

가.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국제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시민사회 역량에 대한 응답을 확인한 결과, 학생들은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상향을 가지고 있었다.

표 IV-101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합계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N	97879	37655	2144	771	138449
	%	70.7	27.2	1.5	0.6	100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N	32855	59839	35217	8614	136525
	%	24.1	43.8	25.8	6.3	100
기업이나 정부가 모든 신문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N	40558	58204	29462	8381	136605
	%	29.7	42.6	21.6	6.1	100
경찰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을 재판을 통해 감옥에 가둘 권리를 가져야 한다.	N	27485	47414	43372	18503	136774
	%	20.1	34.7	31.7	13.5	100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N	80508	49811	4926	1751	136996
	%	58.8	36.4	3.6	1.3	100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N	45086	61803	25546	4274	136709
	%	33.0	45.2	18.7	3.1	100
안전요원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해야 한다.	N	33467	59842	27952	14900	136161
	%	24.6	43.9	20.5	10.9	100
모든 시민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N	81911	48563	5478	1612	137564
	%	59.5	35.3	4.0	1.2	100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N	62045	63210	9676	2316	137247
	%	45.2	46.1	7.1	1.7	100
정치적 항의는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N	69771	52439	10048	4710	136968
	%	50.9	38.3	7.3	3.4	100
빈부 간의 소득격차는 적어야 한다.	N	51496	55677	21680	7587	136440
	%	37.7	40.8	15.9	5.6	100
국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 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	N	36634	69349	22365	8223	136571
	%	26.8	50.8	16.4	6.0	100

위의 <표 IV-101>에 의하면, 특히,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에 97.9%의 동의를 보였으며, “모든 시민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에 94.8%,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에 92.2%의 동의를 보여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

이들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으로 “항상 법을 준수하기” 의 문항에 89.8%의 중요성 인식을 보여 준법의식을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선거참여”, “환경운동참여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 “열심히 일하기” 도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102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행동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합계
모든 선거 참여	N	58412	54399	20691	4019	137521
	%	42.5	39.6	15.0	2.9	100
정당단체 가입	N	12868	33456	71041	19402	136767
	%	9.4	24.5	51.9	14.2	100
역사학습	N	50412	55702	24553	5582	136249
	%	37.0	40.9	18.0	4.1	100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상의 정치이슈 주시	N	37359	63832	29728	5920	136839
	%	27.3	46.6	21.7	4.3	100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N	40616	65090	24294	6739	136739
	%	29.7	47.6	17.8	4.9	100
정치토론 참여	N	15669	43337	61418	15929	136353
	%	11.5	31.8	45.0	11.7	100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	N	35362	51996	37311	11557	136226
	%	26.0	38.2	27.4	8.5	100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	N	47674	63169	21124	4368	136335
	%	35.0	46.3	15.5	3.2	100
인권 중진 운동 참여	N	53959	59698	18844	3862	136363
	%	39.6	43.8	13.8	2.8	0.0
환경보호운동 참여	N	61438	54712	16255	4043	136448
	%	45.0	40.1	11.9	3.0	100
열심히 일하기	N	53170	58047	20006	5379	136602
	%	38.9	42.5	14.6	3.9	100
항상 법을 준수하기	N	76977	45856	10022	3961	136816
	%	56.3	33.5	7.3	2.9	100

다. 민주 시민 역량(종합) 변수 기초통계분석

민주시민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시민의식 지식관련 역량을 IRT로 척도화한 인지영역 점수로 평균 500, 표준편차 100로 계산한 5개의 시민의식 지식의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 499점 전후로 나타났으며, 성인이 되었을 때 선거에 참여할지를 IRT로 척도(WLE)화한 것으로 평균 50, 표준편차 10로 계산한 선거참여 의지는 평균 50.19로 나타났다.

표 IV-103 민주 시민 역량(종합) 변수 기초통계분석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민주 시민 역량	시민의식 지식(1)	140650	73	887	499.78	99.94
	시민의식 지식(2)	140650	98	901	499.70	99.86
	시민의식 지식(3)	140650	84	907	499.69	99.80
	시민의식 지식(4)	140650	114	902	499.80	99.86
	시민의식 지식(5)	140650	110	919	499.71	99.72
	미래투표의도	133464	24	63	50.19	10.03

(2) 성별에 따른 국제학생의 특징

① 성별에 따른 학교관련 변수의 차이분석

가. 성별에 따른 학교활동 참여의 차이분석

성별에 따른 학교 내 활동 참여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학교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들은 지난 1년 동안 “반장/학생회 임원투표”에 참여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악활동과 드라마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표 IV-104 성별에 따른 학교활동 참여의 차이분석

		남학생		여학생		전체		X ²
		N	%	N	%	N	%	
음악활동 드라마 활동	지난 1년동안 활동하였음	15353	22.6	22146	31.9	37499	27.3	4259.718***
	1년 전에 활동하였음	19715	29.0	25576	36.8	45291	33.0	
	전혀 활동하지 않았음	32872	48.4	21702	31.3	54574	39.7	
	전체	67940	100	69424	100	137364	100	
토론에 적극 참여	지난 1년동안 활동하였음	13831	20.5	16026	23.3	29857	21.9	171.071***
	1년 전에 활동하였음	14242	21.1	14636	21.3	28878	21.2	
	전혀 활동하지 않았음	39383	58.4	38185	55.5	77568	56.9	
	전체	67456	100	68847	100	136303	100	
반장/학생회 임원 투표	지난 1년동안 활동하였음	32942	48.8	37944	55.1	70886	52.0	714.483***
	1년 전에 활동하였음	16377	24.3	16233	23.6	32610	23.9	
	전혀 활동하지 않았음	18144	26.9	14641	21.3	32785	24.1	
	전체	67463	100	68818	100	136281	100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지난 1년동안 활동하였음	11838	17.6	14649	21.3	26487	19.4	432.020***
	1년 전에 활동하였음	13906	20.6	15186	22.1	29092	21.4	
	전혀 활동하지 않았음	41677	61.8	38964	56.6	80641	59.2	
	전체	67421	100	68799	100	136220	100	
학생회 토론 참여	지난 1년동안 활동하였음	13385	20.2	16405	24.2	29790	22.2	482.646***
	1년 전에 활동하였음	13009	19.6	14448	21.3	27457	20.5	
	전혀 활동하지 않았음	39968	60.2	36969	54.5	76937	57.3	
	전체	66362	100	67822	100	134184	100	
반장/학생회 임원출마	지난 1년동안 활동하였음	12863	19.0	14659	21.2	27522	20.1	229.414***
	1년 전에 활동하였음	13226	19.6	14739	21.3	27965	20.5	
	전혀 활동하지 않았음	41562	61.4	39656	57.4	81218	59.4	
	전체	67651	100	69054	100	136705	100	

나. 성별에 따른 학교토론에의 개방성 인식차이

성별에 따른 학급토론에의 개방성 인식의 차이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인식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들의 학교토론에 대한 인식이 남학생에 비하여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통계 분석에서 낮은 개방성을 보인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토론을 권장한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에서 여학생들은 90% 이상의 개방적인 인식을 보였다.

표 IV-105 성별에 따른 학교토론에의 개방성 인식차이

	남학생		여학생		전체		X ²
	N	%	N	%	N	%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전혀 일어나지 않음	8110	11.9	5541	8.0	13651	9.9
	일부 수업에서 일어남	17325	25.5	15138	21.8	32463	23.7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26364	38.8	29235	42.2	55599	40.5
	종종 수업에서 일어남	16107	23.7	19381	28.0	35488	25.9
	전체	67906	100	69295	100	137201	100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격려한다.	전혀 일어나지 않음	6796	10.1	4563	6.6	11359	8.3
	일부 수업에서 일어남	12684	18.8	9951	14.4	22635	16.6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23442	34.7	23127	33.5	46569	34.1
	종종 수업에서 일어남	24680	36.5	31307	45.4	55987	41.0
	전체	67602	100	68948	100	136550	100
선생님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전혀 일어나지 않음	4945	7.3	2664	3.9	7609	5.6
	일부 수업에서 일어남	10078	14.9	7190	10.4	17268	12.7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21238	31.5	19163	27.8	40401	29.6
	종종 수업에서 일어남	31168	46.2	40031	58.0	71199	52.2
	전체	67429	100	69048	100	136477	100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전혀 일어나지 않음	17531	26.0	13826	20.0	31357	23.0
	일부 수업에서 일어남	24453	36.2	25651	37.2	50104	36.7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18249	27.0	21491	31.2	39740	29.1
	종종 수업에서 일어남	7238	10.7	7995	11.6	15233	11.2
	전체	67471	100	68963	100	136434	100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습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전혀 일어나지 않음	7066	10.5	3615	5.2	10681	7.8
	일부 수업에서 일어남	17011	25.2	13771	19.9	30782	22.5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25560	37.9	27616	40.0	53176	38.9
	종종 수업에서 일어남	17892	26.5	24093	34.9	41985	30.7
	전체	67529	100	69095	100	136624	100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전혀 일어나지 않음	13512	20.0	9675	14.0	23187	17.0
	일부 수업에서 일어남	19832	29.4	18012	26.1	37844	27.7

1067.146***

1542.390***

2357.779***

752.286***

2433.762***

1461.001***

이슈토론관장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22342	33.1	25616	37.2	47958	35.2
	종종 수업에서 일어남	11795	17.5	15605	22.6	27400	20.1
	전체	67481	100	68908	100	136389	100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준다.	전혀 일어나지 않음	8229	12.2	4888	7.1	13117	9.6
	일부 수업에서 일어남	14982	22.2	12998	18.8	27980	20.5
	때때로 수업에서 일어남	24563	36.4	25989	37.7	50552	37.0
	종종 수업에서 일어남	19739	29.2	25085	36.4	44824	32.8
	전체	67513	100	68960	100	136473	100
		1564,327***					

다.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 차이분석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현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수칙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에 대해 80%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였다.

표 IV-106 성별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향력 차이분석

	남학생		여학생		전체	X ²
	N	%	N	%		
교수법 (선생님의 수업 방식 또는 수업 방법)	많이 반영됨	14816	21.9	13978	20.2	154.132***
	보통 반영됨	25032	37.0	25462	36.8	
	조금 반영됨	17542	25.9	19798	28.6	
	전혀 반영되지 않음	10321	15.2	9969	14.4	
	전체	67711	100	69207	100	
수업 내용	많이 반영됨	15502	23.0	14863	21.6	190.165***
	보통 반영됨	23272	34.5	22200	32.2	
	조금 반영됨	16215	24.1	17947	26.1	
	전혀 반영되지 않음	12415	18.4	13859	20.1	
	전체	67404	100	68869	100	
교과서 및 학습 자료	많이 반영됨	13879	20.7	13703	19.9	60.144***
	보통 반영됨	21926	32.6	21467	31.2	
	조금 반영됨	17355	25.8	18553	27.0	
	전혀 반영되지 않음	14025	20.9	14973	21.8	
	전체	67185	100	68696	100	
수업 시간표	많이 반영됨	15794	23.5	14678	21.3	416.590***
	보통 반영됨	17860	26.6	16449	23.9	
	조금 반영됨	13398	19.9	13631	19.8	
	전혀 반영되지 않음	20169	30.0	24005	34.9	
	전체	67221	100	68763	100	
학습 수칙	많이 반영됨	19071	28.4	20718	30.1	263.868***
	보통 반영됨	21977	32.7	23792	34.6	
	조금 반영됨	15185	22.6	14908	21.7	
	전혀 반영되지 않음	10981	16.3	9308	13.5	
	전체	67214	100	68726	100	
학교 규칙	많이 반영됨	19739	29.3	19265	28.0	57.472***
	보통 반영됨	16760	24.9	16630	24.2	

방과 후 활동	조금 반영됨	13351	19.8	14304	20.8	27655	20.3
	전혀 반영되지 않음	17412	25.9	18515	26.9	35927	26.4
	전체	67262	100	68714	100	135976	100
	많이 반영됨	14320	21.3	15140	22.1	29460	21.7
	보통 반영됨	23142	34.5	25666	37.4	48808	36.0
	조금 반영됨	18223	27.1	18620	27.1	36843	27.1
	전혀 반영되지 않음	11477	17.1	9163	13.4	20640	15.2
	전체	67162	100	68589	100	135751	100
							402,097***

라. 성별에 따른 교사_학생의 관계

성별에 따른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 있어서 역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하여 선생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관계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나는 우리학교의 아웃사이더인 것 같다” 에 남학생이 14.1%, 여학생이 11.3%가 긍정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학생들이 나를 때릴까 봐 두렵다” 에는 남학생 20.7%, 여학생 23.9%가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7 성별에 따른 학생-교사의 관계

	남학생		여학생		전체		X ²
	N	%	N	%	N	%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를 공정하게 대해준다.	매우 동의함	19854	29.2	21528	31.0	41382	30.1
	동의함	35261	51.9	37953	54.7	73214	53.3
	동의하지 않음	9370	13.8	7819	11.3	17189	12.5
	전혀 동의하지 않음	3464	5.1	2078	3.0	5542	4.0
	전체	67949	100	69378	100	137327	100
학생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잘 지낸다.	매우 동의함	12236	18.1	12614	18.2	24850	18.1
	동의함	35710	52.7	37819	54.6	73529	53.7
	동의하지 않음	16203	23.9	16191	23.4	32394	23.6
	전혀 동의하지 않음	3633	5.4	2635	3.8	6268	4.6
	전체	67782	100	69259	100	137041	100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 복지에 관심을 갖는다.	매우 동의함	17807	26.4	19241	27.8	37048	27.1
	동의함	34511	51.1	37206	53.8	71717	52.5
	동의하지 않음	11605	17.2	10428	15.1	22033	16.1
	전혀 동의하지 않음	3570	5.3	2223	3.2	5793	4.2
	전체	67493	100	69098	100	136591	100
나는 우리학교의 이웃사이터인 것 같다.	매우 동의함	3039	4.5	2256	3.3	5295	3.9
	동의함	6470	9.6	5529	8.0	11999	8.8
	동의하지 않음	24025	35.6	26462	38.4	50487	37.0
	전혀 동의하지 않음	33858	50.2	34647	50.3	68505	50.3
	전체	67392	100	68894	100	136286	100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경청해 준다.	매우 동의함	13435	19.9	14515	21.0	27950	20.5
	동의함	36311	53.8	39071	56.6	75382	55.2
	동의하지 않음	13666	20.3	12737	18.5	26403	19.3
	전혀 동의하지 않음	4039	6.0	2701	3.9	6740	4.9
	전체	67451	100	69024	100	136475	100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선생님들은 내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매우 동의함	18377	27.2	19421	28.1	37798	27.7	239,559***
	동의함	36360	53.8	37974	55.0	74334	54.4	
	동의하지 않음	9260	13.7	9132	13.2	18392	13.5	
	전혀 동의하지 않음	3542	5.2	2472	3.6	6014	4.4	
	전체	67539	100	68999	100	136538	100	
다른 학생들이 나를 때릴까 봐 두렵다.	매우 동의함	4844	7.2	5417	7.9	10261	7.5	351,196***
	동의함	9090	13.5	11002	16.0	20092	14.7	
	동의하지 않음	20869	30.9	22314	32.4	43183	31.6	
	전혀 동의하지 않음	32774	48.5	30228	43.8	63002	46.1	
	전체	67577	100	68961	100	136538	100	

마. 성별에 따른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학생참여에 대한 가치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하여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를 높게 여기고 있었다. 특히, 여학생은 “학생들과 함께 작업할 경우, 긍정적인 학교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와 “모든 학교는 학생회를 가져야만 한다” 에 대해서도 89.0%의 동의를 보여, 같은 질문에 83.9%만 동의를 한 남학생에 비하여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8 성별에 따른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남학생		여학생		전체		X ²
		N	%	N	%	N	%	
학교운영방법에 대한 학생참여는 학교를 더 좋게 만든다.	매우 동의함	22287	32.9	23425	33.8	45712	33.3	709.227***
	동의함	35715	52.7	38511	55.6	74226	54.1	
	동의하지 않음	7419	10.9	6310	9.1	13729	10.0	
	전혀 동의하지 않음	2378	3.5	1063	1.5	3441	2.5	
	전체	67799	100	69309	100	137108	100	
학생들과 함께 작업할 경우, 긍정적인 학교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매우 동의함	25216	37.2	30155	43.4	55371	40.4	1295.232***
	동의함	35684	52.6	35319	50.9	71003	51.7	
	동의하지 않음	5316	7.8	3339	4.8	8655	6.3	
	전혀 동의하지 않음	1570	2.3	612	0.9	2182	1.6	
	전체	67786	100	69425	100	137211	100	
학생들을 대변하는 학생조직은 학교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매우 동의함	19613	29.1	22040	31.9	41653	30.5	1107.114***
	동의함	37267	55.2	40023	57.9	77290	56.6	
	동의하지 않음	8455	12.5	6146	8.9	14601	10.7	
	전혀 동의하지 않음	2177	3.2	909	1.3	3086	2.3	
	전체	67512	100	69118	100	136630	100	
모든 학교는 학생회를 가져야만 한다.	매우 동의함	28735	42.5	31910	46.1	60645	44.4	982.079***
	동의함	27979	41.4	29651	42.9	57630	42.1	
	동의하지 않음	7969	11.8	6295	9.1	14264	10.4	
	전혀 동의하지 않음	2882	4.3	1310	1.9	4192	3.1	
	전체	67565	100	69166	100	136731	100	
학생 혼자보다는 함께 행동한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매우 동의함	25039	37.1	28556	41.3	53595	39.2	1065.333***
	동의함	33309	49.3	34616	50.1	67925	49.7	
	동의하지 않음	6610	9.8	4780	6.9	11390	8.3	
	전혀 동의하지 않음	2539	3.8	1138	1.6	3677	2.7	
	전체	67497	100	69090	100	136587	100	

바. 성별에 따른 학교교육과 관련된 차이분석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라 학교교육 환경 및 효과에 대한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항목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학교에서의 참여”,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학생참여에 대한 가치” 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다소 높은 평균을 보였다.

표 IV-109 성별에 따른 학교교육과 관련된 차이분석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학교에서의 참여	남학생	67974	48.65	10.23	-45.34***
	여학생	69415	51.07	9.62	
학급토론에서의 개방성 인식	남학생	67930	48.57	10.34	-55.60***
	여학생	69382	51.55	9.53	
학교에서의 영향력	남학생	67716	50.75	10.25	4.37***
	여학생	69220	50.51	9.75	
학생-교사의 관계	남학생	67966	49.73	10.25	-18.87***
	여학생	69452	50.75	9.70	
학생참여에 대한 가치	남학생	67823	49.31	10.41	-32.70***
	여학생	69388	51.07	9.51	

② 성별에 따른 시민역량 관련 변수 차이분석

가. 성별에 따른 시민의식 역량차이분석

다음으로 국제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시민 역량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남학생의 경우 매우 동의함에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에 비하여 높았지만,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 응답하는 경향도 여학생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정치적 항의는 폭력적이어서는 안된다”, “빈부 간의 소득차이는 적어야 한다” 는 문항에서 90% 이상의 매우 높은 동의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IV-110 성별에 따른 시민의식 역량차이분석

		남학생		여학생		전체		X ²
		N	%	N	%	N	%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매우 동의함	46156	67.8	51252	73.6	97408	70.7	818.461***
	동의함	19994	29.4	17500	25.1	37494	27.2	
	동의하지 않음	1367	2.0	757	1.1	2124	1.5	
	전혀 동의하지 않음	584	0.9	169	0.2	753	0.5	
	전체	68101	100	69678	100	137779	100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매우 동의함	17703	26.3	14994	21.9	32697	24.1	684.593***
	동의함	28609	42.5	30932	45.1	59541	43.8	
	동의하지 않음	16134	24.0	18938	27.6	35072	25.8	
	전혀 동의하지 않음	4859	7.2	3700	5.4	8559	6.3	
	전체	67305	100	68564	100	135869	100	
기업이나 정부가 모든 신문사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매우 동의함	22246	33.0	18114	26.4	40360	29.7	981.932***
	동의함	27177	40.4	30775	44.9	57952	42.6	
	동의하지 않음	13298	19.7	16004	23.3	29302	21.6	
	전혀 동의하지 않음	4617	6.9	3716	5.4	8333	6.1	
	전체	67338	100	68609	100	135947	100	
경찰은 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을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둘 권리를 가져야 한다.	매우 동의함	15646	23.2	11707	17.0	27353	20.1	1269.426***
	동의함	22902	34.0	24295	35.3	47197	34.7	
	동의하지 않음	19049	28.3	24134	35.1	43183	31.7	
	전혀 동의하지 않음	9783	14.5	8603	12.5	18386	13.5	
	전체	67380	100	68739	100	136119	100	

	남학생		여학생		전체		X ²
	N	%	N	%	N	%	
모든 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매우 동의함	37219	55.2	42951	62.3	80170	58.8
	동의함	25640	38.0	23924	34.7	49564	36.4
	동의하지 않음	3271	4.9	1603	2.3	4874	3.6
	전혀 동의하지 않음	1287	1.9	443	0.6	1730	1.3
	전체	67417	100	68921	100	136338	100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매우 동의함	25735	38.2	19123	27.8	44858	33.0
	동의함	29223	43.4	32313	47.0	61536	45.2
	동의하지 않음	10098	15.0	15323	22.3	25421	18.7
	전혀 동의하지 않음	2273	3.4	1969	2.9	4242	3.1
	전체	67329	100	68728	100	136057	100
안전요원은 국가 안전을 위협할 용의자라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해야 한다.	매우 동의함	17495	26.1	15826	23.1	33321	24.6
	동의함	27722	41.3	31855	46.6	59577	44.0
	동의하지 않음	13143	19.6	14674	21.4	27817	20.5
	전혀 동의하지 않음	8736	13.0	6060	8.9	14796	10.9
	전체	67096	100	68415	100	135511	100
모든 사람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매우 동의함	40390	59.7	41144	59.4	81534	59.6
	동의함	23155	34.2	25190	36.4	48345	35.3
	동의하지 않음	3040	4.5	2401	3.5	5441	4.0
	전혀 동의하지 않음	1081	1.6	509	0.7	1590	1.2
	전체	67666	100	69244	100	136910	100

1435.406***

2211.336***

925.807***

355***

		남학생		여학생		전체		X ²
		N	%	N	%	N	%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매우 동의함	32173	47.6	29568	42.8	61741	45.2	576.692***
	동의함	29176	43.2	33758	48.9	62934	46.1	
	동의하지 않음	4747	7.0	4877	7.1	9624	7.0	
	전혀 동의하지 않음	1437	2.1	854	1.2	2291	1.7	
	전체	67533	100	69057	100	136590	100	
정치적 항의는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매우 동의함	31230	46.3	38243	55.5	69473	51.0	2512.924***
	동의함	26287	39.0	25922	37.6	52209	38.3	
	동의하지 않음	6604	9.8	3361	4.9	9965	7.3	
	전혀 동의하지 않음	3278	4.9	1390	2.0	4668	3.4	
	전체	67399	100	68,916	100	136315	100	
빈부간의 소득차이는 적어야 한다.	매우 동의함	23875	35.5	27405	40.0	51280	37.8	713.090***
	동의함	27250	40.5	28179	41.1	55429	40.8	
	동의하지 않음	11482	17.1	10073	14.7	21555	15.9	
	전혀 동의하지 않음	4607	6.9	2924	4.3	7531	5.5	
	전체	67214	100	68581	100	135795	100	
국가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	매우 동의함	18673	27.8	17803	25.9	36476	26.8	1375.053***
	동의함	31550	46.9	37510	54.6	69060	50.8	
	동의하지 않음	11696	17.4	10543	15.4	22239	16.4	
	전혀 동의하지 않음	5346	7.9	2802	4.1	8148	6.0	
	전체	67265	100	68658	100	135923	100	

나.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 행동사항 차이분석

또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중요한 행동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남녀 간의 의식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항상 법을 준수하기” “환경보호운동 참여”를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반면, 남학생의 경우 “정당 단체 가입”에서 대해 더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 -III 성별에 따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행동사항 차이분석

	남학생		여학생		전체		X ²
	N	%	N	%	N	%	
모든 선거 참여	매우 중요함	29403	43.4	28735	41.5	58138	42.5
	약간 중요함	25876	38.2	28270	40.9	54146	39.6
	중요하지 않음	9907	14.6	10690	15.5	20597	15.0
	전혀 중요하지 않음	2500	3.7	1483	2.1	3983	2.9
	전체	67686	100	69178	100	136864	100
정당단체 가입	매우 중요함	7012	10.4	5772	8.4	12784	9.4
	약간 중요함	16982	25.2	16299	23.7	33281	24.5
	중요하지 않음	33221	49.4	37519	54.5	70740	52.0
	전혀 중요하지 않음	10090	15.0	9218	13.4	19308	14.2
	전체	67305	100	68808	100	136113	100
역사학습	매우 중요함	24855	37.1	25317	36.9	50172	37.0
	약간 중요함	26796	40.0	28650	41.8	55446	40.9
	중요하지 않음	12136	18.1	12307	17.9	24443	18.0
	전혀 중요하지 않음	3230	4.8	2308	3.4	5538	4.1
	전체	67017	100	68582	100	135599	100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상의 정치이슈 주시	매우 중요함	17647	26.2	19535	28.4	37182	27.3
	약간 중요함	30895	45.9	32643	47.4	63538	46.7
	중요하지 않음	15112	22.4	14487	21.0	29599	21.7
	전혀 중요하지 않음	3689	5.5	2179	3.2	5868	4.3
	전체	67343	100	68844	100	136187	100
정부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매우 중요함	18892	28.1	21555	31.3	40447	29.7
	약간 중요함	30906	45.9	33881	49.3	64787	47.6
	중요하지 않음	13162	19.6	11012	16.0	24174	17.8
	전혀 중요하지 않음	4362	6.5	2319	3.4	6681	4.9
	전체	67322	100	68767	100	136089	100

	남학생		여학생		전체		X ²
	N	%	N	%	N	%	
정치토론참여	매우 중요함	8570	12.8	7009	10.2	15579	11.5
	약간 중요함	21479	32.0	21635	31.5	43114	31.8
	중요하지 않음	28742	42.8	32424	47.3	61166	45.1
	전혀 중요하지 않음	8301	12.4	7541	11.0	15842	11.7
	전체	67092	100	68609	100	135701	100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참여	매우 중요함	18248	27.2	16947	24.7	35195	26.0
	약간 중요함	24896	37.1	26851	39.2	51747	38.2
	중요하지 않음	17630	26.3	19515	28.5	37145	27.4
	전혀 중요하지 않음	6307	9.4	5185	7.6	11492	8.5
	전체	67081	100	68498	100	135579	100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참여	매우 중요함	22565	33.6	24886	36.3	47451	35.0
	약간 중요함	30851	46.0	32061	46.8	62912	46.4
	중요하지 않음	10886	16.2	10110	14.7	20996	15.5
	전혀 중요하지 않음	2810	4.2	1516	2.2	4326	3.2
	전체	67112	100	68573	100	135685	100
인권증진 운동 참여	매우 중요함	25187	37.5	28544	41.6	53731	39.6
	약간 중요함	29014	43.2	30422	44.3	59436	43.8
	중요하지 않음	10265	15.3	8463	12.3	18728	13.8
	전혀 중요하지 않음	2637	3.9	1185	1.7	3822	2.8
	전체	67103	100	68614	100	135717	100
환경보호 운동 참여	매우 중요함	28599	42.6	32608	47.5	61207	45.1
	약간 중요함	26397	39.3	28062	40.9	54459	40.1
	중요하지 않음	9245	13.8	6897	10.0	16142	11.9
	전혀 중요하지 않음	2872	4.3	1122	1.6	3994	2.9
	전체	67113	100	68689	100	135802	100
열심히 일하기	매우 중요함	27080	40.3	25894	37.7	52974	39.0
	약간 중요함	27859	41.4	29916	43.5	57775	42.5
	중요하지 않음	9235	13.7	10644	15.5	19879	14.6
	전혀 중요하지 않음	3070	4.6	2259	3.3	5329	3.9
	전체	67244	100	68713	100	135957	100

	남학생		여학생		전체		X ²
	N	%	N	%	N	%	
항상 버을 준수하기	매우 중요함	36667	54.5	40005	58.1	76672	56.3
	약간 중요함	22281	33.1	23344	33.9	45625	33.5
	중요하지 않음	5662	8.4	4295	6.2	9957	7.3
	전혀 중요하지 않음	2723	4.0	1189	1.7	3912	2.9
	전체	67333	100	68833	100	136166	100

942.899***

다.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분석

이들이 민주시민 역량을 새롭게 계산한 “시민의식 지식” 5개 항목과 향후 어른이 되어서의 선거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의 “미래 투표의지” 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 간의 차이분석(t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민의식 지식뿐 아니라 미래투표 의지에 있어서 여학생의 민주시민 역량 변수의 평균이 남학생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2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분석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시민의식 지식(1)	남학생	68985	490.72	101.58	-34.69***
	여학생	70381	509.19	97.20	
시민의식 지식(2)	남학생	68985	490.50	101.65	-35.21***
	여학생	70381	509.23	96.95	
시민의식 지식(3)	남학생	68985	490.67	101.60	-34.53***
	여학생	70381	509.04	96.93	
시민의식 지식(4)	남학생	68985	490.86	101.62	-34.27***
	여학생	70381	509.10	97.02	
시민의식 지식(5)	남학생	68985	490.56	101.38	-35.03***
	여학생	70381	509.17	96.96	
미래투표의도 의지	남학생	65622	49.81	10.35	-14.04***
	여학생	67202	50.58	9.68	

4) 요약 및 소결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사 분석한 IOCS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청소년들의 학교 내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 중, 반장/학생회 임원 투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활동에 소극적이었다. 특히, 음악 및 드라마 활동의 경우, 대한민국 학생들의 10.3%인데 반하여 국제학생들의 경우, 28.0%로 활동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각종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활동 역시 국제학생들의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장 및 학생회 임원 투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학생의 54.1%가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한민국 학생들의 경우, 특정 영역의 활동에 치중하여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비율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둘째, 한국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 개발과 관련된 학교교육 및 교육환경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학교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학급 토론에 있어서도 더 개방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교 선생님과도 관계도 좀 더 공정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학생의 참여가 학교를 더욱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여학생들의 특성은 민주시민 역량에도 영향을 주어 시민의식 지식에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미래 투표의지 역시 남학생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한민국 교실에서는,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토론을 권장한다”는 항목에서 긍정하는 비율이 매우 적은 반면, 국외학생들의 이 두 항목의 비율이 한국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즉, 학교 내에서의 민감한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이슈화에 대한 비율은 한국이 여전히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시민의식 지식에 있어서는 모든 항목에서 국제학생들에 비하여 한국학생들의 지식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제 향후 성인이 되어서의 선거에 참여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국제학생들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한민국 학생들의 민주 시민의식의 지식만큼이나 행동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시민역량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개인 및 가족변수의 경우, 여학생일수록, 기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민주시민 역량이 높았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시민역량 지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의 참여가 많을수록, 학생참여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래 투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기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래에 투표에 참여할 의지가 높았으며, 부모의 정치사회에 대한 기대는 자녀가 미래에 민주시민 역량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학교생활 변수를 추가한 결과, 학교 활동의 참여, 교사 및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역시 미래 투표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 WVS 조사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분석(국제비교)

세계가치관조사(WVS)는 198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자료로 이를 통하여 세계인들의 가치관 변화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종단자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WVS를 통하여 전 세계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 및 이들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WVS자료 중 청소년에 해당하는 조사당시 “17~18세” 라고 응답한 대상의 자료만을 사용하였으며, 1980년대부터 2008년까지 5차에 걸쳐 진행된 조사 가운데, 10년 차이를 반영한 비교분석이 가능한 3차(1995년 조사)와 5차년(2005년 조사)도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자료 중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대상인 대한민국 청소년만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대상에 적합한 숫자가 월등히 적어져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한국청소년을 포함한 OECD국가와 Non_OECD국가의 비교분석함으로 세계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기초 분석

①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 중 OECD가입국의 청소년은 전체의 24.4%(1,136명), 미 가입국은 75.6%로 과반수에 가까운 2304명은 3차년도 조사대상이며, 나머지 2,352명(50.5%)은 5차 년도에 조사된 자료이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전체의 48.7%(2,264명), 여학생이 51.3%(2,385명)이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부모와 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85.2%, 3716명). 가정의 사회적 직위를 물어보는 질문에 전체 중 24.3%에 해당하는 986명만이 중상위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중하위층이라는 응답이 39.8%, 근로자 계층이 22.4%, 하위층이라는 응답도 13.4%를 차지했다.

표 IV-113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WVS)

		N	%
OECD 여부	Non-OECD	3520	75.6
	OECD(대한민국 포함)	1136	24.4
	합계	4656	100
조사년도 (WVS)	3차	2304	49.5
	5차	2352	50.5
	합계	4656	100
성별	남성	2264	48.7
	여성	2385	51.3
	합계	4649	100
기대교육수준	낮음	1382	30.2
	중간	2737	59.8
	높음	460	10.0
	합계	4579	100
부모와의 동거여부	아니오	643	14.8
	예	3716	85.2
	합계	4359	100
사회적 직위	상위층	103	2.5
	중상위층	883	21.8
	중하위층	1611	39.8
	근로계층	907	22.4
	하위층	541	13.4
	합계	4045	100

② 개인생활 및 가족관계 변수

응답자들의 개인생활 및 가족과의 관계와 관련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가. 삶의 만족도 및 행복관련 변수

응답자들은 개인생활과 관련된 변수는 행복감, 건강정도, 삶의 만족도,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정도로 그 기초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전체 중 82.9%가 현재 행복하다고 응답하였으며, 79.1%는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 60.6%가 “만족” 한다는 응답을,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에 있어서는 “매우 자유롭다” 라는 응답이 61.2%를 차지하였다.

표 IV-114 삶의 만족도 및 행복관련 변수

		N	%
행복감	전혀 행복하지 않다	73	1.6
	행복하지 않다	694	15.5
	조금 행복하다	2338	52.1
	아주 행복하다	1381	30.8
	합계	4486	100
건강정도	아주 나쁘다	17	0.4
	나쁘다	130	2.9
	보통이다	791	17.7
	좋다	2026	45.3
	아주 좋다	1512	33.8
	합계	4476	100
삶의 만족도	불만족	726	15.8
	보통	1085	23.6
	만족	2788	60.6
	합계	4599	100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	전혀 아니다	628	1.4
	보통	1060	24.4
	매우 그렇다	2660	61.2
	합계	4348	100

나. 부모 및 가족관계에 관한 변수

응답자들의 가족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모 및 가족관계에 대한 변수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81.4%는 부모를 항상 존경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또한 83.0% 역시 가족들을 “매우 신뢰한다” 는 응답을 보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가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5 부모 및 가족관계 관련 변수

		N	%
부모의 존경정도	일부	401	18.6
	항상	1758	81.4
	합계	2159	100
가족 신뢰정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2	0.6
	아주 많이 신뢰하지 않는다	40	1.9
	조금 신뢰한다	299	14.5
	매우 신뢰한다	1709	83.0
	합계	2060	100

③ 민주 의식 관련 변수

전 세계 청소년들의 민주 의식과 관련된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람신뢰, 사회 활동에의 참여정도, 정치에의 관심도, 개인 및 조직수준에서의 신뢰수준을 확인해 보았다.

가. 민주시민의식 관련 역량 변수

민주시민 의식 전반적인 역량과 관련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표 IV-116 민주 의식 관련 변수

		N	%
얼마나 자주 친구들과 정치와 관련된 이슈를 토론하는가?	전혀 하지 않는다	1020	45.0
	때때로	1077	47.5
	자주한다.	171	7.5
	합계	2268	100
대부분의 사람은 신뢰할만한가?	대부분이 사람은 신뢰할만하다.	973	21.9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한다.	3471	78.1
	합계	4444	100
일자리가 귀할 때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부여해야 한다.	예	1412	32.7
	아니오	2181	50.5
	둘 다 아니다	723	16.8
	합계	4316	100
일자리가 귀할 때는 자국민이 외국인보다 먼저 고용되어야 한다.	예	2948	70.8
	아니오	755	18.1
	둘 다 아니다	461	11.1
	합계	4164	100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매우 그렇다	821	19.5
	그렇다	1214	28.8
	그렇지 않다	1588	37.7
	매우 그렇지 않다	590	14.0
	합계	4213	100
대학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중요하다	매우 그렇다	385	8.9
	그렇다	665	15.4
	그렇지 않다	1948	45.1
	매우 그렇지 않다	1323	30.6
	합계	4321	100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울 의향이 있다.	아니오	936	24.3
	네	2910	75.7
	합계	3846	100

〈표 IV-116〉에 의하면, 과반수를 조금 넘는 55%의 학생들은 친구들과 정치적 이슈에 관하여 때때로, 또는 자주 토론을 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45.0%인 1,020명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78.1%, 3,471명), 과반수 정도의 50.5%는 일자리가 귀할 때에라도 일자리 제공에 있어서 남녀 등 성별의 구별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자국민 보호에 대해서는 70.8%가 자국민에게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나. 적극적 사회참여 관련 변수

적극적 사회참여 활동 관련 변수는 종교나 교회단체에서부터 인권 혹은 자선단체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정도를 조사하였으며, “0”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1”은 “참여는 하지만, 비 적극적이다”, 마지막으로 “2”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응답으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활동가운데, 종교 및 스포츠 또는 예술관련 참여 정도가 다른 활동에 비하여 높았으며, 노동단체나 정당 등의 사회참여 정도는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17 적극적 사회참여 관련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종교나 교회단체	4450	0	2	0.65	0.80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4473	0	2	0.66	0.85
예술, 음악 혹은 교육 문화적 활동	4350	0	2	0.50	0.78
노동단체	4448	0	2	0.16	0.43
정당	4455	0	2	0.18	0.45
환경보호 단체	4393	0	2	0.21	0.50
전문가 단체	4430	0	2	0.16	0.45
인권 혹은 자선단체	4442	0	2	0.22	0.53

다. 정치관심 및 정치활동 관련 변수

세계청소년의 정치관심 및 정치활동 참여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변수는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및 정치적 활동에의 참여정도로 구성할 수 있다. 이들은 4점 만점에 2.14의 정치적 관심 정도를 나타냈으며, 탄원서 및 진정서, 평화적 시위와 같은 정치적 행동에 직접 참여한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8 정치관심 및 정치활동 관련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치에 대한 관심도(전체)	4392	1	4	2.14	0.94
정치적 행동 : 탄원 및 진정서 서명	4100	1	3	1.76	0.72
정치적 행동 : 보이콧에 참여	3961	1	3	1.43	0.60

정치적 행동 : 법적, 평화적 시위에 참여	4083	1	3	1.68	0.67
정치적 행동 : 파업에 참여	2211	1	3	1.35	0.56

라. 신뢰관련 변수

마지막으로 신뢰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119>와 같다.

표 IV-119 신뢰관련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교회	4398	1	4	2.95	0.99
군대	4347	1	4	2.69	0.93
언론기관	4341	1	4	2.41	0.86
노동연합	3879	1	4	2.24	0.86
경찰	4403	1	4	2.50	0.96
의회	4220	1	4	2.31	0.91
행정부	4116	1	4	2.41	0.86
텔레비전	4426	1	4	2.56	0.86
정부	4287	1	4	2.44	0.94
정당	4224	1	4	2.06	0.84
대기업	4129	1	4	2.47	0.86
환경운동단체	4082	1	4	2.73	0.88
여성운동단체	3966	1	4	2.63	0.93
사법제도	4275	1	4	2.52	0.92
EU	2014	1	4	2.54	0.92
UN	3932	1	4	2.64	0.95

분석은 각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수준을 4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을 평균하여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계 청소년들은 다양한 기구 중 교회를 가장 신뢰하고 있었으며(M=2.95). 환경운동단체(2.73), 여성운동단체(2.63) 등 민간운동단체나 UN기구(2.64)가 믿을 만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정당(2.06), 노동연합(2.24), 의회(2.31)에 대한 신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① 성별에 따른 삶의 인식 및 가족관계 변수 차이분석

성별에 따른 세계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차이에 따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행복도가 조금 높았으며, 건강, 삶의 만족도,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 등에서는 성별에 따른 특별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120 성별에 따른 삶의 인식 관련 변수 차이분석

		N	평균	표준편차	t
행복감	남성	2171	3.10	0.72	- 2.014*
	여성	2308	3.14	0.71	
건강상태	남성	2164	4.11	0.82	1.824
	여성	2305	4.07	0.80	
삶의 만족도	남성	2238	6.82	2.44	- 0.947
	여성	2354	6.89	2.38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정도	남성	2103	6.95	2.45	1.547
	여성	2238	6.84	2.34	

반면 이들의 성별에 따른 부모 및 가족관계 신뢰 변수에 차이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1 성별에 따른 가족관계 변수 차이분석

		N	평균	표준편차	t
부모의 존경정도	남자	1023	2.81	0.39	-0.418
	여자	1134	2.82	0.39	
가족 신뢰정도	남자	1021	4.76	0.64	-0.609
	여자	1037	4.78	0.57	

②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 의식관련 변수 차이분석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 의식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IV-122〉참고), 성별에 따라 양성평등과 관련된 질문, 즉, “일자리가 귀할 때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부여해야 한다”,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대학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중요하다” 등에 대해 여학생의 평등을 주장하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울 의향이 있다”에 대한 의견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2

성별에 따른 일반 민주시민 의식 차이분석

		남성		여성		전체		X ²
		N	%	N	%	N	%	
대부분의 사람은 신뢰할 만한가?	믿을만하다	478	22.1	495	21.7	973	21.9	0.109
	조심해야 한다	1681	77.9	1783	78.3	3464	78.1	
	전체	2159	100	2278	100	4437	100	
일자리가 귀할 때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부여해야 한다.	동의 한다	865	41.5	544	24.5	1409	32.7	189.975***
	동의하지 않는다	835	40.0	1342	60.3	2177	50.5	
	둘 다 아니다	385	18.5	338	15.2	723	16.8	
	전체	2085	100	2224	100	4309	100	
일자리가 귀할 때는 자국민이 외국인보다 먼저 고용되어야 한다.	동의 한다	1465	72.1	1478	69.5	2943	70.8	3.427
	동의하지 않는다	351	17.3	402	18.9	753	18.1	
	둘 다 아니다	215	10.6	246	11.6	461	11.1	
	전체	2031	100	2126	100	4157	100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매우 긍정	510	24.9	310	14.3	820	19.5	199.599***
	긍정	695	34.0	518	24.0	1213	28.8	
	부정	654	32.0	930	43.0	1584	37.7	
	강한 부정	186	9.1	403	18.6	589	14.0	
	전체	2045	100	2161	100	4206	100	
대학 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중요하다.	매우 긍정	254	12.2	130	5.8	384	8.9	183.333***
	긍정	429	20.5	235	10.6	664	15.4	
	부정	911	43.6	1034	46.5	1945	45.1	
	강한 부정	495	23.7	826	37.1	1321	30.6	
	전체	2089	100	2225	100	4314	100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울 의향이 있다.	아니오	329	17.3	607	31.3	936	24.4	101.123***
	예	1569	82.7	1334	68.7	2903	75.6	
	전체	1898	100	1941	100	3839	100	

가. 성별에 따른 사회참여 관련 변수 차이분석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정당 및 전문가 단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참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종교나 교회단체”, “예술, 음악 혹은 교육 문화적 활동” “환경보호 단체” “인권 혹은 자선단체”의 참여는 여학생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노동 단체” 참여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3 성별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의 차이분석

		N	평균	표준편차	t
종교나 교회단체	남성	2168	0.60	0.78	-3.880***
	여성	2275	0.70	0.81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남성	2183	0.76	0.88	7.398***
	여성	2283	0.57	0.80	
예술, 음악 혹은 교육 문화적 활동	남성	2112	0.47	0.76	-2.955**
	여성	2231	0.54	0.80	
노동단체	남성	2173	0.17	0.45	2.218*
	여성	2268	0.15	0.40	
정당	남성	2182	0.19	0.47	1.443
	여성	2266	0.17	0.44	
환경보호 단체	남성	2151	0.19	0.48	-2.662**
	여성	2235	0.23	0.53	
전문가 단체	남성	2167	0.16	0.44	-0.791
	여성	2256	0.17	0.46	
인권 혹은 자선단체	남성	2171	0.19	0.49	-3.374**
	여성	2264	0.25	0.56	

나. 성별에 따른 정치관심 관련 변수 차이분석

성별에 따른 정치관심도에 따르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전반적인 정치 관심이 높았으며, 정치활동의 구체적인 행동 중 하나인 “탄원 및 진정서 서명” 등의 활동 역시 여학생보다 조금 높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4 성별에 따른 정치관심 및 정치활동 참여 차이분석

		N	평균	표준편차	t
정치에 대한 관심도(전체)	남성	1065	1.39	0.58	3.762***
	여성	1144	1.31	0.53	
정치적 행동 : 탄원 및 진정서 서명	남성	2122	2.18	0.96	2.467*
	여성	2263	2.11	0.93	
정치적 행동 : 보이콧에 참여	남성	2005	1.73	0.71	-2.335*
	여성	2091	1.78	0.73	
정치적 행동 : 법적, 평화적 시위에 참여	남성	1937	1.45	0.60	1.843
	여성	2020	1.41	0.60	
정치적 행동 : 파업에 참여	남성	1988	1.68	0.68	0.643
	여성	2091	1.67	0.67	

다. 성별에 따른 신뢰관련 변수 차이분석

성별에 따른 집단의 신뢰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의 경우, “교회” 혹은 “여성운동단체”에 대한 신뢰가 남학생에 비하여 높았으며, 남학생은 “군대”, “언론기관”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여학생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5 성별에 따른 다양한 집단신뢰의 차이분석

	Sex	N	평균	표준편차	t
교회	남성	2123	2.90	1.01	-3.269**
	여성	2268	3.00	0.97	
군대	남성	2125	2.77	0.94	5.171***
	여성	2215	2.62	0.91	
언론기관	남성	2111	2.44	0.86	2.009*
	여성	2223	2.39	0.85	
노동연합	남성	1903	2.25	0.88	0.267
	여성	1970	2.24	0.85	
경찰	남성	2157	2.48	0.98	-0.962
	여성	2239	2.51	0.93	
의회	남성	2074	2.33	0.94	1.411
	여성	2139	2.29	0.88	
행정부	남성	2034	2.42	0.89	0.593
	여성	2075	2.40	0.84	
텔레비전	남성	2160	2.57	0.86	1.278
	여성	2259	2.54	0.87	
정부	남성	2098	2.45	0.96	0.779
	여성	2182	2.43	0.92	
정당	남성	2075	2.08	0.86	1.303
	여성	2142	2.04	0.82	
대기업	남성	2037	2.50	0.89	2.359*
	여성	2085	2.44	0.83	
환경운동단체	남성	1999	2.72	0.89	-0.299
	여성	2076	2.73	0.88	
여성운동단체	남성	1892	2.50	0.93	-8.874***
	여성	2067	2.76	0.91	
사법제도	남성	2101	2.54	0.95	1.286
	여성	2167	2.50	0.89	
EU	남성	974	2.52	0.92	-0.878
	여성	1038	2.56	0.93	
UN	남성	1932	2.64	0.97	-0.148
	여성	1993	2.64	0.93	

(3) OECD여부에 따른 차이분석

① OECD여부에 따른 삶의 인식 및 가족관계 변수 차이분석

OECD여부에 따른 케이스 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OECD여부에 따른 세계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Mann-Whitney의 U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OECD국가 학생들의 경우, 건강상태를 제외한 전반적인 행복감, 삶의 만족도, 어떠한 일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자유로움에 있어서 Non_OECD 국가 학생들에 비하여 평균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126 OECD여부에 따른 개인 삶의 인식 변수 차이분석

		N	평균순위	Mann-Whitney의U
행복감	Non-OECD	3350	2,215.47	1,808,916.000 **
	OECD(한국포함)	1136	2,326.14	
건강상태	Non-OECD	3382	2,222.28	1,795,103.500
	OECD(한국포함)	1094	2,288.64	
삶의 만족도	Non-OECD	3475	2,202.72	1,614,908.500 ***
	OECD(한국포함)	1124	2,600.75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정도	Non-OECD	3289	2,138.07	1,621,694.500 **
	OECD(한국포함)	1059	2,287.65	

이들은 부모 및 가족관계 신뢰 변수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부모에 대한 존경에 대한 평균 순위는 Non_OECD국가 학생들이 OECD 학생들에 비하여 높았으며, 가족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OECD여부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27 OECD여부에 따른 가족관계 변수 차이분석

		N	평균순위	Mann-Whitney의U
부모의 존경정도	Non-OECD	1517	1,114.70	434,322.000 ***
	OECD(한국포함)	642	998.01	
가족 신뢰정도	Non-OECD	1613	1,024.40	350,668.000
	OECD(한국포함)	447	1,052.51	

② OECD여부에 따른 민주시민 역량 관련 변수 차이분석

OECD여부에 따른 민주시민 인식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OECD국가 청소년의 차별과 관련된 질문, 즉, “일자리가 귀할 때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부여해야 한다.”, “일자리가 귀할 때는 자국민이 외국인보다 먼저 고용되어야 한다”,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대학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중요하다” 등 모든 항목에 대해 차별을 부정하는 인식이 높았다. 반면,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울 의향이 있다”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오히려 Non_OECD국가 학생들의 긍정적인 응답이 높아, 이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28 OECD여부에 따른 민주시민 인식 차이분석

		Non_OECD		OECD (한국포함)		전체		X ²
		N	%	N	%	N	%	
대부분의 사람은 신뢰할 만한가?	믿을만하다	649	19.4	324	29.7	973	21.9	51.481***
	조심해야 한다	2704	80.6	767	70.3	3471	78.1	
	전체	3353	100	1091	100	4444	100	
일자리가 귀할 때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부여해야 한다.	동의한다	1196	37.4	216	19.4	1412	32.7	134.561** *
	동의하지 않는다	1469	45.9	712	63.8	2181	50.5	
	둘다 아니다	535	16.7	188	16.8	723	16.8	
	전체	3200	100	1116	100	4316	100	
일자리가 귀할 때는 자국민이 외국인보다 먼저 고용되어야 한다.	동의한다	2324	76.0	624	56.4	2948	70.8	183.287** *
	동의하지 않는다	413	13.5	342	30.9	755	18.1	
	둘다 아니다	321	10.5	140	12.7	461	11.1	
	전체	3058	100	1106	100	4164	100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매우 긍정	722	22.6	99	9.8	821	19.5	160.243** *
	긍정	983	30.7	231	22.8	1214	28.8	
	부정	1126	35.2	462	45.7	1588	37.7	
	강한 부정	370	11.6	220	21.7	590	14.0	
	전체	3201	100	1012	100	4213	100	
대학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중요하다.	매우 긍정	341	10.4	44	4.2	385	8.9	79.345***
	긍정	548	16.7	117	11.3	665	15.4	
	부정	1475	44.9	473	45.6	1948	45.1	
	강한 부정	919	28.0	404	38.9	1323	30.6	
	전체	3283	100	1038	100	4321	100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울 의향이 있다.	아니오	645	22.5	291	29.9	936	24.3	21.738***
	예	2227	77.5	683	70.1	2910	75.7	
	전체	2872	100	974	100	3846	100	

가. OECD여부에 따른 사회참여 관련 변수 차이분석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예술, 음악 혹은 교육 문화적 활동을 제외한 다른 모든 참여에서 OECD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특히, OECD국가의 경우,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에서 Non_OECD 국가에 비하여 높은 참여를 보인 반면, 나머지 모든 활동에 있어서는 Non_OECD국가 학생들의 참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9 OECD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의 차이분석

		N	평균순위	Mann-Whitney의U
종교나 교회단체	Non-OECD	3375	2,292.21	1,588,920.500***
	OECD(한국포함)	1075	2,016.07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Non-OECD	3399	2,210.49	1,735,172.000**
	OECD(한국포함)	1074	2,320.88	
예술, 음악 혹은 교육 문화적 활동	Non-OECD	3274	2,187.71	1,721,435.500
	OECD(한국포함)	1076	2,138.35	
노동단체	Non-OECD	3363	2,254.36	1,723,998.000***
	OECD(한국포함)	1085	2,131.94	
정당	Non-OECD	3368	2,278.49	1,660,446.000***
	OECD(한국포함)	1087	2,071.55	
환경보호 단체	Non-OECD	3321	2,231.24	1,666,341.000***
	OECD(한국포함)	1072	2,090.92	
전문가 단체	Non-OECD	3359	2,240.28	1,715,523.500***
	OECD(한국포함)	1071	2,137.80	
인권 혹은 자선단체	Non-OECD	3369	2,246.03	1,724,825.500**
	OECD(한국포함)	1073	2,144.48	

나. OECD여부에 따른 정치관심 관련 변수 차이분석

반면, 이들의 구체적인 정치적 행동은 OECD 국가 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이들은 “보이콧에 참여”, “법적, 평화적 시위에 참여”, “파업에 참여” 등 구체적인 정치참여 활동에 역시 Non_OECD국가학생들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30 OECD에 따른 정치관심 및 정치활동 참여 차이분석

		N	평균순위	Mann-Whitney의 U
정치에 대한 관심도(전체)	Non-OECD	3307	2,198.22	1,788,373.000
	OECD(한국포함)	1085	2,191.27	
정치적 행동 : 탄원 및 진정서 서명	Non-OECD	3017	1,858.00	1,052,925.500***
	OECD(한국포함)	1083	2,586.77	
정치적 행동 : 보이콧에 참여	Non-OECD	2953	1,897.77	1,242,537.000***
	OECD(한국포함)	1008	2,224.82	
정치적 행동 : 법적, 평화적 시위에 참여	Non-OECD	3048	1,969.58	1,356,612.000***
	OECD(한국포함)	1035	2,255.26	
정치적 행동 : 파업에 참여	Non-OECD	1574	1,067.56	440,810.000***
	OECD(한국포함)	637	1,200.99	

다. OECD여부에 따른 신뢰관련 변수 차이분석

마지막으로 이들 집단에 따른 집단의 신뢰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OECD의 경우, “노동연합” 혹은 “경찰”, “환경운동단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았으며, Non_OECD국가 학생의 경우, “교회”, “언론기관”, “텔레비전”, “정부”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1 OECD에 따른 다양한 집단신뢰의 차이분석

		N	평균순위	Mann-Whitney의 U
교회	Non-OECD	3335	2378.366	1,176,035.00***
	OECD(한국포함)	1063	1638.336	
군대	Non-OECD	3269	2174.004	1,761,976.50
	OECD(한국포함)	1078	2173.987	
언론기관	Non-OECD	3258	2216.834	1,614,878.50***
	OECD(한국포함)	1083	2033.116	

노동연합	Non-OECD	2910	1879.433	1,233,645.00***
	OECD(한국포함)	969	2121.889	
경찰	Non-OECD	3317	2153.974	1,641,830.00***
	OECD(한국포함)	1086	2348.686	
의회	Non-OECD	3188	2113.66	1,634,933.50
	OECD(한국포함)	1032	2100.738	
행정부	Non-OECD	3087	2041.574	1,536,012.00
	OECD(한국포함)	1029	2109.277	
텔레비전	Non-OECD	3340	2283.733	1,579,042.50***
	OECD(한국포함)	1086	1997.499	
정부	Non-OECD	3236	2195.934	1,532,460.50***
	OECD(한국포함)	1051	1984.098	
정당	Non-OECD	3182	2104.689	1,632,968.00
	OECD(한국포함)	1042	2136.352	
대기업	Non-OECD	3089	2088.114	1,534,880.50*
	OECD(한국포함)	1040	1996.347	
환경운동 단체	Non-OECD	3034	2005.138	1,479,494.00***
	OECD(한국포함)	1048	2146.769	
여성운동 단체	Non-OECD	2967	1975.305	1,457,702.50
	OECD(한국포함)	999	2007.838	
사법제도	Non-OECD	3205	2115.85	1,643,684.00*
	OECD(한국포함)	1070	2204.347	
EU	Non-OECD	1387	1028.702	405,417.00*
	OECD(한국포함)	627	960.5981	
UN	Non-OECD	2911	1973.605	1,465,383.00
	OECD(한국포함)	1021	1946.243	

(4) OECD여부 및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① OECD여부 및 성별에 따른 삶의 인식 및 가족관계 변수 차이분석

OECD가입국 여부별 성별에 따른 각각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Non_OECD와 OECD를 구분하여 성별에 따른 세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Non_OECD의 경우, 남학생의 건강상태 인식이 여학생보다 높은 차이를 보인 반면, OECD에서의 행복감에 대해서만 여학생의 인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표 IV-132 OECD 및 성별에 따른 삶의 인식 관련 변수 차이분석

		Non-OECD				OECD(한국포함)			
		N	평균	표준 편차	t	N	평균	표준 편차	t
행복감	남성	1608	3.09	0.74	-0.822	563	3.13	0.66	-2.961**
	여성	1737	3.11	0.74		571	3.24	0.61	
건강 상태	남성	1626	4.11	0.81	2.223*	538	4.11	0.86	-0.225
	여성	1751	4.05	0.81		554	4.12	0.78	
삶의 만족도	남성	1679	6.63	2.56	-0.689	559	7.39	1.96	-1.097
	여성	1791	6.69	2.47		563	7.52	1.97	
선택 자유 정도	남성	1580	6.88	2.45	1.312	523	7.17	2.43	0.748
	여성	1704	6.77	2.40		534	7.07	2.10	

반면, OECD 여부를 불문하고,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부모 및 가족관계 신뢰 변수는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3 OECD 및 성별에 따른 가족관계 변수 차이분석

		Non-OECD				OECD(한국포함)			
		N	평균	표준 편차	t	N	평균	표준 편차	t
부모의 존경 정도	남성	698	2.85	0.36	-0.113	325	2.74	0.44	-0.127
	여성	819	2.85	0.36		315	2.74	0.44	
가족 신뢰 정도	남성	806	4.75	0.69	-0.570	215	4.84	0.37	-0.087
	여성	805	4.76	0.60		232	4.84	0.43	

② OECD 및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 의식관련 변수 차이분석

이들의 민주시민의식 차이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OECD여부를 불문하고 “일자리가 귀할 때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부여해야 한다”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대학 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중요하다” 등 양성평등관련 모든 영역에서 남녀 간의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여성의 권리를 위한 인식이 남학생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 반면 Non_OECD의 경우, 차별에 대한 남녀 간 인식의 차이의 비율이 OECD학생의 차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4 OECD 및 성별에 따른 일반 민주시민 의식 차이분석

	Non-OECD						OECD(한국포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n	%	n	%	n	%	n	%	n	%	n	%
대부분의 사람은 신뢰할 만한가?	믿을만하다						316	19.5	333	19.2	162	29.9
	조심해야 한다						1,301	80.5	1,398	80.8	380	70.1
	전체						1,617	100	1,731	100	542	100
일자리가 귀할 때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동의를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737	48.0	456	27.5	128	23.3
	동의하지 않는다						527	34.3	940	56.7	308	56.1
	둘다 아니다						272	17.7	263	15.9	113	20.6
일자리가 귀할 때는 자국민이 외국인보다 먼저 고용되어야 한다.	전체						1,536	100	1,659	100	549	100
	동의한다						1,140	77.1	1,179	74.9	325	58.8
	동의하지 않는다						186	12.6	227	14.4	165	29.8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둘다 아니다						152	10.3	169	10.7	63	11.4
	전체						1,478	100	1,575	100	553	100
	매우 긍정						448	29.0	273	16.5	62	12.4
대학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중요하다.	긍정						539	34.9	443	26.8	156	31.2
	부정						444	28.7	680	41.2	210	42.0
	강한 부정						114	7.4	255	15.4	72	14.4
대학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중요하다.	전체						1,545	100	1,651	100	500	100
	매우 긍정						217	13.8	123	7.2	37	7.2
	긍정						354	22.5	193	11.3	75	14.6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울 의향이 있다.	부정						669	42.5	805	47.3	242	47.1
	강한 부정						335	21.3	582	34.2	160	31.1
	전체						1,575	100	1,703	100	514	100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울 의향이 있다.	아니오						231	16.3	414	28.6	98	20.4
	예						1,186	83.7	1,036	71.4	383	79.6
	전체						1,417	100	1,450	100	481	100

가. OECD 및 성별에 따른 사회참여 관련 변수 차이분석

이들의 사회참여 관련 변수의 차이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on_OECD의 경우, 성별에 따라 “종교나 교회단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노동단체” “환경보호 단체” 활동에 차이를 보인 반면, OECD 학생은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과 “인권 혹은 자선단체” 에서 성별에 따른 사회참여의 차이를 보였다. Non-OECD의 경우, 여학생은 종교와 예술 활동, 환경보호 활동에서 남학생보다 높은 참여를 보였으며, 남학생은 스포츠 활동과 노동단체 활동에서 높은 참여를 보였으며, OECD의 여학생은 인권 혹은 자선단체 활동에서 남학생에 비하여 높은 참여를 보여주고 있었다.

표 IV-135 OECD 및 성별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의 차이분석

		Non_OECD				OECD(한국포함)			
		N	평균	표준 편차	t	N	평균	표준 편차	t
종교나 교회단체	남성	1639	0.64	0.79	-3.812** *	529	0.48	0.72	-1.022
	여성	1731	0.75	0.83		544	0.53	0.74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남성	1654	0.74	0.86	7.059***	529	0.81	0.92	2.613**
	여성	1740	0.54	0.78		543	0.67	0.86	
예술, 음악 혹은 교육 문화적 활동	남성	1583	0.47	0.76	-2.491*	529	0.45	0.77	-1.583
	여성	1686	0.54	0.79		545	0.53	0.82	
노동단체	남성	1637	0.19	0.46	2.330*	536	0.13	0.42	0.398
	여성	1721	0.15	0.40		547	0.12	0.39	
정당	남성	1644	0.21	0.50	1.260	538	0.10	0.36	0.864
	여성	1719	0.19	0.46		547	0.08	0.33	
환경보호 단체	남성	1622	0.21	0.50	-2.162*	529	0.12	0.41	-1.614
	여성	1694	0.24	0.54		541	0.17	0.47	
전문가 단체	남성	1639	0.17	0.45	-0.605	528	0.12	0.41	-0.522
	여성	1715	0.18	0.46		541	0.13	0.45	
인권 혹은 자선단체	남성	1642	0.21	0.50	-1.838	529	0.13	0.44	-3.580** *
	여성	1722	0.25	0.54		542	0.25	0.60	

나. OECD 및 성별에 따른 정치관심 관련 변수 차이분석

이들의 정치관심 및 정치적 활동 참여의 특성을 살펴보면, Non_OECD의 경우, 남학생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전체)”에서 여학생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으면, 보이콧과 파업과 같은 정치적 활동에도 적극적인 성향을 보였다.

반면 OECD학생의 경우, “탄원 및 진정서 서명”에만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이 분야에서의 여학생의 참여가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36 OECD 및 성별에 따른 정치관심 및 정치활동 참여 차이분석

		Non-OECD				OECD(한국포함)			
		N	평균	표준 편차	t	N	평균	표준 편차	t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전체)	남성	1588	2.18	0.96	1.966*	534	2.17	0.96	1.558
	여성	1714	2.12	0.94		549	2.09	0.87	
정치적 행동 : 탄원 및 진정서 서명	남성	1469	1.60	0.66	-1.745	536	2.08	0.74	-2.084*
	여성	1546	1.64	0.68		545	2.17	0.74	
정치적 행동 : 보이콧에 참여	남성	1437	1.40	0.58	2.028*	500	1.57	0.64	0.122
	여성	1514	1.36	0.59		506	1.57	0.61	
정치적 행동 : 법적, 평화적 시위에 참여	남성	1480	1.64	0.68	0.686	508	1.81	0.67	0.032
	여성	1566	1.62	0.66		525	1.80	0.66	
정치적 행동 : 파업에 참여	남성	742	1.37	0.58	4.062**	323	1.45	0.58	0.425
	여성	832	1.26	0.50		312	1.43	0.57	

다. OECD 및 성별에 따른 신뢰관련 변수 차이분석

기관별 신뢰정도를 살펴보면 Non_OECD의 학생들은 남녀간 “교회”, “군대”, “대기업”, “여성운동단체”에 대한 신뢰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은 군대와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은 반면, 여학생은 교회와 여성운동단체를 높은 신뢰하고 있었다. 또한 OECD 역시, “군대”, “경찰”, “여성운동단체”에 대한 신뢰에서 남녀 간 인식의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은 군대를 신뢰하는 정도가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여학생은 “경찰”과, “여성운동단체”를 남학생에 비하여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7 OECD 및 성별에 따른 다양한 집단신뢰의 차이분석

		Non-OECD				OECD(한국포함)			
		N	평균	표준 편차	t	N	평균	표준 편차	t
교회	남성	1598	3.04	0.97	-3.109* *	525	2.46	1.01	-0.950
	여성	1732	3.14	0.92		536	2.52	0.97	
군대	남성	1592	2.77	0.94	4.358** *	533	2.77	0.94	2.801**
	여성	1672	2.63	0.93		543	2.62	0.87	
언론기관	남성	1578	2.48	0.87	1.875	533	2.33	0.80	0.837
	여성	1675	2.42	0.86		548	2.29	0.84	
노동연합	남성	1422	2.19	0.90	-0.455	481	2.41	0.80	1.377
	여성	1484	2.21	0.86		486	2.34	0.78	
경찰	남성	1622	2.46	1.00	0.097	535	2.54	0.94	-2.271*
	여성	1690	2.46	0.95		549	2.67	0.86	
의회	남성	1560	2.34	0.95	1.484	514	2.30	0.88	0.209
	여성	1623	2.29	0.91		516	2.28	0.78	
행정부	남성	1521	2.42	0.91	1.020	513	2.42	0.83	-0.683
	여성	1561	2.38	0.86		514	2.46	0.77	
텔레비전	남성	1625	2.63	0.87	1.282	535	2.41	0.79	0.401
	여성	1710	2.59	0.87		549	2.39	0.83	
정부	남성	1577	2.50	0.96	1.088	521	2.30	0.92	-0.310
	여성	1654	2.46	0.95		528	2.32	0.84	
정당	남성	1562	2.08	0.88	1.384	513	2.07	0.79	0.156
	여성	1615	2.04	0.84		527	2.06	0.76	
대기업	남성	1519	2.52	0.90	2.130*	518	2.44	0.84	1.049
	여성	1565	2.45	0.86		520	2.39	0.75	
환경운동 단체	남성	1485	2.71	0.91	0.404	514	2.78	0.84	-1.432
	여성	1544	2.69	0.91		532	2.85	0.77	
여성운동 단체	남성	1412	2.49	0.95	-7.397* **	480	2.51	0.87	5.001** *
	여성	1550	2.75	0.92		517	2.79	0.87	
사법 제도	남성	1576	2.54	0.96	1.946	525	2.54	0.91	-0.916
	여성	1624	2.47	0.92		543	2.59	0.81	
EU	남성	654	2.56	0.96	-0.673	320	2.45	0.84	-0.412
	여성	731	2.59	0.93		307	2.48	0.91	
UN	남성	1424	2.66	0.98	0.604	508	2.59	0.92	-1.409
	여성	1482	2.64	0.96		511	2.67	0.86	

(5) 조사년도 및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① 조사년도 및 성별에 따른 삶의 인식 및 가족관계 변수 차이분석

각 조사년도별 성별에 따른 세계 청소년의 삶의 인식 및 가족관계 변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3차 조사의 경우 성별에 따른 삶의 인식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5차년도 자료(2005년~2008년)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정도”에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여학생은 행복감과 건강상태에서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138 조사년도 및 성별에 따른 삶의 인식 관련 변수 차이분석

		3차년도				5차년도			
		N	평균	표준 편차	t	N	평균	표준 편차	t
행복감	남성	1032	3.02	0.71	-0.988	1139	3.17	0.72	-1.977*
	여성	1126	3.05	0.70		1182	3.23	0.72	
건강상태	남성	1021	4.02	0.86	0.077	1143	4.20	0.78	2.419*
	여성	1118	4.02	0.80		1187	4.12	0.79	
삶의 만족도	남성	1100	6.61	2.53	-0.908	1138	7.03	2.33	-0.476
	여성	1174	6.71	2.47		1180	7.07	2.28	
선택 자유정도	남성	978	6.66	2.63	0.045	1125	7.21	2.24	2.113*
	여성	1067	6.65	2.42		1171	7.02	2.25	

반면, 각 조사년도별 성별에 따른 부모 및 가족관계 신뢰 변수에 차이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9 조사년도 및 성별에 따른 가족관계 변수 차이분석

		3차년도				5차년도			
		N	평균	표준 편차	t	N	평균	표준 편차	t
부모존경 정도	남성	996	2.81	0.39	-0.290	-	-	-	-
	여성	1095	2.82	0.39		-	-	-	
가족 신뢰정도	남성	-	-	-	-	1021	4.76	0.64	-0.609
	여성	-	-	-		1037	4.78	0.57	

② 조사년도 및 성별에 따른 민주시민 의식관련 변수 차이분석

이들의 민주시민 의식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사년도에 상관없이 양성평등과 관련된 문항에서의 성별에 따른 남녀 간의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만, 3차년도에 비하여 5차년도 조사의 경우, 일자리의 남성우선을 부정하는 비율이 남녀 모두에게서 뚜렷하게 높아진 것을 통해 일자리에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 변화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표 IV-140 조사년도 및 성별에 따른 일반 민주시민 의식 차이분석

	3차년도						5차년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N	%	N	%	N	%	N	%	N	%	N	%
대부분의 사람은 신뢰할 만한가?	믿을만하다	236	22.3	243	21.4		242	22.0	252	22.1		
	조심해야 한다	822	77.7	895	78.6	0.292	859	78.0	888	77.9	0.005	
	전체	1058	100	1138	100		1101	100	1140	100		
일자리가 귀할 때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부여해야 한다.	동의한다	434	42.6	296	26.6		431	40.4	248	22.3		
	동의하지 않는다	364	35.7	627	56.3	94.262***	471	44.2	715	64.4	99.453***	
	둘다 아니다	221	21.7	190	17.1		164	15.4	148	13.3		
	전체	1019	100	1113	100		1066	100	1111	100		
일자리가 귀할 때는 자국민이 외국인보다 먼저 고용되어야 한다.	동의한다	695	70.4	744	70.7		770	73.8	734	68.3		
	동의하지 않는다	181	18.3	194	18.4	0.087	170	16.3	208	19.4	7.580*	
	둘다 아니다	111	11.2	114	10.8		104	10.0	132	12.3		
	전체	987	100	1052	100		1044	100	1074	100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매우 긍정	255	27.0	172	16.9		255	23.2	138	12.1		
	긍정	315	33.4	227	22.3		380	34.5	291	25.5		
	부정	296	31.4	446	43.8	94.589***	358	32.5	484	42.4	108.224***	
	강한 부정	78	8.3	174	17.1		108	9.8	229	20.1		
	전체	944	100	1019	100		1101	100	1142	100		
대학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중요하다.	매우 긍정	134	13.9	70	6.6		120	10.7	60	5.1		
	긍정	206	21.3	123	11.6		223	19.9	112	9.6		
	부정	406	42.0	476	45.1	88.689***	505	45.0	558	47.7	96.207***	
	강한 부정	220	22.8	387	36.6		275	24.5	439	37.6		
	전체	966	100	1056	100		1123	100	1169	100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울 의향이 있다.	아니오	128	13.8	260	26.9		201	20.7	347	35.6		
	예	797	86.2	707	73.1	49.385***	772	79.3	627	64.4	53.926***	
	전체	925	100	967	100		973	100	974	100		

가. 조사년도 및 성별에 따른 사회참여 관련 변수 차이분석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3차년도의 90년대의 경우, 종교교회단체, 문화적 활동, 인권 혹은 자선단체 활동에서 여학생의 참여가 두드러진 반면, 남학생은 스포츠 관련활동을 즐겨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5차년도의 분석결과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1 조사년도 및 성별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의 차이분석

		3차년도				5차년도			
		N	평균	표준 편차	t	N	평균	표준 편차	t
종교나 교회단체	남성	1064	0.55	0.74	-2.473*	1104	0.65	0.81	-3.107**
	여성	1150	0.63	0.77		1125	0.76	0.84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남성	1082	0.75	0.85	5.755***	1101	0.76	0.90	4.716***
	여성	1163	0.55	0.77		1120	0.59	0.83	
예술, 음악 혹은 교육 문화적 활동	남성	1016	0.49	0.76	-2.127*	1096	0.44	0.76	-2.005*
	여성	1109	0.57	0.80		1122	0.51	0.79	
노동단체	남성	1089	0.22	0.50	1.878	1084	0.13	0.40	1.379
	여성	1169	0.18	0.42		1099	0.10	0.37	
정당	남성	1089	0.20	0.47	0.858	1093	0.17	0.47	1.257
	여성	1168	0.19	0.43		1098	0.14	0.44	
환경보호 단체	남성	1061	0.23	0.52	-1.212	1090	0.14	0.43	-2.525**
	여성	1133	0.25	0.53		1102	0.20	0.53	
전문가 단체	남성	1081	0.19	0.47	0.055	1086	0.12	0.41	-1.127
	여성	1161	0.19	0.46		1095	0.14	0.46	
인권 혹은 자선단체	남성	1081	0.21	0.49	-2.745**	1090	0.18	0.49	-1.977*
	여성	1163	0.27	0.55		1101	0.22	0.56	

나. 조사년도 및 성별에 따른 정치관심 관련 변수 차이분석

이들의 정치관심도와 정치활동에의 참여에 따른 차이에 의하면, 3차년도의 경우, 보이콧이나 파업에 남학생의 참여가 높은 반면, 최근으로 올수록 성별에 따른 정치관심과 정치적 활동의 참여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2 조사년도 및 성별에 따른 정치관심 및 정치활동 참여 차이분석

		3차년도				5차년도			
		N	평균	표준 편차	t	N	평균	표준 편차	t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전체)	남성	992	2.14	0.93	1.936	1130	2.22	0.99	1.522
	여성	1090	2.06	0.89		1173	2.16	0.96	
정치적 행동 : 탄원 및 진정서 서명	남성	1021	1.77	0.71	-1.747	984	1.69	0.71	-1.515
	여성	1081	1.82	0.74		1010	1.74	0.72	
정치적 행동 : 보이콧에 참여	남성	962	1.47	0.62	2.026*	975	1.43	0.58	0.582
	여성	1025	1.41	0.59		995	1.41	0.61	
정치적 행동 : 법적, 평화적 시위에 참여	남성	1002	1.68	0.67	0.996	986	1.69	0.69	-0.099
	여성	1076	1.65	0.65		1015	1.69	0.68	
정치적 행동 : 파업에 참여	남성	983	1.38	0.57	3.932***	82	1.51	0.67	0.230
	여성	1054	1.29	0.51		90	1.49	0.66	

다. 조사년도 및 성별에 따른 신뢰관련 변수 차이분석

시간의 변화에 따른 성별 집단신뢰에 따른 차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3차년도 조사에는 교회, 군대, 대기업, 여성운동단체, EU기관에 대한 성별 인식의 차이가 보인 반면, 최근조사에서는 군대와 여성운동단체에 따른 차이만을 보이고 있었다.

표 IV-143 조사년도 및 성별에 따른 다양한 집단신뢰의 차이분석

		3차년도				5차년도			
		N	평균	표준 편차	t	N	평균	표준 편차	t
교회	남성	1015	2.81	1.02	-3.550***	1108	2.98	0.99	-1.164
	여성	1119	2.96	0.98		1149	3.03	0.96	
군대	남성	1047	2.75	0.95	4.252***	1078	2.79	0.93	3.054**
	여성	1100	2.58	0.91		1115	2.67	0.92	
언론기관	남성	1030	2.44	0.86	0.939	1081	2.44	0.86	1.912
	여성	1111	2.41	0.85		1112	2.37	0.85	
노동연합	남성	936	2.19	0.90	0.734	967	2.30	0.87	-0.358
	여성	969	2.16	0.84		1001	2.31	0.84	

		3차년도				5차년도			
		N	평균	표준 편차	t	N	평균	표준 편차	t
경찰	남성	1051	2.37	1.00	-1.099	1106	2.59	0.96	-0.378
	여성	1116	2.42	0.93		1123	2.61	0.93	
의회	남성	1014	2.26	0.93	0.310	1060	2.40	0.94	1.616
	여성	1063	2.25	0.85		1076	2.33	0.90	
행정부	남성	982	2.39	0.92	-0.119	1052	2.44	0.86	0.945
	여성	1016	2.39	0.83		1059	2.41	0.84	
텔레비전	남성	1043	2.58	0.85	0.903	1117	2.57	0.87	0.906
	여성	1112	2.54	0.85		1147	2.54	0.88	
정부	남성	1024	2.38	0.96	0.241	1074	2.52	0.95	0.803
	여성	1083	2.37	0.90		1099	2.48	0.94	
정당	남성	1005	2.03	0.85	0.980	1070	2.12	0.87	0.815
	여성	1061	2.00	0.80		1081	2.09	0.84	
대기업	남성	991	2.58	0.91	2.430*	1046	2.42	0.87	0.970
	여성	1029	2.49	0.82		1056	2.39	0.84	
환경운동단체	남성	949	2.76	0.94	0.327	1050	2.69	0.85	-0.747
	여성	1012	2.75	0.91		1064	2.72	0.85	
여성운동단체	남성	890	2.42	0.96	-6.336***	1002	2.56	0.89	-6.269***
	여성	983	2.70	0.94		1084	2.81	0.87	
사법제도	남성	1034	2.47	0.94	0.711	1067	2.61	0.95	1.030
	여성	1091	2.44	0.87		1076	2.57	0.91	
EU	남성	525	2.54	0.91	-1.973*	449	2.51	0.94	0.606
	여성	524	2.65	0.89		514	2.47	0.95	
UN	남성	915	2.71	0.97	-0.740	1017	2.58	0.96	0.485
	여성	944	2.74	0.90		1049	2.55	0.95	

(6) 조사년도 및 OECD여부에 따른 인식차이분석

① 조사년도 및 OECD여부에 따른 삶의 인식 및 가족관계 변수 차이분석

조사년도에 따른 OECD가입 여부에 따른 세계 청소년의 삶의 인식의 차이에 의하면, 과거 3차년도 자료의 경우, OECD학생들의 경우, “행복감” “삶의 만족도”,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정도”에 있어서 Non_OECD에 비하여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5차년도의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건강상태”는 OECD여부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144 조사년도 및 OECD여부에 따른 삶의 인식 관련 변수 차이분석

		3차년도			5차년도		
		N	평균순위	Mann-Whitney의 U	N	평균순위	Mann-Whitney의 U
행복감	Non_OECD	1481	1,051.98	460561*	1869	1,150.62	403002.5*
	OECD(한국포함)	679	1,142.71		457	1,216.16	
건강상태	Non_OECD	1504	1,058.45	460146.5	1878	1,157.74	409847.5
	OECD(한국포함)	637	1,100.64		457	1,210.18	
삶의 만족도	Non_OECD	1608	1,081.97	446165.5***	1867	1,113.57	335255***
	OECD(한국포함)	668	1,274.59		456	1,360.29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정도	Non_OECD	1438	1,004.73	410160*	1851	1,126.61	371326.5***
	OECD(한국포함)	609	1,069.50		450	1,251.33	

반면, 90년대 3차년도 조사의 Non_OECD 청소년은 OECD 학생들에 비하여 부모 존경정도가 높은 반면, 가족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45 조사년도 및 OECD여부에 따른 가족관계 변수 차이분석

		3차년도			5차년도		
		N	평균순위	Mann-Whitney의 U	N	평균순위	Mann-Whitney의 U
부모 존경정도	Non_OECD	1475	1,079.86	407300***	-	-	-
	OECD (한국포함)	618	968.56		-	-	
가족 신뢰정도	Non_OECD	-	-	-	1613	1,024.40	350668
	OECD(한국포함)	-	-		447	1,052.51	

② 조사년도 및 OECD여부에 따른 민주시민 의식관련 변수 차이분석

조사년도에 따른 OECD별 모든 영역에서의 민주시민의식에 차이를 보였다. 특히, 3차년도의 “대부분의 사람은 신뢰할 만한가?” 에서 OECD가입국 학생들의 믿을만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비가입국 청소년에 비하여 다소 높았으며, 일자리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국적평등 등 평등에 대한 인식 역시 OECD국가 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5차년도 조사에서는 OECD와 Non_OECD 간의 인식 비율의 차이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46 조사년도 및 OECD여부에 따른 일반 민주시민 의식 차이분석

		3차년도						5차년도					
		Non_OECD			OECD (한국포함)			Non_OECD			OECD (한국포함)		
		n	%		n	%		n	%		n	%	X2
대부분의 사람은 신뢰할 만한가?	믿을만하다	305	19.7		174	26.6		344	19.0		150	34.2	
	조심해야 한다	1240	80.3		479	73.4	12.841***	1464	81.0		288	65.8	47.605***
	전체	1545	100		653	100		1808	100		438	100	
일자리가 귀할 때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부여해야 한다.	동의한다	584	39.8		146	22.0		612	35.4		70	15.5	
	동의하지 않는다	611	41.6		382	57.4	68.020***	858	49.6		330	73.2	85.200***
	둘다 아니다	274	18.7		137	20.6		261	15.1		51	11.3	
	전체	1469	100		665	100		1731	100		451	100	
일자리가 귀할 때는 자국민이 외국인보다 먼저 고용되어야 한다.	동의한다	1045	75.5		394	60.1		1279	76.4		230	51.1	
	동의하지 않는다	195	14.1		182	27.7	61.156***	218	13.0		160	35.6	135.609***
	둘다 아니다	145	10.5		80	12.2		176	10.5		60	13.3	
	전체	1385	100		656	100		1673	100		450	100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매우 긍정	355	25.7		72	12.4		367	20.2		27	6.3	
	긍정	402	29.0		140	24.1		581	32.0		91	21.1	
	부정	482	34.8		262	45.1	68.245***	644	35.4		200	46.4	107.834***
	강한 부정	145	10.5		107	18.4		225	12.4		113	26.2	
	전체	1384	100		581	100		1817	100		431	100	
대학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중요하다.	매우 긍정	174	12.1		30	5.1		167	9.0		14	3.1	
	긍정	244	17.0		85	14.4		304	16.4		32	7.1	
	부정	608	42.4		276	46.8	28.076***	867	46.9		197	44.0	75.943***
	강한 부정	408	28.5		199	33.7		511	27.6		205	45.8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울 의향이 있다.	전체	1434	100		590	100		1849	100		448	100	
	아니오	243	18.3		145	25.6		402	26.0		146	35.9	
	예	1084	81.7		422	74.4	12.859***	1143	74.0		261	64.1	15.487***
	전체	1327	100		567	100		1545	100		407	100	

가. 조사년도 및 OECD여부에 따른 사회참여 관련 변수 차이분석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3차년도의 경우 스포츠 활동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Non_OECD 청소년의 평균 순위가 높았던 반면, 5차년도에서는 오직 종교나 교회단체, 정당, 환경보호 영역에서만 차이를 보인 반면, 다른 영역에서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47 조사년도 및 OECD여부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의 차이분석

		3차년도			5차년도		
		N	평균순위	Mann-Whitney의 U	N	평균순위	Mann-Whitney의 U
종교나 교회단체	Non_OECD	1593	1,125.29	469477**	1782	1,161.96	323503***
	OECD(한국포함)	623	1,065.57		452	942.21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Non_OECD	1625	1,100.71	467534.5	1774	1,108.48	392026
	OECD(한국포함)	622	1,184.84		452	1,133.19	
예술, 음악 혹은 교육 문화적 활동	Non_OECD	1505	1,072.29	455578.5***	1769	1,118.42	390210.5
	OECD(한국포함)	622	1,043.94		454	1,086.99	
노동단체	Non_OECD	1625	1,163.79	461844***	1738	1,097.07	386584.5
	OECD(한국포함)	635	1,045.31		450	1,084.58	
정당	Non_OECD	1625	1,172.50	446057***	1743	1,110.72	373489.5**
	OECD(한국포함)	634	1,021.06		453	1,051.48	
환경보호 단체	Non_OECD	1575	1,126.33	445207.5***	1746	1,109.84	374805**
	OECD(한국포함)	621	1,027.92		451	1,057.05	
전문가 단체	Non_OECD	1624	1,144.48	467749***	1735	1,099.91	380116
	OECD(한국포함)	620	1,064.93		451	1,068.83	
인권 혹은 자선단체	Non_OECD	1625	1,149.19	462814.5***	1744	1,100.83	390081
	OECD(한국포함)	621	1,056.27		452	1,089.51	

나. 조사년도 및 OECD여부에 따른 정치관심 관련 변수 차이분석

반면, 이들의 정치활동에 있어서는 OECD청소년의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탄원 및 진정서 서명”, “보이콧에 참여”, “법적, 평화적 시위에 참여”, “파업에 참여” 등 모든 영역 OECD 학생들의 정치참여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경향은 3차년도 뿐 아니라 5차년도 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표 IV-148 조사년도 및 OECD여부에 따른 정치관심 및 정치활동 참여 차이분석

	3차년도			5차년도		
	N	평균순위	Mann-Whitney의 U	N	평균순위	Mann-Whitney의 U
정치에 대한 관심도(전체)	Non_OECD	1,028.10	437500.5	1854	1,164.64	402050.5
	OECD(한국포함)	1,075.66		454	1,113.07	
정치적 행동 : 의원 및 진정서 서명	Non_OECD	947.24	317465***	1559	914.50	209689.5***
	OECD(한국포함)	1,290.07		437	1,298.16	
정치적 행동 : 보이콧에 참여	Non_OECD	946.87	346719.5***	1557	951.50	268575.5***
	OECD(한국포함)	1,108.31		415	1,117.83	
정치적 행동 : 법적, 평화적 시위에 참여	Non_OECD	1,002.53	389236***	1571	966.52	283598.5***
	OECD(한국포함)	1,133.50		432	1,131.02	
정치적 행동 : 파업에 참여	Non_OECD	993.43	386660.5***	120	74.70	1704***
	OECD(한국포함)	1,086.04		52	113.73	

다. 조사년도 및 OECD여부에 따른 신뢰관련 변수 차이분석

이들의 집단 신뢰정도를 살펴보면, 90년대의 3차년도 자료에 의하면 교회, 언론, 텔레비전, 정부, UN에 대한 신뢰는 Non_OECD가 높았고, 노동연합, 행정부, 환경운동단체는 OECD국가 청소년의 신뢰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5차년도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다만, 최근으로 올수록 Non_OECD 청소년의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으며, OECD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49 조사년도 및 OECD여부에 따른 다양한 집단신뢰의 차이분석

		3차년도			5차년도		
		N	평균순위	Mann-Whitney의 U	N	평균순위	Mann-Whitney의 U
교회	Non_OECD	1516	1,153.20	341551.5***	1819	1,221.58	239061.5***
	OECD(한국포함)	620	861.39		443	761.64	
군대	Non_OECD	1521	1,073.75	475695.5	1748	1,098.43	391421.5
	OECD(한국포함)	628	1,078.02		450	1,103.67	
언론기관	Non_OECD	1511	1,090.68	449243*	1747	1,127.23	345506***
	OECD(한국포함)	632	1,027.33		451	992.09	
노동연합	Non_OECD	1338	906.96	317720.5***	1572	966.52	282999**
	OECD(한국포함)	569	1,064.62		400	1,065.00	
경찰	Non_OECD	1535	1,041.25	419440***	1782	1,103.36	377528*
	OECD(한국포함)	634	1,190.92		452	1,173.26	
의회	Non_OECD	1478	1,034.24	435624.5	1710	1,075.81	360279
	OECD(한국포함)	601	1,054.17		431	1,051.91	
행정부	Non_OECD	1395	975.79	387521.5**	1692	1,063.60	350074.5
	OECD(한국포함)	605	1,057.47		424	1,038.15	
텔레비전	Non_OECD	1525	1,108.68	436642.5***	1815	1,175.41	338669.5***
	OECD(한국포함)	632	1,007.39		454	973.47	
정부	Non_OECD	1494	1,084.60	415179***	1742	1,108.31	346997**
	OECD(한국포함)	615	983.09		436	1,014.36	

		3차년도			5차년도		
		N	평균순위	Mann-Whitney의 U	N	평균순위	Mann-Whitney의 U
정당	Non_OECD	1460	1,025.35	430483	1722	1,075.69	368843.5
	OECD(한국포함)	608	1,056.47		434	1,089.63	
대기업	Non_OECD	1413	1,023.16	413777.5	1676	1,071.61	331670**
	OECD(한국포함)	609	984.44		431	985.54	
환경운동단체	Non_OECD	1353	953.75	374436**	1681	1,053.55	357295
	OECD(한국포함)	610	1,044.67		438	1,084.76	
여성운동단체	Non_OECD	1290	927.72	364066.5	1677	1,042.84	341835
	OECD(한국포함)	585	960.66		414	1,058.81	
사법제도	Non_OECD	1496	1,054.68	458043	1709	1,055.93	343384**
	OECD(한국포함)	631	1,086.10		439	1,146.80	
EU	Non_OECD	701	536.78	113713	686	492.97	88856
	OECD(한국포함)	348	501.26		279	458.48	
UN	Non_OECD	1268	962.84	335586.5***	1643	1,022.42	329283*
	OECD(한국포함)	593	862.91		428	1,088.15	

2) 기초통계분석(세계청소년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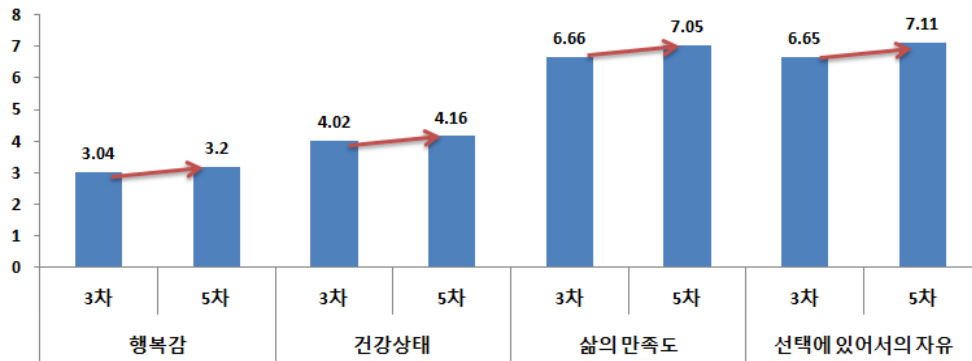
(1) 조사년도에 따른 삶의 인식 및 가족관계 변수 차이분석

마지막으로 조사년도에 따라 청소년의 민주의식에 변화가 존재하는지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년도에 따른 세계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차이에 따르면, “행복감”, “건강상태”,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어떠한 일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의 자유” 등 모든 항목에서 최근 조사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0 조사년도에 따른 개인 삶의 인식 변수 차이분석

		N	평균	표준편차	t
행복감	3차	2160	3.04	0.70	-7.412***
	5차	2326	3.20	0.72	
건강상태	3차	2141	4.02	0.83	-5.674***
	5차	2335	4.16	0.79	
삶의 만족도	3차	2276	6.66	2.50	-5.530***
	5차	2323	7.05	2.31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	3차	2047	6.65	2.52	-6.297***
	5차	2301	7.11	2.25	

부모에 대한 존경에 대한 차이는 5차년도 자료의 응답빈도가 너무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족 신뢰의 경우 5차 년도에만 조사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3차년도와 비교를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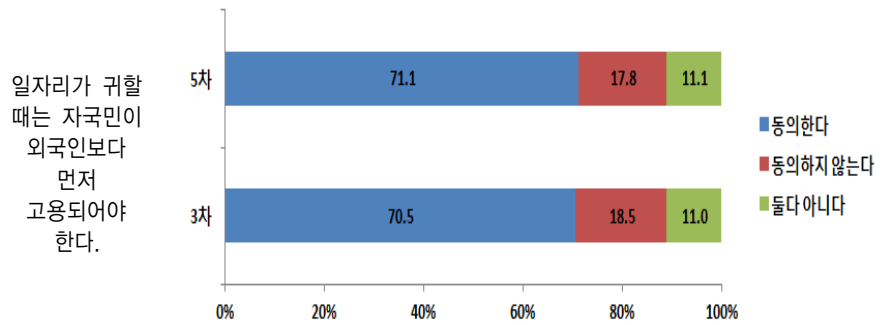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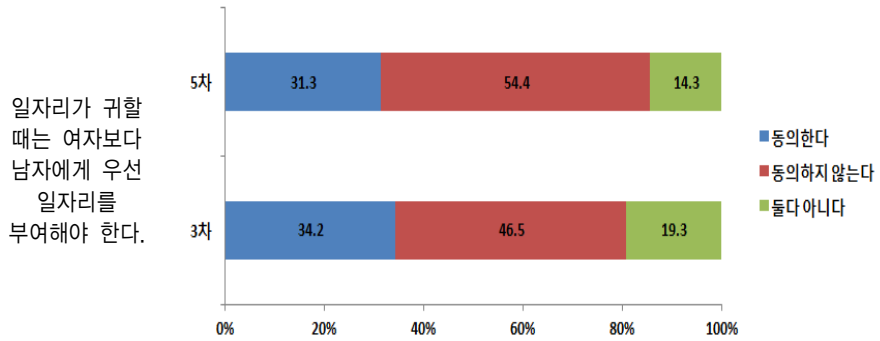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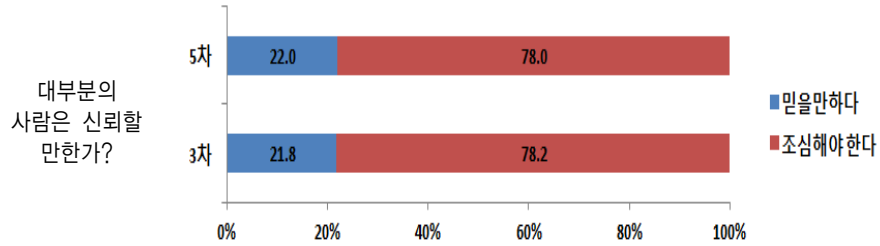
【그림 IV-1】 조사년도에 따른 세계청소년 삶에 대한 인식변화

(2) 조사년도에 따른 민주시민 의식관련 변수 차이분석

시간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에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일자리가 귀할 때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부여해야 한다” 와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에서 최근 학생들의 반대의견이 많아 보다 평등한 사회인식이 보편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울 의향이 있다” 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하여 “아니오” 에 대한 의견이 높아, 보다 개인주의의 의식 역시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51 조사년도에 따른 민주시민 의식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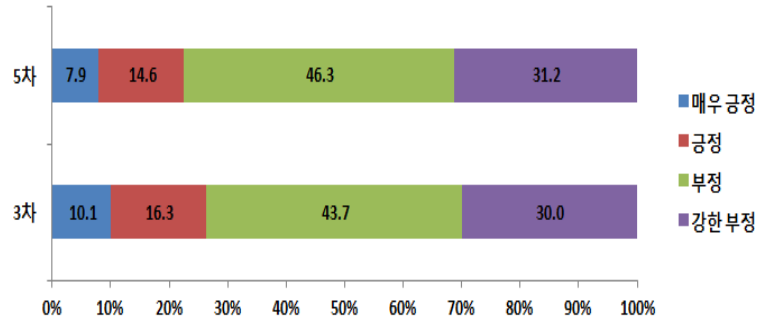
		3차		5차		전체		X ²
		N	%	N	%	N	%	
대부분의 사람은 신뢰할만한가?	믿을만하다	479	21.8	494	22.0	973	21.9	0.027
	조심해야 한다	1719	78.2	1752	78.0	3471	78.1	
	전체	2198	100	2246	100	4444	100	
	동의한다	730	34.2	682	31.3	1412	32.7	
일자리가 귀할 때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부여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993	46.5	1188	54.4	2181	50.5	32.093***
	둘다 아니다	411	19.3	312	14.3	723	16.8	
	전체	2134	100	2182	100	4316	100	
	동의한다	1439	70.5	1509	71.1	2948	70.8	
일자리가 귀할 때는 자국민이 외국인보다 먼저 고용되어야 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377	18.5	378	17.8	755	18.1	0.311
	둘다 아니다	225	11.0	236	11.1	461	11.1	
	전체	2041	100	2123	100	4164	100	
	매우 긍정	427	21.7	394	17.5	821	19.5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긍정	542	27.6	672	29.9	1214	28.8	15.139**
	부정	744	37.9	844	37.5	1588	37.7	
	강한 부정	252	12.8	338	15.0	590	14.0	
	전체	1965	100	2248	100	4213	100	
	매우 긍정	204	10.1	181	7.9	385	8.9	
	긍정	329	16.3	336	14.6	665	15.4	
대학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중요하다.	부정	884	43.7	1064	46.3	1948	45.1	9.852*
	강한 부정	607	30.0	716	31.2	1323	30.6	
	전체	2024	100	2297	100	4321	100	
	아니오	388	20.5	548	28.1	936	24.3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울 의향이 있다.	예	1506	79.5	1404	71.9	2910	75.7	30.058***
	전체	1894	100	1952	100	384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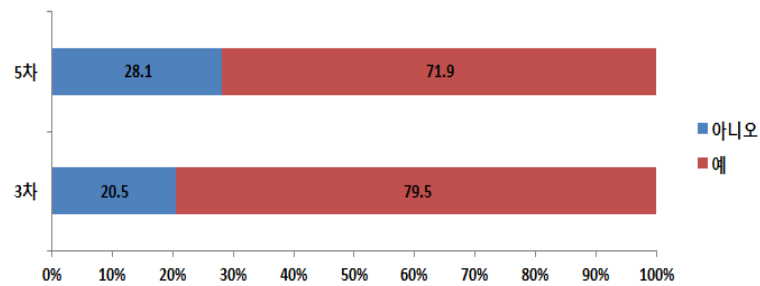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대학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중요하다.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울
의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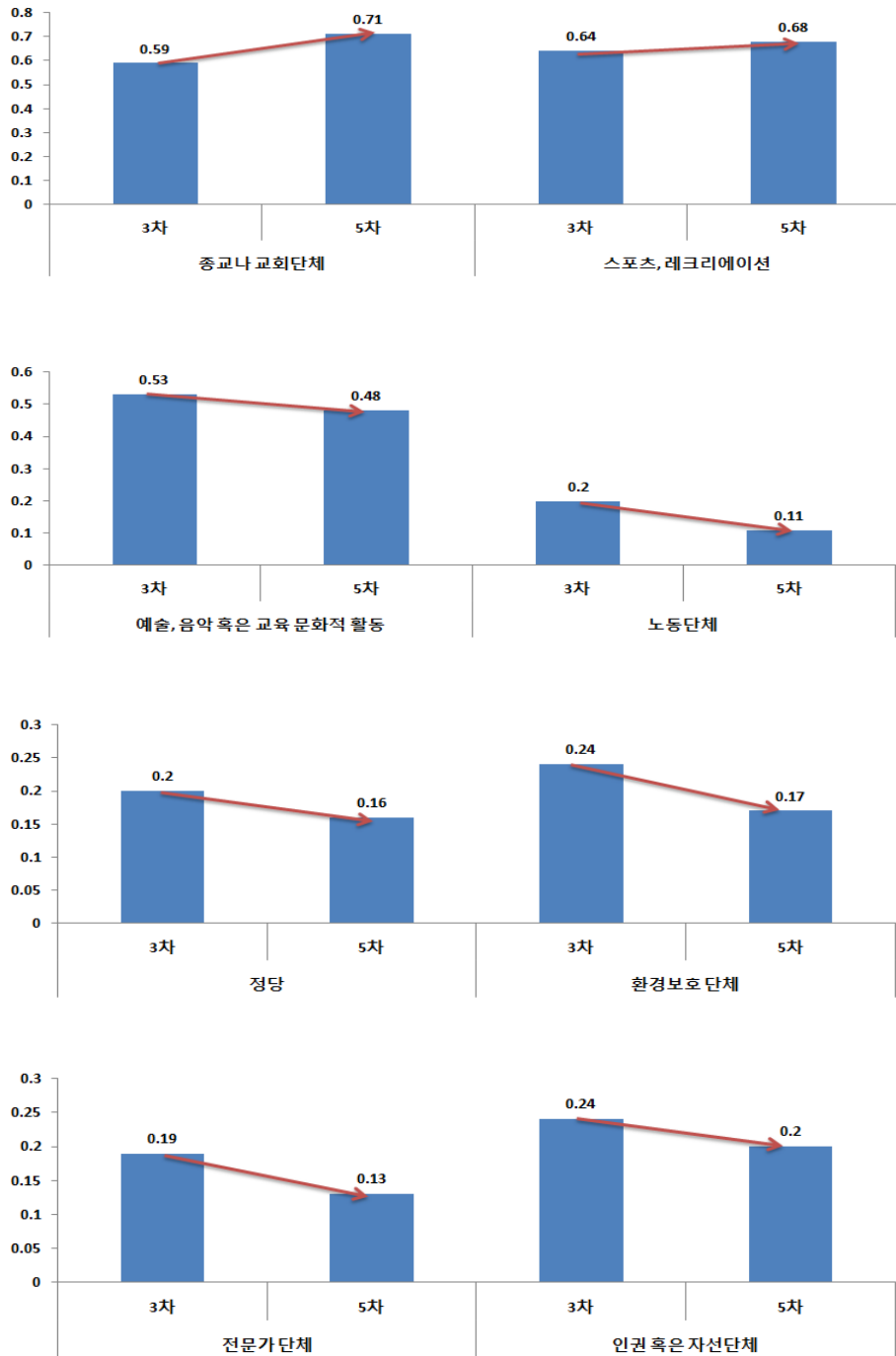
【그림 IV-2】 조사년도에 따른 세계청소년 민주시민 의식변화

① 조사년도에 따른 사회참여 관련 변수 차이분석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과거에 비하여 2000년대 학생들의 경우, 종교에 대한 참여는 월등히 늘은 반면, “노동단체”, “정당”, “환경보호단체”, “인권 혹은 자선 단체” 등 다른 모든 참여에 있어서는 오히려 참여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52 조사년도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의 차이분석

		N	평균	표준편차	t
종교나 교회단체	3차	2216	0.59	0.76	-4.893***
	5차	2234	0.71	0.83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3차	2247	0.64	0.82	- 1.413
	5차	2226	0.68	0.87	
예술, 음악 혹은 교육 문화적 활동	3차	2127	0.53	0.78	2.259*
	5차	2223	0.48	0.78	
노동단체	3차	2260	0.20	0.46	6.958***
	5차	2188	0.11	0.39	
정당	3차	2259	0.20	0.45	2.896**
	5차	2196	0.16	0.45	
환경보호 단체	3차	2196	0.24	0.52	4.595***
	5차	2197	0.17	0.48	
전문가 단체	3차	2244	0.19	0.46	4.282***
	5차	2186	0.13	0.43	
인권 혹은 자선단체	3차	2246	0.24	0.52	2.313*
	5차	2196	0.20	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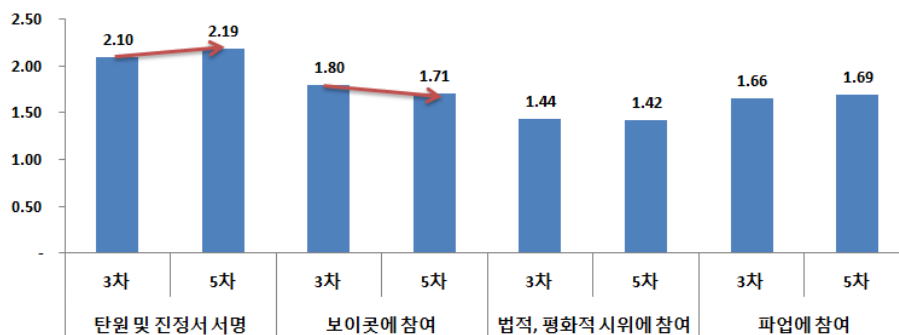
【그림 N-3】 조사년도에 따른 세계청소년 사회활동 참여의 변화

② 조사년도에 따른 정치관심 관련 변수 차이분석

이들은 최근으로 올수록 정치참여의 일반적인 관심과 “탄원 및 진정서 서명”에의 참여는 늘었으나, “보이콧에 참여”는 오히려 낮아졌다. 이는 3차년도 조사시기의 경제성장 분위기 등 당시 시대적 배경 등과 함께 고려되어야할 사항으로 보인다.

표 IV-153 조사년도에 따른 정치관심 및 정치활동 참여 차이분석

		N	평균	표준편차	t
정치에 대한 관심도(전체)	3차	2039	1.33	0.55	- 3.178**
	5차	172	1.50	0.66	
정치적 행동 : 탄원 및 진정서 서명	3차	2084	2.10	0.91	- 3.245**
	5차	2308	2.19	0.97	
정치적 행동 : 보이콧에 참여	3차	2104	1.80	0.73	3.774***
	5차	1996	1.71	0.72	
정치적 행동 : 법적, 평화적 시위에 참여	3차	1989	1.44	0.60	0.839
	5차	1972	1.42	0.60	
정치적 행동 : 파업에 참여	3차	2080	1.66	0.66	- 1.280
	5차	2003	1.69	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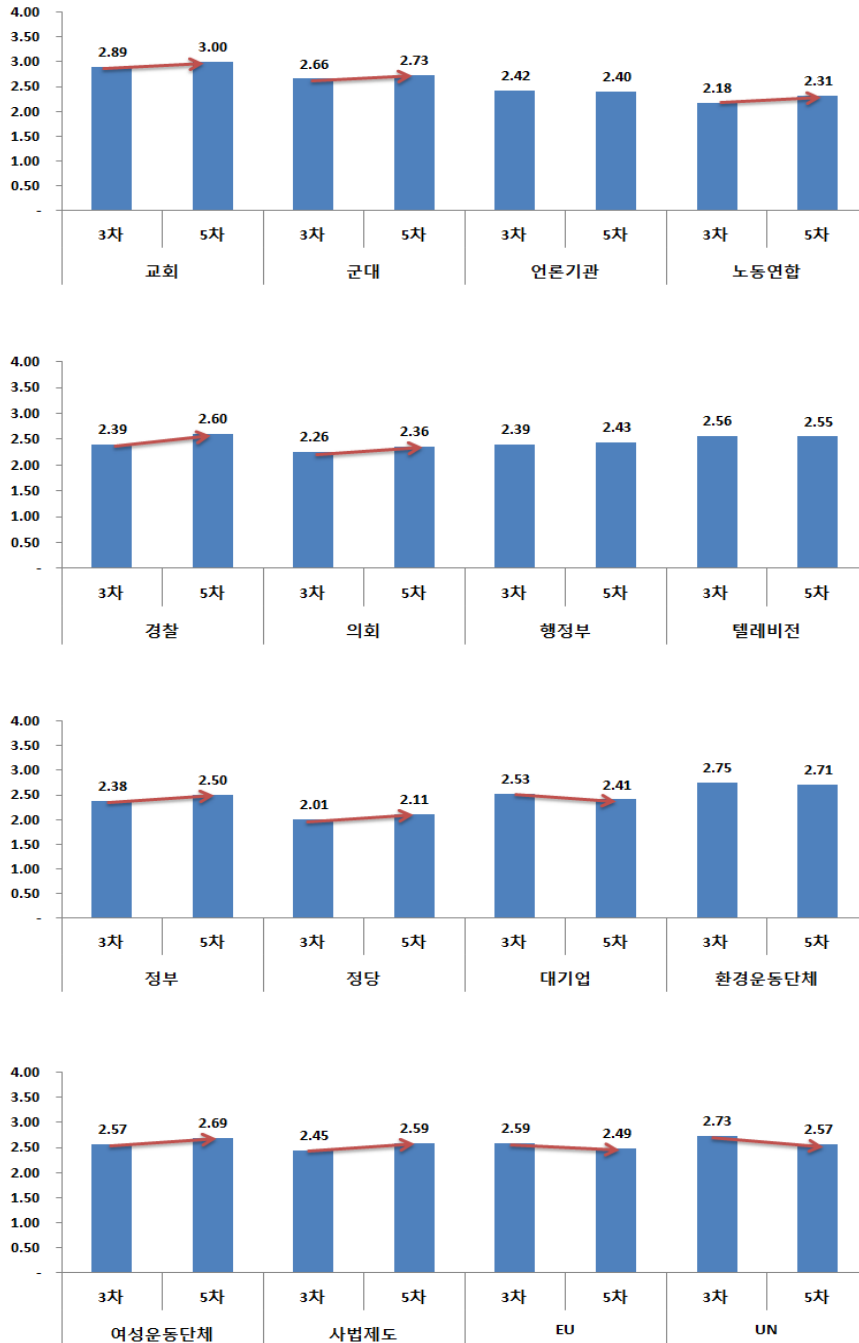
【그림 IV-4】 조사년도에 따른 세계청소년 정치활동 참여의 변화

③ 조사년도에 따른 신뢰관련 변수 차이분석

마지막으로 조사년도에 따른 집단의 신뢰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집단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5차년도) 응답자들의 대상에 대한 신뢰가 높은 반면, “대기업, EU, UN” 조직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거에 비하여 신뢰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4 조사년도에 따른 다양한 집단신뢰의 차이분석

		N	평균	표준편차	t
교회	3차	2136	2.89	1.00	-3.817***
	5차	2262	3.00	0.97	
군대	3차	2149	2.66	0.93	-2.384**
	5차	2198	2.73	0.92	
언론기관	3차	2143	2.42	0.86	0.809
	5차	2198	2.40	0.85	
노동연합	3차	1907	2.18	0.87	-4.702***
	5차	1972	2.31	0.85	
경찰	3차	2169	2.39	0.96	-7.217***
	5차	2234	2.60	0.94	
의회	3차	2079	2.26	0.89	-3.783***
	5차	2141	2.36	0.92	
행정부	3차	2000	2.39	0.87	-1.309
	5차	2116	2.43	0.85	
텔레비전	3차	2157	2.56	0.85	0.110
	5차	2269	2.55	0.87	
정부	3차	2109	2.38	0.93	-4.293***
	5차	2178	2.50	0.95	
정당	3차	2068	2.01	0.83	-3.574***
	5차	2156	2.11	0.85	
대기업	3차	2022	2.53	0.86	4.709***
	5차	2107	2.41	0.86	
환경운동단체	3차	1963	2.75	0.92	1.531
	5차	2119	2.71	0.85	
여성운동단체	3차	1875	2.57	0.96	-4.051***
	5차	2091	2.69	0.89	
사법제도	3차	2127	2.45	0.90	-4.876***
	5차	2148	2.59	0.93	
EU	3차	1049	2.59	0.90	2.450*
	5차	965	2.49	0.94	
UN	3차	1861	2.73	0.94	5.338***
	5차	2071	2.57	0.96	



【그림 IV-5】 조사년도에 따른 세계청소년 기관신뢰 의식변화

(3) OECD여부에 따른 조사년도별 차이분석

① OECD여부에 따른 조사년도별 삶의 인식 및 가족관계 변수 차이분석

OECD여부에 따른 조사년도별 삶의 인식 변수 차이분석에 따르면, OECD여부를 불문하고, 세계청소
년들의 삶의 인식의 변화는 3차년도에서 5차년도로 올수록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높아졌다.

		Non_OECD				OECD(한국포함)			
		N	평균	표준 편차	t	N	평균	표준 편차	t
행복감	3차년도	1481	3.00	0.73	-6.859***	679	3.12	0.64	-4.050***
	5차년도	1869	3.18	0.74		457	3.27	0.63	
건강 상태	3차년도	1504	4.01	0.81	-4.740***	637	4.05	0.87	-3.520***
	5차년도	1878	4.14	0.80		457	4.22	0.73	
삶의 만족도	3차년도	1608	6.42	2.60	-5.211***	668	7.22	2.12	-5.021***
	5차년도	1867	6.87	2.40		456	7.79	1.67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정도	3차년도	1438	6.58	2.55	-5.152***	609	6.84	2.45	-4.884***
	5차년도	1851	7.02	2.31		450	7.50	1.94	

② OECD여부에 따른 조사년도별 민주시민 의식관련 변수 차이분석

OECD여부를 불문하고 세계청소년들은 10년간의 변화에 따른 민주시민의식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모두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사람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Non_OECD의 경우 시간의 변화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OECD의 경우, 사람을 신뢰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졌으면,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울 의향이 있다”에 대해서는 OECD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하는 비율이 높아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높아진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Non_OECD						OECD(한국포함)									
	3차년도			5차년도			X2			3차년도			5차년도			X2
	N	%		N	%		N	%		N	%		N	%		
대부분의 사람은 신뢰할만한가?	믿을만하다	305	19.7	344	19.0		0.273	174	26.6	150	34.2	7.253**				
	조심해야 한다	1,240	80.3	1,464	81.0			479	73.4	288	65.8					
	전체	1,545	100	1,808	100			653	100	438	100					
	동의한다	584	39.8	612	35.4			146	22.0	70	15.5					
일자리가 귀할 때는 여지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부여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611	41.6	858	49.6		21.193***	382	57.4	330	73.2	29.944***				
	둘다 아니다	274	18.7	261	15.1			137	20.6	51	11.3					
	전체	1,469	100	1,731	100			665	100	451	100					
	동의한다	1,045	75.5	1,279	76.4			394	60.1	230	51.1					
일자리가 귀할 때는 자국민이 외국인보다 먼저 고용되어야 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195	14.1	218	13.0		0.719	182	27.7	160	35.6	9.330**				
	둘다 아니다	145	10.5	176	10.5			80	12.2	60	13.3					
	전체	1,385	100	1,673	100			656	100	450	100					
	매우 긍정	355	25.7	367	20.2			72	12.4	27	6.3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긍정	402	29.0	581	32.0		15.103**	140	24.1	91	21.1	17.483**				
	부정	482	34.8	644	35.4			262	45.1	200	46.4					
	강한 부정	145	10.5	225	12.4			107	18.4	113	26.2					
	전체	1,384	100	1,817	100			581	100	431	100					
대학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중요하다.	매우 긍정	174	12.1	167	9.0		11.459**	30	5.1	14	3.1	24.136***				
	긍정	244	17.0	304	16.4			85	14.4	32	7.1					
	부정	608	42.4	867	46.9			276	46.8	197	44.0					
	강한 부정	408	28.5	511	27.6			199	33.7	205	45.8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울 의향이 있다.	전체	1,434	100	1,849	100		24.351***	590	100	448	100	11.995*				
	아니오	243	18.3	402	26.0			145	25.6	146	35.9					
	예	1,084	81.7	1,143	74.0			422	74.4	261	64.1					
	전체	1,327	100	1,545	100			567	100	407	100					

가. OECD여부에 따른 조사년도별 사회참여 관련 변수 차이분석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OECD여부에 따른 조사시기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Non_OECD에 따르면, 3차에서 5차년도로 갈수록 “종교나 교회단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의 활동이 늘어난 반면, “노동단체”, “정당”, “환경보호 단체”, “전문가 단체”, “인권 혹은 자선단체”의 활동은 월등히 줄어들었으며, OECD 역시 “환경보호 단체” 활동의 참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Non_OECD				OECD(한국포함)			
		N	평균	표준 편차	t	N	평균	표준 편차	t
종교나 교회단체	3차년도	1593	0.61	0.76	-5.781***	623	0.54	0.75	1.878
	5차년도	1782	0.77	0.85		452	0.46	0.70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3차년도	1625	0.60	0.79	-2.357*	622	0.75	0.89	0.586
	5차년도	1774	0.67	0.86		452	0.72	0.90	
예술, 음악 혹은 교육 문화적 활동	3차년도	1505	0.54	0.77	1.794	622	0.52	0.81	1.597
	5차년도	1769	0.49	0.78		454	0.44	0.77	
노동단체	3차년도	1625	0.23	0.47	7.575***	635	0.13	0.43	1.201
	5차년도	1738	0.12	0.39		450	0.10	0.37	
정당	3차년도	1625	0.24	0.48	3.870***	634	0.09	0.34	-0.162
	5차년도	1743	0.17	0.48		453	0.09	0.35	
환경보호 단체	3차년도	1575	0.27	0.54	4.479***	621	0.17	0.48	2.343**
	5차년도	1746	0.19	0.51		451	0.11	0.38	
전문가 단체	3차년도	1624	0.21	0.46	4.147***	620	0.15	0.46	1.888
	5차년도	1735	0.14	0.45		451	0.10	0.38	
인권 혹은 자선단체	3차년도	1625	0.26	0.52	3.073**	621	0.19	0.52	-0.376
	5차년도	1744	0.20	0.53		452	0.20	0.54	

나. OECD여부에 따른 조사년도별 정치관심 관련 변수 차이분석

이들의 정치관심 및 정치활동 참여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Non_OECD의 경우, “탄원 및 진정서 서명”의 행동이 줄어든 반면, OECD 청소년의 “법적, 평화적 시위에 참여”는 오히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58 OECD여부에 따른 조사년도별 정치관심 및 정치활동 참여 차이분석

	Non_OECD					OECD			
	N	평균	표준편차	t		N	평균	표준편차	t
정치에 대한 관심도(전체)	3차년도	1453	2.08	0.92	-3.887***	631	2.14	0.89	0.399
	5차년도	1854	2.20	0.98		454	2.12	0.95	
정치적 행동 : 탄원 및 진정서 서명	3차년도	1458	1.66	0.68	2.783**	646	2.11	0.73	-0.719
	5차년도	1559	1.59	0.65		437	2.14	0.77	
정치적 행동 : 보이콧에 참여	3차년도	1396	1.38	0.59	0.296	593	1.56	0.61	-0.521
	5차년도	1557	1.38	0.58		415	1.58	0.65	
정치적 행동 : 법적, 평화적 시위에 참여	3차년도	1477	1.62	0.66	-0.991	603	1.77	0.64	-2.102*
	5차년도	1571	1.64	0.67		432	1.85	0.69	
정치적 행동 : 파업에 참여	3차년도	1454	1.31	0.54	-0.286	585	1.40	0.55	-6.270***
	5차년도	120	1.33	0.57		52	1.90	0.69	

다. OECD여부에 따른 조사년도별 신뢰관련 변수 차이분석

반면 이들의 조사년도에 따른 기관신뢰에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Non_OECD의 경우, 대기업, EU, UN의 신뢰는 오히려 줄었으며, OECD 역시 언론, 대기업, 환경운동단체의 신뢰가 줄어든 반면, 사법제도의 신뢰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Non_OECD				OECD			
		N	평균	표준편차	t	N	평균	표준편차	t
교회	3차년도	1516	3.03	0.96	-3.393**	620	2.54	1.01	1.893
	5차년도	1819	3.15	0.93		443	2.42	0.95	
군대	3차년도	1521	2.66	0.94	-2.026*	628	2.66	0.92	-1.280
	5차년도	1748	2.73	0.93		450	2.74	0.88	
언론기관	3차년도	1511	2.45	0.86	0.211	632	2.36	0.84	2.383*
	5차년도	1747	2.44	0.87		451	2.24	0.78	
노동연합	3차년도	1338	2.10	0.88	-5.408***	569	2.35	0.82	-1.254
	5차년도	1572	2.28	0.88		400	2.42	0.74	
경찰	3차년도	1535	2.33	0.98	-7.544***	634	2.55	0.91	-2.263*
	5차년도	1782	2.58	0.95		452	2.68	0.89	
의회	3차년도	1478	2.25	0.91	-3.659***	601	2.27	0.83	-0.997
	5차년도	1710	2.37	0.94		431	2.32	0.83	
행정부	3차년도	1395	2.35	0.90	-2.573	605	2.48	0.81	1.747
	5차년도	1692	2.44	0.87		424	2.39	0.78	
텔레비전	3차년도	1525	2.60	0.86	-0.422	632	2.46	0.80	2.654
	5차년도	1815	2.61	0.88		454	2.33	0.81	
정부	3차년도	1494	2.43	0.94	-3.093**	615	2.26	0.88	-2.226*
	5차년도	1742	2.53	0.96		436	2.38	0.87	
정당	3차년도	1460	2.01	0.85	-3.211**	608	2.03	0.76	-1.628
	5차년도	1722	2.11	0.87		434	2.11	0.78	
대기업	3차년도	1413	2.55	0.89	3.648***	609	2.49	0.80	3.864***
	5차년도	1676	2.43	0.87		431	2.30	0.78	

		Non_OECD				OECD			
		N	평균	표준편차	t	N	평균	표준편차	t
환경운동단체	3차년도	1353	2.70	0.96	-0.038	610	2.87	0.83	2.480*
	5차년도	1681	2.70	0.87		438	2.74	0.76	
여성운동단체	3차년도	1290	2.55	0.98	-3.814***	585	2.61	0.92	-1.782
	5차년도	1677	2.68	0.91		414	2.71	0.82	
사법제도	3차년도	1496	2.44	0.93	-3.591***	631	2.48	0.83	-4.183***
	5차년도	1709	2.56	0.94		439	2.70	0.89	
EU	3차년도	701	2.63	0.91	2.034*	348	2.51	0.89	1.607
	5차년도	686	2.52	0.97		279	2.40	0.86	
UN	3차년도	1268	2.78	0.95	6.672***	593	2.61	0.90	-0.750
	5차년도	1643	2.54	0.97		428	2.65	0.88	

3) 요약 및 소결

WVS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 OECD 여부 및 조사 시기에 따른 세계 청소년의 세계 시민의식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라 여학생은 양성평등에 대해서 남학생보다 적극적으로 차별을 반대하고 있었으나, 국가에 대한 충성도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은 전반적인 정치에도 관심이 높았으며, “탄원 및 진정서 서명” 등과 같은 평화적 방법으로서의 정치적 행동 참여에 있어서도 여학생에 비하여 조금 높은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OECD여부에 따른 세계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차이에 따르면, OECD국가 학생들의 경우, 전반적인 행복감, 삶의 만족도, 어떠한 일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자유로움에 있어서 Non_OECD 국가 학생들에 비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울 의향이 있다” 와 같은 국가에 대한 충성도에 있어서는 Non_OECD국가 학생들의 긍정적인 응답이 높아, 이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OECD 국가 학생들의 경우,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에서 Non_OECD 나라에 비하여 높은 참여를 보인 반면, 나머지 모든 사회정치적 활동에 있어서는 오히려 Non_OECD국가 학생들의 참여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셋째, 조사년도에 따라 청소년의 민주의식에 변화가 존재하는지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년도에 따른 세계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차이에 따르면, “행복감”, “건강상태”,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어떠한 일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의 자유” 등 모든 항목에서 최근 조사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에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자리가 귀할 때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부여해야 한다” 와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에서 최근 학생들의 반대의견이 많아 보다 평등한 사회인식이 보편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울 의향이 있다” 는 의견은 1990년대인 3차년도 조사에 비하여 5차년도 조사 시 “아니오” 에 대한 의견이 높아, 최근으로 올수록 개인주의의 의식 역시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과거에 비하여 최근으로 올수록, 종교에 대한 참여는 월등히 늘은 반면, “노동단체”, “정당”, “환경보호단체”, “인권 혹은 자선 단체” 등 대부분의 사회참여활동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수준과 관련 변인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생태체계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함으로 민주시민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 도출 및 그 효과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각종 선행연구 및 민주시민역량 관련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민주시민 의식 및 역량관련 주요 개념에 대한 정리와 국제적 비교조사 결과의 메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 핵심역량조사의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별에 따라 핵심역량 보유 정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의 핵심역량은 남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 특히, 여학생들은 거시적 맥락에서 환경을 이해하고, 목표를 수립하고, 요구와 권리의 한계를 알며, 권익을 요구하는 능력에서 남학생들을 앞서고 있었으며, 경쟁능력과 부모와의 접촉의 양과 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관계지향성” 역시 높았다.

둘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교 소속감 및 삶의 만족도는 고교생이 가장 낮았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비하여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소속감 및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는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입시부담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 가족관계 변수는 삶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변수로 설정한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그리고 경제수준 등 모든 영역에서 각각의 변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삶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구 경제력의 경우, 자기 집의 경제적 수준이 “하” 라고 응답한 청소년들보다 “상” 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점수가 월등히 높았는데, 이를 통해 경제적 수준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변수는 다른 영역의 역량에도 차이를 주고 있었는데, 자율적 행동역량의 하위영역인 거시맥락,

목표수립, 권익요구 역량에서 아버지 학력이 대졸이상인 청소년의 경우 다른 학력의 아버지를 가진 집단에 비하여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고졸, 고등학력 이하로 갈수록 자녀의 역량도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관계지향성 역량, 사회적 협력 역량, 갈등관리 역량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특이한 사항은 어머니의 학력은 관계지향성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변사람(부모)과의 접촉의 질과 양”, 사회적 협력영역의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감” 갈등관리 영역의 “문제인식 해결” 능력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이상 경우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졌을 경우보다 월등히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넷째, 지역에 따른 청소년 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서울거주 학생의 경우, 자율적 행동역량 중 거시맥락, 목표수립, 권익요구, 패턴이해 등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광역시와 시·군 학생 순으로 역량이 낮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관계지향성 역량은 경청과, 부모와의 접촉의 양과 질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서울거주 학생의 경우 두 영역의 역량이 가장 높은 반면, 광역시와 시·군 여부에 따라서는 특별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 학생들의 경우, 학교생활 만족도와 다양한 가치의 수용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 거주 학생들에 비하여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섯째, 학교 특성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사립학교 학생의 경우, 자율적 행동 영역인 거시적 행동 역량과, 패턴이해의 측면에서 공립학생들이 비하여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적극적 경청 역시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변사람(부모)과의 접촉의 양과 질”,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학교생활 소속감” 과 “만족도” 에 있어서는 공립학교 학생들의 역량이 사립학교 학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높은 편이나 기본적인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지식수준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청소년은 전체의 절반 이상(60%)이었으며 국민은 정부를 비판할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92.0%로 나타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민주적 의사결정보다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청소년이 19.5%, 민주주의가 아니더라도 모두 잘 살 수 있으면 된다는 응답이 18.5%, 세금을 내는 성인들만 투표할 자격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0.8%에 달해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 대한 지식은 부족함이 발견되었다. 특히, 집단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역량이 남학생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접적인 민주시민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집단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럿이 의논하기 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와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질문에 여학생의 반대 의견 비율이 남학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민주주의에서 다수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로 바르게 응답한 비율이 54.6%로 남학생의 40.8%에 비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이 높았다.

일곱째, 가족관계 변수는 일반 핵심역량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은 정치에 관심이 높았으며, 민주시민 역량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시민의식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고졸이하 “21.0%”, 고졸 “18.8%”, 대졸 이상에서 “17.3%”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민주시민 의식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으며, 비민주적 정부를 물어보는 질문에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금지될 때”라고 응답하는 비율 역시 아버지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학력에 따른 아동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의 차이 역시 아버지학력에 따른 역량 차이분석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민주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는 비율이 낮아, 민주시민 의식을 올바르게 가질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다수 정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라는 응답을 48.5%가 보여, 43.0%를 보인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냈다.

여덟째, 부모학력 및 가구경제력, 부모와의 대화의 양과 질 등 대부분의 가정변수들은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역량에 매우 높은 영향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부모학력과 가구경제력의 경우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가구 경제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의 대화의 양과 질은 HLM 2단계 분석결과 모든 비판적 사고능력 하위영역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역량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아홉째,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개인수준과 학교수준 등 2개 수준의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변수에서 개인수준의 변수에 의한 영향이 학교수준의 변수에 의한 영향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하위변수에서 학교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5% 미만으로 매우 미약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한민국 청소년의 역량은 현재 대부분이

개인수준에 의한 변화로 학교차원에서의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들이 더욱 조화롭게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번째로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 횡단 연구로 사용된 ICCS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청소년들의 “학교 내 활동에의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반장/학생회 임원 투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활동에 소극적이었다. 특히, 음악 및 드라마 활동의 경우, 대한민국 학생들의 10.3%인데 반하여 국제학생들의 경우, 28.0%로 활동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각종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활동 역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장 및 학생회 임원 투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학생의 54.1%가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한민국 학생들의 경우, 특정 영역의 활동에 치중하고,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비율은 다소 미흡했다.

둘째, 한국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 개발과 관련된 학교교육 및 교육환경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학교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학급 토론에 있어서도 더 개방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도 좀 더 공정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학생의 참여가 학교를 더욱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여학생들의 특성은 민주시민 역량에도 영향을 주어 시민의식 지식에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미래 투표의지 역시 남학생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참여에 대한 가치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하여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를 높게 여기고 있었다. 특히, 여학생은 “학생들과 함께 작업할 경우, 긍정적인 학교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와 “학생 혼자보다는 함께 행동한다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모든 학교는 학생회를 가져야만 한다”에서도 89.0%의 동의를 보여, 같은 질문에 83.9%만 동의를 한 남학생에 비하여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제비교에서는 학급토론의 개방성, 학교에서의 영향력, 교사 및 학생과의 관계, 학생의 학교 참여에 대한 가치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학생들에 비하여 국제학생들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적에 따른 학급토론에의 개방성 인식의 차이에서, 한국의 경우,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토론을 권장한다”는 항목에서 긍정하는 비율이 매우 적은 반면, 국제학생들의 이 둘의 비율이 한국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즉, 학교 내에서의 민감한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이슈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한국이 여전히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전체 국제학생들의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한국 내 성별에 따른

차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학교 참여 및 학교활동 및 환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시민의식의 차이에도 같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특히 또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중요한 행동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에, 여학생의 경우, “모든 선거 참여”,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상의 정치이슈 주시” “환경보호운동 참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응답비율이 남학생에 비하여 높았으며, 남학생의 경우 “정당 단체 가입”, “정부 대표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 “정치 토론 참여” 등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시민의식 지식에 있어서는 모든 항목에서 국제학생들에 비하여 한국학생들의 지식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제 향후 성인이 되어서의 선거에 참여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국제학생들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한민국 학생들의 민주 시민의식의 지식만큼이나 행동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시민역량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개인 및 가족변수의 경우, 여학생일수록, 기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민주시민 역량이 높았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시민역량 지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의 참여가 많을수록, 학생참여의 가치를 크게 둘수록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덟째, 미래 투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기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래에 투표에 참여할 의지가 높았으며, 부모의 정치사회에 대한 기대는 자녀가 미래에 민주시민 역량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학교생활 변수를 추가한 결과, 학교 활동의 참여, 교사 및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 학생 참여에 대한 가치 역시 미래 투표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아홉째, 학교수준과 개인수준이 대한민국 아동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형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분산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차이는 개인수준에서 비롯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수준의 영향은 5% 미만으로 현재까지의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은 개인변수, 가족배경변수, 및 개인의 학교생활 변수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는 학교수준에서의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세계 청소년의 종단적 분석 및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인식변화 확인이 가능한 WVS를 활용하여 성별, OECD 유무별, 조사 시기에 따른 세계 청소년의 세계 시민의식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라 여학생은 양성평등과 관련남학생보다 적극적으로 차별을 반대하고 있었으나,

국가에 대한 충성도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은 전반적인 정치에도 관심이 높았으며, “탄원 및 진정서 서명” 등과 같은 평화적 방법으로서의 정치적 활동에 있어서도 여학생에 비하여 조금 높은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OECD여부에 따른 세계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차이에 따르면, OECD국가 학생들의 경우, 전반적인 행복감, 삶의 만족도, 어떠한 일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자유로움에 있어서 Non_OECD 국가 학생들에 비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울 의향이 있다” 와 같은 국가에 대한 충성도에 있어서는 Non_OECD국가 학생들의 긍정적인 응답이 높아, 이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OECD 국가 학생들의 경우,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에서 Non_OECD 나라에 비하여 높은 참여를 보인 반면, 나머지 모든 사회정치적 활동에 있어서는 오히려 Non_OECD국가 학생들의 참여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셋째, 조사년도에 따라 청소년의 민주주의식에 변화가 존재하는지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년도에 따른 세계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차이에 따르면, “행복감”, “건강상태”,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어떠한 일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의 자유” 등 모든 항목에서 최근 조사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에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자리가 귀할 때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부여해야 한다” 와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에서 최근 학생들의 반대의견이 많아 보다 평등한 사회인식이 보편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울 의향이 있다” 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하여 “아니 오” 에 대한 의견이 높아, 보다 개인주의의 의식 역시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OECD여부를 구분하여 조사년도별 인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OECD여부를 불문하고 이들의 행복감, 건강상태, 만족도, 자유를 누리는 정도는 10년 전에 비하여 크게 늘어났다. 이들의 민주시민의식에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특히,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사람신뢰에 있어서는 Non_OECD의 경우 시간의 변화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OECD의 경우, 사람을 신뢰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졌으면,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울 의향이 있다” 에 대해서는 OECD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하는 비율이 높아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높아진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다섯째,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OECD여부에 따른 조사시기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먼저 Non_OECD에 따르면, 3차에서 5차년도로 갈수록 “종교나 교회단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 개인취미 중심의 활동은 늘어난 반면, “노동단체”, “정당”, “환경보호 단체”, “전문가 단

제”, “인권 혹은 자선단체” 등 공공의 발전을 위한 사회참여비율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OECD 역시 “환경보호 단체” 활동의 참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2. 정책점 시사점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학교에서의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민주시민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분석결과에서 대한민국 청소년의 학교내외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가 임원 선거 등 비교적 한두 활동에 한정적으로 치우쳐 있었으며,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토론 활동 역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한국의 교육은 시민의식과 관련하여 지식적인 교육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천적이고 행동하는 분야에서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민주시민 관련 지식은 높으나, 미래 투표의지나 사회 참여 등 실천적 행동은 낮아, 지식이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 학생들의 경우 교과과정에서 추상적인 정보와 지식을 줄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늘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교육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의 학급운영 참여, 의견제안, 영향력 행사를 위한 다양한 과정은 교육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학생들은 국내외 다양한 활동이 한정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국제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학교의 실천적이지 못한 교육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즉, 학교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진작시키는 데 필수적, 이러한 참여교육은 향후 학생이 커뮤니티에 자발적인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 자체적으로 자율성, 공공성, 민주성, 책임성 등과 관련된 민주시민 문화적 풍토 및 분위기가 확장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삶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고 있었으나, 이들의 민주시민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 및 가정환경 배경에 대부분이 한정되어 있었다. 학교는 학교장 혹은 특정 교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총체적인 민주적 풍토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자연적으로 학생 교육에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정과 지역사회 시민교육의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시민교육은 비단 학교만의 몫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도 함께 부담해야 할 책임임이 분명하다. 특히 분석결과에서 뚜렷하게 확인되었

듯 가정배경 및 환경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시민교육은 여전히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가 함께 연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컨대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단체와 학교에서 연계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교육은 세계화와 지역 통합의 맥락에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세계는 양성평등과 상대주의를 통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세계가 적어지는 환경적 분위기는 이제 더 이상 나라의 구분 없이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세계를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이러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세계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최근 국가마다의 시민교육의 강화 경향은 세계화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교육은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교육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김기현 · 장근영 외(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준 · 윤혜경(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 외(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 : 국제시민교육연구(ICCIS) 참여. 한국교육개발원.
- 신수연(2009).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현(2006). 사회적 자본 연구동향. The HRD Review.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홍영란 외(2006).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전략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ACER(2010a). *Initial findings from the IEA ICCS*. IEA.
- ACER(2010b). *Students' civic knowledge: NRC review version*. IEA.
- Amadeo, J., Torney-Purta, J., Lehmann, R., Husfeldt, V., and Nikolova, R. (2002).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An IEA study of upper secondary students in sixteen countries*. 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
- Bronfenbrenner, U.(1988). Interacting systems in human development. In N. Bolger, C. Caspi, G. Downey, and M. Moorehouse (Eds), *Persons in context: Developmental processes (pp.25-5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rzea, C., Kerr, D., Mikkelsen, R., Pol, M., Froumin, I., Losito, B., & Sardoc, M. (2004). *All European study on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policie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 Cogan, J. J.(2000). *Citizenship for the 21st century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education*. Kogan Page.
- Concil of Europe(2002).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 Connell, P. J., Crewe, I. M., and Searing, D. D.(1991). The nature of citizenship i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Empirical comments on theoretical themes. *Journal of Politics*, Vol. 53, pp. 800–832.
- Conover, P. J., & Searing, D. D.(2000). A political socialization perspective. In L. M. McDonnell, P. M., Timpane and R. Benjamin (Eds.), *Rediscovering the democratic purposes of education (pp.91–124)*.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 Cox, C., Jaramillo, R., & Reimers, F. (2005).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democracy in the Americas: An agenda for action*. Washington DC: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European Commission(2005). *Citizenship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Eurydice.
- FEFC(2002). *Citizenship for 16–19 year olds In Education and Training*. Furt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UK.
- Fukuyama, F. (2001).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velopment. *Third World Quarterly*, Vol. 22 No. 1, pp 7–20.
- Hebert, Y. & Wilkinson, L.(2002). The Citizenship Debates: Conceptual, Policy, and Experimental, and Educational Issues. In Y. Hebert (Ed.), *Citizenship in Transformation in Canada (pp. 3–36)*.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Janoski, T.(1998). *Citizenship and civil society: A framework of rights and obligations in liberal, traditional and social democratic regim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ve, J. & Wenger, E.(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Allister, I.(1999). The economic performance of governments. In P. Norris (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s (pp.*

- 188-20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sek, J., Feldman, L., Romer, D. & Jamieson, K. (2008). Schools as Incubators of Democratic Participation: Building Long-term Political Efficacy with Civic Education.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Vol. 12 No. 1, pp. 236-37.
- Pitiyanuwat, S., & Sujiva, S.(2005). *Civic Education in Thailand*. Chulalongkorn University Press.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 Schulz, W., Fraillon, J., Ainley, J., Losito, B., & Kerr, D. (2008).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Assessment framework*. Amsterdam: IEA.
- Schulz, W., Ainley, J., Fraillon, J., Kerr, D., & Losito, B. (2010). *Initial findings from the IEA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Schulz, W., Ainley, J., Fraillon, J., Kerr, D., & Losito, B. (2010).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Torney-Purta, J., Lehmann, R., Oswald, H., & Schulz, W.(2001). *Citizenship and education in twenty eight countries: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at age fourteen*. Amsterdam, Netherlands: IEA.
- Wenger, E.(1998).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 ident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agos, G.(2005). *At Issue: Educating for Citizenship*. Canadian Education Association.



부 록

부 록

1. 세계시민교육백서 한국 챕터

1. Republic of Korea, General background information

▶ Demographics and Language

South Korea, officially recognized as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henceforth referred to as Korea, is located in the southern por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East Asia. In 2005, the population of Korea was 48,138,000. The birth rate of Korea is dropping at the fastest pace in the world. The total fertility rate dropped to 1.16 persons in 2004 from 2.83 persons in 2003, bringing Korea's fertility rate to the lowest level among OECD member economies.

In 2000, Korean people aged 65 or older made up over 7 percent of its population. It is estimated that Korea will become an ageing society by 2018 with more than 14 percent of its population aged 65 or older.

Koreans primarily have one ethnic root and are recognized as the only people in the world that speak the Korean language. The 5,000-year history and common linguistic heritage have created a strong sense of homogeneity among people. However, since the 1990s there has been a marked inflow of foreign migrant workers and growing numbers of international marriages. As of May 2007, 722,686 foreign nationals were living in Korea, accounting for 1.5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In the economic sense, over the last 30 years, Korea has recorded an annual economic growth rate of 8.6 percent. Within two or three generations, Korea has developed world-class corporations in shipbuilding, semiconductor, electronics, and automobile

industries. The report by the Bank of Korea shows that as of 2007, per capita income stood at US\$20,045 while GDP grew 5 percent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system

Korea is a presidential republic, consisting of sixteen administrative divisions. The political system of Korea is based on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with the president as chief of the nation and the prime-minister as head of government. Powers of the government are shared among the executive, legislature and judiciary.

Korea's administration system is comprised of three levels. At the upper level of the structure, seven independent metropolitan cities and nine provinces exist. The largest metropolitan city is Seoul, which has a population of approximately ten million people. The lower municipal level indicates district governments under metropolitan cities and county or local governments within provinces. The lowest level of administration structure comprises cities, towns, and townships.

Following the Second World War,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ubsequent Korean War shaped the early politics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years following the proclamation of the public of Korea in August 1948, there were alternating periods of democratic and autocratic rule. At the beginning of the First Republic, government was perhaps democratic but gradually became autocratic until its collapse in 1960. Though the Second Republic was resolutely democratic, it was soon deposed to be replaced by an autocratic military regime. With the Sixth Republic, the Republic of Korea attained stability as a liberal democracy.

▶ Educational System

Overview and Background

Korea has a single-track “6-3-3-4 system” which maintains a single line of school levels to ensure fair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bility of each student. This system is intended to provide equal education for all citizens, regardless of social background. As an open system it has expanded opportunities for ordinary people in the country.

In 1998 the pre-existing Education Act was replaced by the Basic Education Act,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Higher Education Act.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covers education issues dealing with pre-school, primary, lower secondary and upper secondary education while the Higher Education Act pertains to matters related to higher education or post-secondary education.

▶ Structure of educational system

Compulsory education

Primary education in Korea is free and compulsory and viewed as the general basic education necessary in life. Enrollment rate at primary schools is almost universal(99.9%). The expansion of primary education is attributed to Korean’ s great zeal for education and the educational policies of the government.

The sudden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and the migration of the people from rural areas to cities prompted the government to create an education tax in 1982 to finance the expansion and modernization of physical facilities and to improve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eachers. As a result, the averag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in elementary school dropped to 41.4 in 1990 from 51.5 in 1980. Overcrowded schools were divided into smaller ones and the double-shift schooling was abolished. With the revision of the regulation that prohibited children under six from entering primary school, children aged five became eligible to begin school when they are acknowledged to be capable and there is a vacancy. English has been taught as a part of regular curriculum starting since 1997; one hour per week for third and fourth graders,

and two hours per week for fifth and sixth grade students.

The purpose of middle schools is to provide standard lower secondary education based on primary education. Since 1969 there have been no quota restrictions on entrance to middle schools, and students are assigned to schools nearest to their residence.

National curriculum

The national curriculum and regional guidelines provide flexibility to individual schools to operate in accordance with their characteristics and objectives. The national curriculum is revised periodically and there have been seven revisions since 2000. National Curriculum standards provide the basis for educational content and textbook development at each school.

The Seventh Curriculum introduced in December 1997 was initially applied to first and second grade students in the 2000 school year and has gradually been extended to twelfth grade students by 2004. The new curricula in primary schools were applied to third and fourth grader students in 2001, and to the fifth and sixth grader students in 2002. The Seventh Curriculum attempts to break away from directive approaches to education, and aims to develop students' capabilities for new challenges. Study loads in subjects have been reduced to an appropriate level and curriculum is designed to be adapted to individual learning needs. Independent learning activities have been either introduced or expanded so as to develop self-directed learning.

The Seventh Curriculum is student-oriented. It consists of the Basic Common Curriculum and the Selected Curriculum at the upper secondary school (high school) level. It covers ten years from the first year of primary school through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During the first and second year of high school (eleventh and twelfth grade), students are able to choose their curriculum and courses.

The 2007-revised national curriculum was officially put into practice in February 2007. After its introduction to the first and second year of primary school, the national curriculum is intended to be expanded. Its main specific features are as follows:

- A reduction in total weekly teaching hours by one hour (except for the first and second year of primary school) and a reduction in discretionary activity time (by one

hour in middle school and three in high school).

- An increase in the time assigned to Korean History and Science for the first of high school (by 1 hour each).
- The addition of optional subjects in the second and third year of high school.
- Designating Physical Education as an essential subject for the second and third year of high school.

In addition an Intensive Curriculum Comple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middle and high schools to expand the scope of school-level curriculum decision making.

Non-compulsory education

High school education is mainly aimed at providing basic and advanced secondary education building on middle school education. High schools are categorized into general, vocational, and other high schools (foreign language, art, and science high schools). The period of study is three years and students bear the expenses of education at this level. There are various methods of selection, such as recognition of the "school activity record" as well as an entrance test.

General high schools provide regular high school education. Students choose the subjects of their major interest in the second year of high school. Most choices reflect the fields that would allow them to enter college. Vocational high schools offer general secondary education and specialized courses including those in the fields of agriculture, industry, commerce, fisheries/maritime, and home economics. The government wishes to develop and support vocational high schools.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are divided into seven categories : colleges and universities, industrial universities, universities of education, junior-colleges, broadcast and correspondence universities, technical-colleges, and other institutions. The duration of education is from four to six years. The government sets minimum requirements for universities regarding the student selection process to promote the independence and responsibility of universities, normalize public education, and alleviate the burden of private tutoring costs.

Lifelong education is defined as all forms of education that constitute the system

of lifelong education, with the exception of regular school education.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s offered in Korea are categorized in to para-school education, occup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and general or liberal education.

Para-schools are separate from the main school structure in the sense that they do not require day-long attendance in an institution. In this category are civic schools, civic high schools, industry-attached schools (middle and high), evening classes offered at schools (middle and high), broadcast and correspondence high schools, accreditation programs for self-study, credit bank system, broadcast and correspondence universities, distance learning universities, company-attached universities and industrial universities.

▶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General approach to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The national curriculum document of Korea does not provide an official definition of the term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but it does suggest that this is an area to be developed through public education. In this regard,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is intended to develop citizens who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ties at different levels by solving various problems rationally on the basis of knowledge about people and society, and the values and attitudes that are expected of members of a democratic society.

In, and outside of, schools,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is carried out in various ways. Some examples are: as part of the regular curriculum as Social Studies or Moral Education; as discretionary activities conducted by a unit, school or teacher; as class activities performed by a homeroom teacher and students; as club activities with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with common interests and tastes; and as outdoor activities that involve visiting external institutions or learning centers.

▶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curriculum

General overview

In Korea,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is dealt with in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related subjects rather than in a single subject. Although "citizen", "citizenship",

and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as such are not specifically mentioned in the subject title, its content is reflected in some subjects.

Of all the subjects, Social Studies is the one that has the greatest relationship to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Korea. It officially sheds light on, and pursues the cultivation of, citizenship. This is emphasized as the essence of Social Studies in its curriculum document, curriculum guide-lines and teacher's manual. Another aspect of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is Moral Education that covers the nature of citizenship in the domain of value and attitude.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lower secondary schools (ISCED 2)

In lower secondary schools (middle schools),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both contribute to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knowledge domain, Social Studies covers various characteristics of society, interactions between people and nature, the diversity of people according to occupations, regional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historical tradition. It also covers the cultural uniqueness of Korea, Korean culture and history, development processes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each historical period. In the functional domain, the subject covers the acquisition, organization and applic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exploration, decision-making, social participation, and rational problem-solving. In the domain of value and attitude, the study covers democratic attitudes, concerns for present social issues, and attitudes towards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this country and the world.

In middle schools, three to four hours per week (averaging 3.3 hours) are assigned to Social Studies and one to two hours per week (averaging 1.7 hours) for Moral Education. The two subjects take up approximately 15 percent of the total hours of middle school education.

Education through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is differentiated in terms of purpose, content, methods, and evaluation. For example, Social Studies focuses on developing citizens who are aware of social phenomena and able to make rational decisions. On the other hand, Moral Education aims to internalize and develop values and moral virtues necessary for community life. Those two subjects are also different from

extracurricular education such as vocational and career education. In dealing with specific topics of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vocational and career education can be referred to and some content may overlap., but the two studies deal with those topics in a relatively broader social and ethical context.

The revised curriculum for Social Studies notified in 2009 present six objectives.

- To understand various social phenomena and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geography, history,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ystem.
- To comprehend the diversity of human life in terms of place and have a systematic understanding on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owns, regions, states and the world.
- To comprehe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human life and the cultural features of each period by appreciating the uniqueness of Korea's historical tradition and culture based on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and understanding systematically the progress of national history.
- To grasp the basic knowledge and principles of social life, and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phenomenon in a comprehensive manner and recognize various problems to be solved in today' s society.
- To develop capacity to acquire, analyze, organize and utilize knowledge and information necessary for understanding social phenomena and issues, and cultivate capacity of rational problem-solving, decision-making and social participation.
- To cultivate the attitude of democratically managing both individual and social life, having interests in social issues, and actively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a democratic nation and that of the world.

▶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activities in schools

With regard to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the scope of activities for students is wide, ranging from regular classes at school to activities outside of school. During regular classes, students participate in debates and discussions. They join club activities with themes that include universal values or global issues such as environment, human rights, anti-war, peace, and welfare. As members of a class or school student council,

students participate in making decisions or in managing an organization. They may also visit NGOs, welfare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agencies to inquire into relevant issues or seek advice. At times, they may even conduct campaigns in cooperation with the relevant organizations.

The homeroom and student council are the fairly typical situations in which students can take part in decision-making process with regard to class or school issues. This traditional system still exists but it is neither much practical nor effective. Recently, there are the growing cases that students leave their messages/comments on the school website or express their opinions through their teachers' blogs, e-mails, or messengers to convey their opinions. In some cases, a school administrator may hold a meeting with student representatives. Some schools conduct a survey targeting all the students to decide school trips or school regulations.

► Current reforms and debates in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Compared to the curriculum officially adopted in 1997, the national curriculum revised in 2007 and 2009 reflects social changes such as multi-culturalism and globalization. In the 1997 curriculum, specific terms such as “National Identity” or “National Culture” are mentioned in Social Studies. However, in the revised curriculum, those terms are deleted or replaced by “World Development” . In light of the recent conflicts with China and Japan over ancient history, history education (Korean History and World History) has been more intense than before. In this context, middle and high-schools have put together a textbook entitled "History" by combining Korean history and World history. In addition, compared to the 1997 curriculum, the revised curriculum assigns more hours to history-related classes.

In the late 1990s, one of the significant developments in Korea's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was that the term, “citizen,” had emerged and was gaining attention. In spite of recognizing that Social Studies aimed to cultivate the citizenship, the term “people” was emphasized more than that of “citizen” in the curriculum, textbooks, and teaching. The people, as members of a nation, have the legal right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and perform relevant decision-makings and actions. On the other hand, citizens, as members of various communities including a nation, perform decision-making and actions on universal values and ethical issues as well as legal rights in a more active manner. This change began to be reflected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notified in 1992, expanded in the curriculum notified in 1997, and continued in the curriculum notified in 2007 and 2009.

Currently, there is controversy in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One perspective is that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be evident more explicitly in the existing subjects of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The other perspective is that the existing subject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to focus more on core competences of citizens rather than on subject content. The former perspective implies that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hold their identity as the key subjects of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and expand their scope. This perspective argues that what to teach becomes ambiguous as the core competences sought by all the subjects is primarily weighted towards functions. In contrast, the latter perspective argues that the existing segmented curriculum creates problems, such as repetition or omission of content among subjects. Therefore, cultivating citizenship should be achieved through functional elements not confined to specific subjects, such as creativity, communication skills, information utilization, and problem-solving. Even though the current curriculum is well-entrenched, it does appear likely that more people will adopt the latter perspective.

► Teachers and teacher Education

Teacher education in general

The classification and qualifications for teachers are defined in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Education Act. Teachers are classified into teachers, assistant teachers, professional counselors, librarians, training teachers and nurse teachers. Each category has specific certification requirements set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eacher education is offered by universities of education, colleges of education, departments of education and those with teacher's certificate programs in general colleges

and universities.

Most primary school teachers are trained at one of 11 universities of education, including the Department of Primary Education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nd Ewha Woman's University. In 1984, all colleges of education were upgraded to four-year universities. Secondary school teachers are trained under a mixed system of exclusive and open training system at colleges of education, national universities of education, teacher training courses at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Until 1990, graduates from national universities were hired at middle and high schools without having to pass any exams.

Special school teachers, school librarians, and nurse teachers are required to a two- or four-year college degree with a pertinent major and teacher training. Part-time training teachers must satisfy a minimum standard of educational background, including a two- or four-year college degree in the pertinent fields with professional training.

Teacher education for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Hiring Social Studies teachers is not very different to general middle school teacher recruitment. At present, the teaching certificate for Social Studies is given to a) graduates majored in history education, geography education and Social Studies from college of education; b) graduates majored in history, geography, politics, economics, sociology, public administration and law with pedagogy-related credits; and c) graduates majored in pedagogy and minored in history, geography, politics, economics, sociology, public administration and law. This condition is the same regardless of national/public/private schools or regions. In this respect,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is in the hands of people with majors in Social Studies and related studies.

Social Studies teachers have more diverse educational backgrounds than other teachers. Social Studies itself covers a broad spectrum of issues in terms of content and scope. These teachers are licensed from different sources: 1) majors in Social Studies from a college of education, 2) pedagogy majors who minored in Social Studies from a college of education, 3) four-year college graduates who completed a course in teaching, and 4) four-year college graduates who have a master's degree in education.

► Assessments and Quality Assurance

General assessment and examination standards

In general, examination takes place at the end of completing a certain unit of teaching. Teachers use diagnostic assessment and formative assessment. Summative evaluation is often conducted at the level of unit school, Office of Education, and nation. As examination is recognized as a crucial factor to decide students' future in Korea, all the stakeholders as well as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are under great pressure.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is the most influential test with respect to college entrance in Korea. It is taken by 12th grade students completing high-school education, high-school graduates, and high-school diploma equivalents. Students answer multiple-choice questions and each question requires a greater extent of higher-order thinking and application skills than most other tests. The CSAT consists of five sections: language(Korean), mathematics, social studies/ science/ vocational training, foreign language(English), and second foreign language/ Chinese characters. A listening test is included in Korean language and foreign language sections.

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NAEA) is conducted by the government to systemically determine how well students understand what they learn at school in a specific year of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respectively. The NAEA has been carried out since the 1960s. The assessment method was changed from using the entire population (students) to sampling for evaluation in 1998. It was changed back to a population assessment in 2008. The test consists of Korean language,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Mathematics, Science, and English. Since 2010, the grade 11 students (second year of high school) take a test in Korean language, mathematics and English. The test ranges from the fourth to sixth grade curriculum for the sixth graders, from seventh to ninth grade curriculum for the ninth graders, and the tenth grade curriculum for the eleventh graders.

Offices of Education carry out the National Scholastic Aptitude Test for all high school students to prepare for CSAT. Only enrolled students are eligible for this test, neither high school graduates nor the equivalents. Offices of Education conduct a diagnostic

evaluation for prim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in March, and an academic ability evaluation in December.

▶ Assessment and examinations in subjects relating to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The relevant national-level tests for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related subjects, which do not have a separate test, are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and 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As of 2010,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related subjects a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Social Studies in CSAT. The Social Studies section in CSAT comprises of 11 subjects including Ethics, Korean History, Korean Modern & Contemporary History, World history, Korean Geography, World Geography, Economic Geography, Law and Society, Politics, Economics, and Sociology and Anthropology. Students can select up to four out of eleven subjects. Every question has multiple-choice items. The test is composed of six behavioral domains: 1) understanding of concepts and principles, 2) grasping the problems, 3) analyzing and interpreting data, 4) designing and implementing research, 5) drawing conclusions and assessment, and 6) value-setting and decision-making. Each question falls into one of the six domains. Among them, the first and second domains underline knowledge, as the third and fourth stress skills.

The NAEA is taken by grade 6 students, grade 9 students and grade 11 students. Its basic form is similar to that of CSAT. Social Studies had been included in the NAEA for all the above-mentioned grades since 2009; however, it was excluded for the grade 11 students starting from 2010. Social Studies is included in diagnostic evaluation and academic ability evaluation led by each Office of Education. Questions for evaluation are set by individual teacher with relevant major or several teachers with same major in cooperation. With regard to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unit school has two test forms. One is a written test which utilizes a multiple-choice similar to CSAT, and descriptive and discussion essay. The other is a performance assessment which includes writing reports, role-plays, discussions/debates, simulation and field trips. In general, the ratio of written test and performance assessment is 7:3. While the written test is

aimed at assessing knowledge, the performance test is used for assessing skills/competence, value and attitude, let alone knowledge.

▶ Quality monitoring of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There is no independently monitoring process for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related teaching in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As various methods of monitoring are implemented for all subjects, they can be utilized to manage the quality of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related subjects. One of the most common ways of monitoring is the supervision performed by fellow teachers or school supervisors. The supervision is a process of examin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essons through opening each class to colleagues and supervisors and sharing opinions about the class. Nowadays, consulting is growing as this better reflects teachers' opinions and contexts than supervision. Parents' opportunities to observe classes are also extending.

The monitoring for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related classes is not specified at national level or by the Office of Education. Rather, schools specify the open class related to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or monitoring. The regulations vary from school to school. For example, one of the school regulations says: in principle, open class is held at least twice a year. All the subjects are equally open to teachers and parents. Before and after the class, discussion takes place about how to improve the class by sharing the impressions of participants. All the discussions are recorded for information-sharing. Each teacher is expected to try to reflect shared opinions to future classes.

For quality control and monitoring of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at each school, there are teacher groups (in charge of the same grade for primary schools), Social Studies teachers' council and Moral Education teachers' council, etc. Outside the school, there are Offices of Education,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and department of Moral Education in college of education that foster secondary school teachers and that for primary school teachers,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related government agencies, research institutes (Korea Civic Education Institute for Democracy,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parent groups,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Teachers' Association, etc. Each group contributes to improving and controlling the quality of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related classes by observing, analyzing those classes, reviewing teaching plans, and interviewing teachers for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Except Offices of Education, most groups have neither pertinent legal authority nor obligation. In this regard, they perform partial monitoring in autonomous coordination with unit schools and teachers.

► *References*

- Cha, K. S. & Mo, K. H. (2008). *SocialStudiesEducation*. Seoul: Dongmunsa.
- Huh, K. C. (2009). *Universalization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Education. Understanding Korean Educational Policy (CRM 2009-28-1)*.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Ministry of Educ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 Huh, K. C. (2009). *Curriculum and Textbook Policy. Understanding Korean Educational Policy (CRM 2009-28-4)*. Seoul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Ministry of Educ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 Kang, D. H.(2008). *Citizenship Education and Social Studies Curriculum. SocialStudies Education. Vol.47 NO.3* Seoul : Korean Social Studies Association.
- Kang, D. H.(2001). *A Historical Study on Korean Citizenship Education.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Vol.33* Seoul : Association of Social Educationin Korea.
- Kim, E. G. (2009). *Teacher Policy. Understanding Korean Educational Policy (CRM2009-28-5)*. Seoul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Ministry of Educ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9). *Secrets of an Educational*

- Powerhouse. 60 Years of Education In Korea : Challenges, Achievements and the Future (CRM 2009-33-2).
- LEE, S. J. (2008).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Education Policy. Understanding Korean Educational Policy (CRM 2008-22-7). Seoul:Korean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Ministry of Education(1997). Social Studies Curriculum. Seoul: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1997). MoralEducation Curriculum. Seoul: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2009). Social Studies Curriculum. Seoul: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2009). MoralEducation Curriculum. Seoul: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Seol, K. J.(2005). A Study of the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7th National Social Studies Curriculum.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Vol.37, No.3 Seoul: Association of Social Education in Korea.
- Web Site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http://www.kice.re.kr>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http://english.mest.go.kr/>
-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http://www.sen.go.kr>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www.assembly.go.kr/>

Abstract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Support system study on Civic Competencies of Child and Youth in Korea : Educational Environment and Impact

This study is aimed to induce political suggestions on civic education for child and youth in Korea after reviewing the civic competencies and their educational environment through an analysis on educational papers and documents. For this, the result of 'Study on Youth Key Competency' perform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as used as domestic cross-sectional data, For foreign cross-sectional data, the 2009 ICCS reports were used. In addition, the data on the 3rd and 5th years of World Values Survey(WVS) which has been performed from the 1980s to 2008 have been used to investigate changes in cross-sectional awareness.

According to analysis of the Key Competency of youth, civic competencies and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Korean high school students' feeling of belonging to their school and satisfaction on their life were far lower compared to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 Korean students' average knowledge was high in all categories. On the contrary,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election when they grow up was higher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uide Korean students to act accordingly depending on their democratic citizenship or knowledge.

According to WVS analysis, international students were more satisfied than the students from non-OECD member countries in terms of happiness, life satisfaction and freedom to select their job. In terms of loyalty to their country, however, the

students from non-OECD member countries were higher than international students. In addition, students from OECD member countries were more active than those from non-OECD member countries in terms of participation in 'sports and recreation activities.' In other sociopolitical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was far greater than the former.

According to the analysis above, this study has proposed citizen education as a part of establishing cultural environment for democratic citizens associated with autonomy, publicity, democracy and responsibility in the school, expanding this kind of atmosphere, developing a system for citizen education for home and local society, integrating local community and achieving globalization.

Key words: civic competence, ICCS, WVS, key competencies, civic education and citizenship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1-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Ⅰ /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조혜영·김민·김영호
-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김영지·김진호·이용고·조아미
- 11-R04-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 이유진·김영지
-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Ⅰ / 성윤숙·김영한
-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Ⅱ : 한부모·조손가정을 중심으로 / 성윤숙·김영한
- 11-R06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현·김창환
- 11-R07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1-R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황진구·이해연·유성렬·박은미
- 11-R09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김경준·오해섭
-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김경준·오해섭
- 11-R09-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 김경준·오해섭·정익중
- 11-R09-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
- 11-R09-4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
- 11-R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사업보고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 11-R1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기초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서우석
- 11-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임희진·김현신
- 11-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1-R12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이민희·박선영·박숙경·신인순

- 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박숙경·김소희·오세정
-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최창욱·임영식·이인재·박균열·박병기
-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감수성 / 박균열·홍성훈·서규선·한혜민
-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판단력 / 이인재·김남준·김항인·류숙희·윤영돈
-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동기화 / 박병기·변순용·김국현·손경원
-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품성화 / 이인재·김남준·김항인·류숙희·윤영돈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안선영·김희진·박현준 (자체번호 11-R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장미혜·정해숙·마경희·김여진 (자체번호 11-R21-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취약위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은기수·박건·권영인·정수남 (자체번호 11-R21-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김미숙·김지은·박정연 (자체번호 11-R2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호근·김영문·정혜주 (자체번호 11-R2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2011 민주시민 역량실태 조사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1-R23-2)

수 시 과 제

-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김희진
- 11-R15 한·중·일·미 교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임희진·김진숙
-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최창욱

- 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 · 김영지
-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 · 조윤오
- 11-R19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 · 권순용 · 박일혁
-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현 · 맹영임

수 탁 과 제

-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현 · 최창욱 · 김형주
-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 · 오해섭
-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 · 조남익 · 손의숙
-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 · 김경준 · 성윤숙 · 이창호
-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김승경
-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유명화
-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 · 조혜영
-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 · 조혜영
-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 · 최인재 · 김윤나
-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 · 최창욱
-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 · 김영한 · 김형모
-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 · 양계민 · 김승경
-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 · 김기현 · 김가람
-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 · 백혜정
- 11-R40 '공정사회 실현' 교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임희진 · 장근영 · 김혜영 · 황옥경
-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 · 김영지
-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익 · 장근영 · 김형주
-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김희진 · 이해연 · 황옥경 · 이용교
-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 · 오해섭 · 모상현 · 천정웅 · 김지혜 · 김명화 · 오정아 · 박경현 · 방진희
-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김세광 · 박선영 · 유가예
-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 · 김경준 · 오해섭 · 박정배 · 진은설

- 11-R46 성인·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 II / 장근영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 11-S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관련 논의의 초점들(5/19)
- 11-S11 아동·청소년 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5/25)
- 11-S12 아동·청소년 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시 복지패널조사(6/2)
- 11-S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5/25)
- 11-S14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방향 및 경과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5/27)
- 11-S15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종단조사(5/25)
- 11-S16 다문화 종단 연구 패널 연구 방법론 I (6/15)
- 11-S17 해외 평가 동향(6/20)
- 11-S18 청소년공부방 현장실사위원 워크숍(6/20)
- 11-S19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워크숍 II (6/24)
- 11-S20 학교문화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6/24)
- 11-S21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 (6/29)
- 11-S22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I (7/11)
-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콜로키움 자료집 II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7/28)
- 11-S24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개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8/9)
- 11-S25 2011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 데이터분석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8/30)
- 11-S26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워크숍 자료집 : 시범사업 중간발표 및 워크숍(8/18, 19)

- 11-S27 청소년수련관 인증제 도입 방안(9/1)
- 11-S28 청소년문화의 집 인증제 도입 방안(9/2)
- 11-S29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관련 워크숍(9/19,20)
-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9/9)
- 11-S3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9/28,29)
- 11-S32 한중 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한·중 국제 세미나(9/22)
- 11-S33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9/30)
- 11-S3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10/12)
- 11-S3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0/17)
- 11-S36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11/1,2)
- 11-S37 청소년 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 세미나(10/26)
- 11-S38 20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책방향(10/27)
- 11-S39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4)
- 11-S4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1/4)
- 11-S4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11/2)
- 11-S42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 방안(12/1)
- 11-S43 2011 한·중 청소년 정책 세미나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청소년 우선개발의 이념과 행동 (12/6)
- 11-S4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성과보고회 및 '12년 시범사업 설명회(12/9)
- 11-S45 멘토링 운영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12/9)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2호(통권 제6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3호(통권 제6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4호(통권 제63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 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중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종 · 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현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12호 : 창의적 체험 활동(2010년12월)
- NYPI YOUTH REPORT 13호 :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8월)
- NYPI YOUTH REPORT 14호 :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8월)
- NYPI YOUTH REPORT 15호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9월)
- NYPI YOUTH REPORT 16호 :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9월)
- NYPI YOUTH REPORT 17호 :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18호 : 방화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10월)
- NYPI YOUTH REPORT 19호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0호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1호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2호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11월)
- NYPI YOUTH REPORT 23호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발달권, 참여권(11월)
- NYPI YOUTH REPORT 24호 : 청소년의 가족의식·가정생활 실태조사(11월)

연구보고 11-R23-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인 쇄 2011년 12월 21일

발 행 2011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2001. 8. 24. 제13-726호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02)2272-1767 대표 김방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대외협력·학술정보팀)

ISBN 978-89-7816-991-2

ISBN 978-89-7816-988-2(세트)

